

시로 읽는 성보순례
금동삼존불감

국보 73호 금동삼존불감
고려시대 ▶2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7월 26일) · 주간

제905호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목숨은 빨라 오래 머물지 않고
즐거움은 무상해 없어지니
게으름을 즐기지 말라.
「정법염처경 제57권」

‘사후약방문’ 재산관리 언제까지

조계종 사찰 토지 불법 매각 비리, 대책 없나

사명대사의 유훈이 서려 있는 밀양 표충사가 털렸다. 임기 만료를 앞둔 前 주지 ㅈ스님이 사무장과 공모해 약 40억대의 삼보 정재를 불법으로 매매 · 횡령했다.

현재 총무원과 통도사가 파악한 피해 현황을 보면 ㅈ 스님은 토지 17필지, 약 7만평을 불법 매각했고, 그 액수는 34억원 대에 이른다. 또한 사찰 회계 장부 확인 결과 1억 9천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했으며, 미승인 기채도 5억원이 발생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예치금도 불법적으로 사용됐다.

표충사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불법적 토지 매매는 간헐적으로 있어왔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주지 스님이 토지를 불법으로 처분하면, 망실된 토지를 본사와 종단이 소송을 통해 환수해왔다. 즉,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식 대응이 대다수다. 불법 매각을 사전 인지해 예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조계종 사찰들이 불사 등을 이유로 토지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교구 본사를 거쳐 총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구 본사와 수말사들에 대한 종정 감사도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삼보 정재를 불법적으로 매각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원인을 밝힐 수 없지만 표충사의 경우는 명백한 사기극”이라며 “주지와 사중 측근이 문서까지 위조해 사기를 치면 사실상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총무원의 한 부장급 인사 역시 “사회 안에서도 이런 사기 범죄에는 대책이 많지 않다. 종교 단체인만큼 재산 관리에 있어서 수행자 개개인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주지와 사무장이 담합해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종단과 교구본사 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정감사 기간, 빈도 확대
주지에 종무행정 권한 집중
사찰 내 견제장치 마련돼야

이런 불법삼보 정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종무행정을 연구해 온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종정 감사를 실효성 있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보통 종정 감사기간은 3일이다. 스님 2명과 재가자 2명이 팀을 이뤄 교구본사와 수말사를 감사한다.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각 사찰에서 2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 기간을 늘리거나,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에 누락된 일부 토지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종단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재산들은 망실했을 경우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재산을 관리하기에는 종교법인이 가장 용이하지만 종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공산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볼 때 신고가 안된 일부 토지를 종단 명의로 전환시켜 관리하는 게 제2, 3의 표충사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또한 제대로 된 스님에게 주지를 맡기는 인사시스템 정립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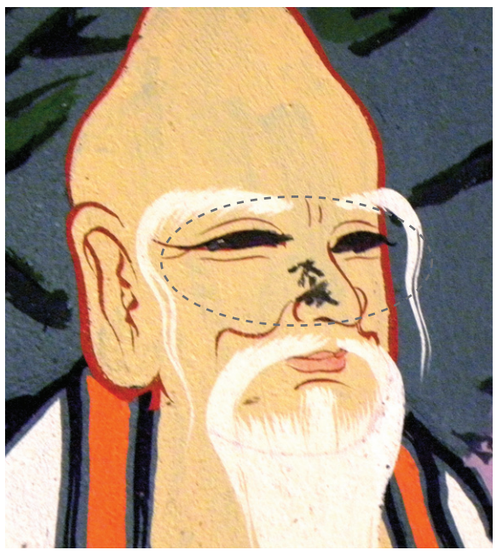
사찰 종무행정의 구조적인 원인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사찰의 종무행정은 주지 스님에게 가장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주지 스님이 마음만 먹으면 사중 측근들과 협의 하에 얼마든지 사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표충사 비리도 前 주지 스님과 사무장의 담합으로 이뤄졌다. 사찰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됐지만, 인준 장치이지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조기룡 교수는 “현 종무행정 구조는 주지 스님이 전횡을 한다면 막을 방안이 없다. 새의 날개처럼 주지 스님을 견제하며 종무행정을 운영할 다른 한 축이 필요하다”며 “재가 전문 종무원 제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의 다른 관계자는 “‘열 명이 지켜도 한명의 도둑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조계종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부서와 인력이 한계가 있다”며 “전통사찰 관리에 있어서 문화재적인 접근만 할 것이 아니라 운영, 회계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중일 기자





아!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개신교 한 목사가 술김에 사찰 조사전에 소변을 누고 탱화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8월 20일 대구 동화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대구불교계는 지방법원을 항의방문했으며 이 목사는 이례적으로 구속수감됐다. 사진은 낙서한 산신각 탱화 모습. 관련 기사 3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 발족

3일 위원 위촉식… 첫 의결 ‘시몽 스님 직무 정지’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출범을 알렸다. 중앙징계위원회 구성은 제190회 중앙종회에서 의결된 종무원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중앙징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동화사 주지 성문, 중앙종회의원 정묵, 보광사 주지 종훈,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을 위촉했다. 교육원장 현응, 포교원장 지원스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그간 주지 직무 중 형사 문제 등으로 구속이 돼도 직무가 유지돼 사중에 피해가 많았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고민이 많은 위원회다. 모든 사안에 심사숙고해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원회의 첫 징계 사례는 최근 종단과 마찰을 겪고 있는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이 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9월 6일 회의를 열고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주지와 7직 소임자에 대해서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사찰 종무행정의 비정상적 운영, 종헌 종법과 종무 지침, 특별감사 거부 등을 근거로 종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해 징계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직무상 비위로 회부된 시몽 스님과 불법촬영을 지시한 보연 스님에게 제적 판결을 내렸다. 신중일 기자

“금강산 관광 재개는 곧 상생의 길”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자승스님 상임대표 추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종교계와 시민단체, 기업, 지차체 등이 뭉쳤다. 금강산관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가 9월 5일 조계사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김덕룡 민화협 대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남부원 한국 YMCA 총무, 최요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상임 대표로 추대된 자승 스님은 “북한은 아직 납득할 수준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남한 또한 이를 계기로 한 발 더 성숙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이 서로 다투고 겨루는 불행의 역사를 끝내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고성군 현내면 일대 음식점 여관 주인들은 빚에 쪼들려 야반도주를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금강산 관광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 신변보장만 된다면 양 당국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 관광이 재개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민간 차원의 입장 전달 및 협의를 위해 정부면담 및 북측과의 접촉 추진 ▷금강산 관광 재개 범국민 행동의 날 추진 ▷피해업태 실태 조사 ▷정부가 제시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 보장에 대한 해법 마련 ▷금강산 남북 공동행사(금강산 국제평화콘서트) 추진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웠다.



범국민운동본부가 9월 5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이 상임대표로 추대됐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그 투자기업들과 강원도 고성군 등의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정상화만이 아니라 남북의 지속적인 공존 · 번영을 위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2차
취재부 경력기자 수습기자	약간명	① 경력기자 3년 이상 경력자 ② 수습기자: 2012년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 ③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2년 9월 19일 수요일까지

2.**접수방법**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8205, 8212)

905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쇄신위 4대의제 마련
제49차 포교정책 연찬회
“원전문제 은폐 · 축소”
불교방송 공영미디어렙 편입
풍경소리 철거 전면 백지화
포교원 · 대불련 극적 합의

시방세계 5
정호 스님과 도올의 만남



신행 6
사찰 스마트폰 영상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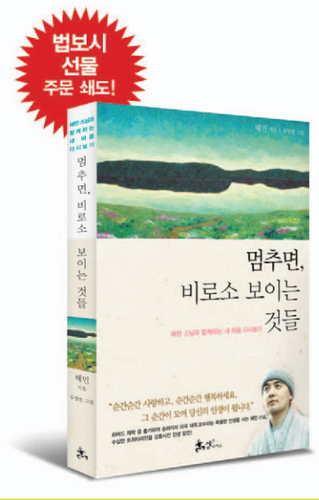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27

“이 책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었습니다.” — 독자 stjeo***

— 최단기간 100만부 돌파!(에세이 분야) —

★가장 많이 선물한 책 1위! 2012 상반기 네티즌 선정 한국인 필독서 1위!★
★중국, 일본, 대만 판권 수출! ★ 16주간 베스트셀러 1위! ★ 2012 상반기 한경 히트상품 선정!★

법보시 선물 주문 쇄도!



읽고 선물하고, 읽고 선물하고…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은 책!

“어려운 불경 대신 이 책으로 법보시했습니다. 이 책은 종교의 벽에 갇힌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안내하는 젊은 선배의 마음공부법입니다.”
“갑자기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마음을 편히 먹고 싶을 때, 이 책의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어보면 해답이 보인답니다.”
“어떻게 살라고 강요하는 말이 아닌, 혜민 스님의 글은 넘어져 있는 우리들 옆에 같이 엎드려서 말해줍니다.” —독자의 글 중에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지음 | 우창현 그림 | 값 14,000원



하버드, 프린스턴을 나와 현재 미국 햄프셔대 교수로 재직 중인 혜민 스님.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리안으로 손꼽히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영혼의 멘토’로 자리잡았다.

법공양 및 단체 구매 시 안내해드립니다. 031-960-4845 쌤앤파커스의 책들은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74 파주출판도시 쌤앤파커스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73호 금동삼존불감



금동삼존불감

임 보

저 고려나 신라 적 우리 조상님네들
생각도 참 갸륵했다

먼 길을 떠날 일이 있으면
혼자 가시지 않고
부처님과 늘 동행하셨다

그것도 한 분의 본존불만이 아닌
좌우 두 분의 보살님도 함께 모셨다

아니, 부처님들만이 아니라
한 채의 절, 대웅전을 통째로
품에 안고 다녔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넓으셨던가?

하기야,
저 수미산 위의 아득한 도솔천을
품고 살았던 분네들이니
한 채의 절쯤이야 무슨 대수였겠나?

불감의 금동 지붕 위에
천년의 하늘이 푸르게 고여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임보 시인은… 196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장닭 설법〉, 〈가시연꽃〉 등

조계종 쇄신, '청규·종무·선거 복지' 집중

4대의제

조계종이 추진하는 종단 쇄신안 마련이 승가 청규 · 종무 · 선거제도 · 승려복지제도 등 4가지 의제로 집중된다.

조계종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은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쇄신 의제 및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제 회의에는 6차 소위원회 회의부터 12차 회의까지 7회에 걸쳐 만들어진 쇄신 의제에 대한 결정이 안건에 올랐다.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쇄신의제는 승가청규 제정을 비롯해 △종단종무쇄신안 마련 △선거제도 △호법제도 △승가복지제도 △교육제도 △포교제도 등 7대 대의제와 14개 소의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쇄신위원들은 종단 전반의 사항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의제를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의제 방향이 너무 크다. 7대 의제를 3대 의제 정도로 압축해야 한다"며 "내년 6월에 쇄신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위원회 취지에 안 맞다. 입법화 과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도 "현재 작성된 의제 중 호법제도를 종단종무쇄신안에 포함시키고 정리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승가청규 △종단종무쇄신안 △선거제도 △승가복지제도 등을 종단 쇄신 4대 의제로 결정했다. 쇄신

승가 쇄신위 전체 회의서 결정
연말까지 쇄신안 완성해 백서로
내년 입법과정… 쇄신작업 박차

안도 연말까지 완성해 백서로 발간하고 내년부터 입법 과정을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의제 결정으로 쇄신안 전반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규에는 승가의 의식주와 생활 · 문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며, 종무쇄신안으로는 중앙종무기관, 지방교구의 제도와 관행 개선, 인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다뤄진다.



조계종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9월 3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4대 의제를 결의했다. 덕문 스님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선거법과 산중총회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승가복지제도에서는 의료, 연금, 최소생계비 보장 등 기본수행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명칭 개정, 간사 직책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쇄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종단 쇄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9월 4일 새 스님 14명 배출

구인사서 수계산림법회 봉행

천태종이 새 스님 14명을 배출했다. 천태종은 9월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임진년 승려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구인사에 입산해 3년 행자 생활을 마친 계법승 3명과 계정니 11명은 이날 도용종정 스님을 증명법주로, 3원장 스님 · 각 부장 스님 · 비구니 원로 스님을 3사 7증사로 모시고 불제자로서 마음을 밝혀 삼계중생의 스승이 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했다.

도용 종정 스님은 "오늘 부처님 계를 받아 마음에 새기고 십선계를 잘 지키기 바란다. 어떤 법을 하더라도 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며 "계율이 청정해야 성불할 수 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진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계를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식은 △삼귀의례 △보현행원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고불문 △국운융창기원 △수계자 명단 발표 △수계자 분향 △수계자 고향예배 △불전 예배 △연비 △수계 △장삼 및 가사수여 △수계증 및 도첩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원 스님)은 9월 7일 단양 구인사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5일 간 수륙 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도 봉행했다.

삼회향놀이 학술대회는 11일 인광당 4층에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진 청주대 명예교수(前 충북 문화재위원)가 '삼회향놀이의 문화재 지정 의의'를, 이창식 세명대 교수(충북 문화재위원)가 '구인사 삼회향놀이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 최일성 전 청주대 명예교수와 한종구 충북 문화재위원이 논평자로 나서 삼회향놀이의 학술문화적 의의에 대해 논의 했다.

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영산대재는 수륙재, 영산재, 예수재는 물론 지난 4월 충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삼회향놀이도 시연됐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은 9월 4일 구인사에서 승려수계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스님 14명이 배출됐다.

백양사 주지 직무대행 진우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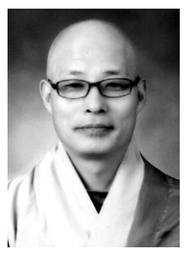
7일 검수 인계… "사중 정상화 위해 노력" 천명

백양사 前 주지 시몽 스님의 직무 정지로 인한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직무대행에 담양 용흥사 주지 진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6일 종무회의 결의를 통해 백양사 직무대행에 진우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6일 저녁 백양사 대중공사를 열고 도박과 불법 촬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100일 참회정진을 결의 했다.

9월 7일로 검수 인계를 마무리했으며, 총무국장에 원명스님, 기획국장에 청마스님, 재무국장에 정견스님 등 임시 7직 소



임자를 정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백양사 정상화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일부 백양사 문도가 출가수행자로서 해선 안 될 잘못을 범해 종단과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백양사 주지 직무대행의 소임을 맡게 되었기에, 조속히 사찰을 정상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선원수좌회 "지체없는 쇄신 촉구"

연대회의 동참… 교직자協 성명은 명의 도용 논란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무여, 지환, 이하 선원수좌회)가 총무원 집행부에서 종단 쇄신 개혁을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선원수좌회는 9월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반 종도들의 눈에는 지금 진행되고 잇는 일련의 종단 개혁과 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현상타개의 미봉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회는 현 집행부에게 지체 없는 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전국승가대학 교직자협의회를 9월 3일 수좌회의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월 스님이 다른 교직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한편 사부대중 연대회의도 수좌회 주장에 동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중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동국사 창건 제104주년
한일합동 다례제 및 참사문비 제막식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에서는 일본불교 최대종단인 조동종에서 발표한 〈참사문〉을 조동종 승려가 회장으로 있는 동지회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가 주관하여 동국사 창건 기념일에 맞춰 참회법회와 〈참사문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참사비는 패망 후 68년 만에 일본인들 스스로 한국에 세우는 참회의 비석입니다. 참사문(참회와 용서의 글)은 불교의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지난 과오를 부처님께 참회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막식을 계기로 한일 양국민 모두 서로를 용서하며 우호적 선린관계로 발전시켜 이웃사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 자 : 2012년 9월 16일(일) 10시 ~ 12시
장 소 : 군산 동국사
문 의 : 063)462-5366 . HTTP://DONGGUKUSA.OR.KR
주 차 : 동국사 좌측 금광초등학교 운동장,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주지 종명
일본 조동종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회장 이치노혜 쇼코

동국사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동국사

BBS불교방송 공영미디어렙 포함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고시'

불교방송이 공영미디어렙에 최종적으로 편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5일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제정하고 이를 개제했다. 이에 따르면 따로 분리됐던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은 CBS, 평화방송, 극동방송과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최종 편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교·원음방송 등 종교방송사들이 자사의 공영적 성격을 감안해 KOBACO에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해왔다"며 "이런 이해관계자 의견과 방송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이 같이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방송의 공영 미디어렙 편입은 가시밭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6일 행정예고를 통해 불교방송과 원음방송을 SBS가 추진하는 민영미디어렙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에 대해 불교방송과 불교계는 종교편향 미디어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불교방송은 수 차례 걸친 성명서를 통해 "종교 프로그램이 편성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방송은 사실상 공영방송"이라며 "성격을 감안해 공영미디어렙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청년회 등 불교계 단체들 역시 불교방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급선회한 것은 이런 불교계의 거센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확정된 고시는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까지는 현행 결합판매 구조에 따라 광고판매가 이뤄진다. **신중일 기자**

'풍경소리' 철거 전면 백지화돼

종교선전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위기에 내몰렸던 지하철 문화아이콘 '풍경소리'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

풍경소리는 "서울시가 지하철의 모든 부착물을 제거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풍경소리'와 '사랑의 편지'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의 수정 계획은 양지하철공사에 전달됐다"고 9월 3일 밝혔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철거 반대 청원을 한지 11일만의 일이다.

풍경소리는 "서울시의 변화 방침은 철거 반대 청원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하철의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지역공동체 복원이 불교의 미래"

윤남진 소장, 포교연찬회서 '사찰 공동체 참여'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도시마을 공동체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천명한 것이다. 불교계 포교 역시 이런 지역공동체 구성과 발전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은 9월 6일 열린 제49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지역공동체 구성은 세계적 추세"라며 "불교와 사찰이 지역공동체 구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포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먼저, 지역공동체에 대한 세계적 추세를 소개했다. 그는 "1992년 브라질 리우 회담 이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도심 및 농촌지역 사찰의 존재방식을 재구성하고 지역에서 사찰의 역할에 근거한 포교 개념을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불교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는 없고 전국구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윤 소장은 "불교계의 지역 프로그램은 장학사업·사회복지적 돌봄사업·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시혜적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다"며 "연구를 진행하면 만난 서울시 공무원과 풀뿌리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불교와 사찰이 지역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시청으로 가져간다. 지

'공동체 구성' 포교에 중점
사찰 지역화 전략 세워야
관계·수행으로의 접근도

역구는 없고 전국구만 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지역화가 세계적 트렌트가 된 요즘, 불교는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갈등해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함께 어울리고·논의하고·나누며·마음의 평화를 돌본다'는 비전을 세우고 지역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기획이사는 관계와 수행으로 지역화 전략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지역 사회의 이해와 소통,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관계의 범주에 두고, 수행의 범주에는 심성의 돌봄을 배치해야 한다"며 "평생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호 마곡사 기획위원도 "한국불교의 기복신앙 과잉과 사회적 관심 빈곤은 사회와 불교 사이의 상호소외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역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사찰이 스스로 성찰해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연찬회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진관스님이 '포교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발표했으며 동국대 교수 영석스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21세기 새로운 포교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개신교 목사, 동화사서 '낙서·방뇨'

"성령 이끄는 대로…" 황당 답변
대구불교계 공분, 목사 결국 구속



대구지역 불자들은 9월 6일 대구지방법원을 항의방문하고 동화사 '땅밟기' 등 연이은 훼불 사건을 방치한 정부를 규탄했다.

개신교의 한 목사가 대구 동화사에서 소변을 누고 탱화에 낙서를 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동화사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5시 울산에 사는 목사 성 모 씨(43)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법화경〉과 〈선문절요〉 등 불교경전을 훼손하고 대웅전 뒤 산신각에서 탱화에 낙서를 했다.

성 목사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사전에 들어가 청수 그릇과 향로에 소변을 봤다. 목사의 이 같은 황당한 행각은 사찰 CCTV에 촬영됐으며 동화사 측은 대구 동부경찰서에 신고해 성 씨는 10여 일 후 경찰에 검거됐다.

성 씨는 자신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밝히고 "불교경전에 헛된 것이 적혀 있어 훼손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성 씨는 2005년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최근까지 목회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씨는 9월 6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며 성 씨가 사건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화사 총무국장 원광 스님(훼불 대책위원장)과 대구 보현사 주지 지우 스님, 태고종 청룡사 주지 보선 스님, 대한불교청년회원, 대구시불교신도회 등 100여 명은 9월 6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훼불행위 규탄 법회를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새누리당 대구시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 "이명박 정부 들어 종교평화를 해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종교편향적 행태를 규탄했다.

대구 불교계의 이러한 목소리는 최근들어 기독교계의 '땅밟기' 등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연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동화사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사찰 경내에 들어와 땅 밟기를 벌인 장면이 담긴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동화사가 추진중인 불교테마공원을 종교편향정책의 일환으로 폄하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원전 문제, 은폐·축소 되고 있다"

불교생명윤리協, 우원식 국회의원 초청 탈원전 좌담회



"수명연장을 목표로 하는 고리 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 등을 위해 상당 부분의 자료들이 조작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기에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원전 관련 문제는 사실이 은폐 축소되고 있습니다"

불교생명윤리협회에서 주최한 탈원전 인사초청좌담회에서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사진〉은 이렇게 밝혔다.

동국대 김익중 교수의 사회로 9월 5일 템플스테이 정보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우 교수는▷원전 안전 상태에 관한 정보 데이터 아톰케어시스템의 허상 ▷고리 1호기 압력용기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성된 한국원자력사업회의의 임원표를 공개하며 내부 감시가 아니라 집단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의 허상을 꼬집었다.

우 의원은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명단을 보면 원자력 문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 산업 팽창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내부적으로 원자력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인원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30년으로 규정된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편법이 적용되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1차 10년 수명연장을 받은 고리 1호기는 2017년 40년을 맞게 된다. 이후 20년 연장을 보장 받기 위해 원자로 압력용기 건전성 평가에 대비한 N 감시시편 등이 조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고리 원자력이 우리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1%지만 폐쇄 비용 등 사후의 문제를 감안해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사실 원자력 폐쇄에 대한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폐기 매뉴얼조차 없는 시점에서 고리 1호기가 폐쇄 된다면 그 대책이 막막하다. 또한 패쇄 비용이 공개되면 원자력에 대한 반대 분위기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에 정부는 원전 수명 연장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우원식 의원은 연세대 공학대학원 환경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일 주 문



생명나눔 희망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2일 오후 2시 동국대 만해광장에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늘 푸른 희망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제9회 오대산문화축전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10월 19~21일 월정사 일대에서 제9회 오대산문화축전을 개최한다. (033)339-6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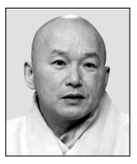
다라니정진 1주년 법회

서울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9월 10일 경내 임시법당에서 '천수다라니 3년 대정진 기도' 1주년 법회를 봉행했다.



세계 문화유산 탐방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스님은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유산만들기' 일환으로 9월 8일, 안동 하회마을을 탐방한다.



숲속힐링 - 패밀리 선데이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법주사 숲속 힐링- 패밀리 선데이'를 개최한다. (043)543-3615



천년솔향 산사음악회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13일 '천년솔향 고운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054)833-2324



YB윤도현밴드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6일 봉화 청량사 경내에서 YB윤도현밴드 초청 2012청량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54)672-1446



아미타48대원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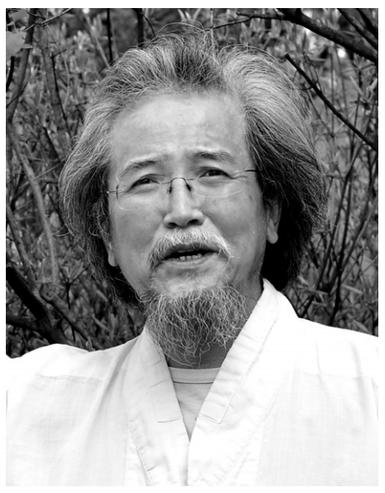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9월 12일 대웅전에서 아미타 48대원 기도에 입재한다. (02)732-2115

〈화촉〉 최상철 · 김경희의 장남 최호승 법보신문 기자와 송재화 · 김문숙의 차녀 송지희 법보신문 기자는 9월 15일 오후 1시 부산 농심호텔 2층 크리스탈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051)553-1199

〈화촉〉 민성진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의 장녀 민근하 양은 9월 16일 오후 2시 50분 부천 소풍컨벤션웨딩홀 6층 컨벤션홀에서 화촉을 올린다. (032)624-7777

"빨리 대장경 완역까지 쉼 없이 정진"

'이띠붓따까' 등 부처님 직설 관련 경장 완역한 전재성 박사



"경전 번역은 우리 문화를 담고 또 초등학생도 읽을 정도로 쉬워야 합니다.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초기경전 보급을 위해 빨리 대장경 완역까지 쉼없이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법한 내용을 빨리어(梵語)로 기록해놓은 초기불전 '이띠붓따까'를 완역한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 전재성(55) 박사〈사진〉는 9월 4일 "빨리 대장경 완역을 위해 쉼없이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띠붓따까'는 부처님이 직접 설법한 경장(經藏) 다섯 가지 부(部.니까야) 중 '쿳다까니까야'(小部) 일부로 '이와 같이 말해진 것'이란 뜻을 지녀 〈여시어경〉으로도 불린다. 짧은 산문 이야기에 게송들을 곁들인 112개 경들로 구성돼있다. '이띠붓따까'는 산문부분에 '디까니까야' 뿐만 아니라 '앙굿따라니까야', '쌍윳따니까야' 등에서 인용된 부분이 나와 다른 경전보다 후대인 BC 4세기 경 제2결집에서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 박사는 6개월 간 '이띠붓따까' 번역을 진행했다. 특히 여시어경의석(如是語經義釋)에 기초해 1617개의 상세한 주석까지 모두 번역했다.

"법정 스님께서는 한 칼럼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느냐에 따라 진정한 불자임이 드러난다'고 하시며 〈이띠붓따까〉의 '쌍가띠 옷의 자락의 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전 박사는 "〈이띠붓따까〉는 수행승 교육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며 수행을 강조하는 현재 불교계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전 박사는 그동안 '쌍윳따니까야'(相應部, 2002), '맛지마니까야'(中部, 2003), '앙굿따라니까야'(增部, 2007), '디까니까야'(長部, 2011)를 번역 완료했다. 이 밖에도 전재성 박사는 쿳다까니까야에 속하는 '법구경'(2008), '숫타니파타'(2004), '우다나'(2009)에 이어 '이띠붓따까'를 완역함으로서 경장 중 부처님이 직설한 대부분을 완역했다. 사부니까야 완역은 세계 최초로 독일 노이만과 미국 비구보디 스님만이 사부니까야 중 이부니까야를 완역한 상태다.

전 박사는 "신기하게도 '니까야' 번역 과정이 번역자들의 건강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번역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번역에 있어 초등학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쉬운 말과 우리 문화를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박사는 그 예시로 하늘님을 들었다. 전 박사는 "기독교의 하느님도 우리 고유의 하늘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인 용어"라며 "불교의 범천을 하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박사는 "초기불전을 보면 부처가 매우 쉬운 일상의 언어로 설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한문 번역으로 인해 수행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다. 현대인들의 언어감각에 맞게 계속 새롭게 번역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재성 박사는 서울대를 나와 동국대 인도철학과 석 ·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1982-1989년 독일 본 대학에서 인도.티베트학을 공부했다. 1997년부터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을 맡아 초기불전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권 대표 단체로 자리매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법인화 한 박광서 대표



"외부적으로 볼 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탄탄한 조직으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재가연대 산하단체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의미를 갖습니다."

박광서 종자연 대표(서강대 교수 · 사진)는 사단법인 전환의 의미를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법인화를 함으로서 공신력을 갖고 한국 사회에 종교인권의 뿌리를 공고히 내리겠다는 것이다.

종자연은 9월 8일 장충동 만해 NGO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의결, 임원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종교인권을 다루는 유일한 법인단체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최근 종자연은 개신교계와 마찰을 겪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인권 관련 연구사업을 수주한 게 문제가 됐다. 불교계 단체가 개신교를 사찰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법인화로 사회적인 신뢰를 확보하게 되면 이 같은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인화를 하면 가장 먼저 재정 안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회원이 150명이 되지만,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단체로서 아직 인원이 부족합니다. 회원 영입에 더욱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정관이 확정되면서 의결구조도 변했습니다. 그간 몇몇 활동가 위주로 사업들을 추진했지만, 이제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자연은 향후 교단을 대표하는 종교인들을 영입하고 정책 자문단을 확대해 조직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저간의 갈등은 종교인권을 뿌리 내리는데 필요한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화가 됐지만 종자연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종교인권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른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적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축구로 불자 교류"

'제1회 만다라배 불교 축구대회' 이동격 FC붓다 초대 회장



9월 15일 열리는 불자 축구 동호인들을 위한 제1회 만다라배 불자축구대회 개최를 앞두고 이동격 FC붓다 회장(본사 부장 · 사진)은 "이번 불자축구대회는 축구동호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전 불자들이 동참하는 포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대회에는 FC붓다 주관 하에 총지 드래곤즈(불교총지종 축구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기자협회 등 승속을 넘나드는 8개 팀이 출전한다.

이동격 회장은 "이번 대회는 불교계 동호인들이 함께 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번에 참가하지못한 동호회들을 위해 내년 대회는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회를 주최한 불교총지종에 대해 감사인사를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일붕선교종 9대 총무원장 경원 스님

전 종도 결집대회로 화합과 재도약 다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9월 5일 인천라마다송도호텔 연회장에서 '제9대 총무원장 경원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총무부원장 용운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전 종도 결집대회를 겸하여 종도 화합과 재도약을 위한 장으로 함께 진행됐다.

3세 종정 무찰, 원로의장 지공, 원로부의장 혜천 등 종단 원로를 비롯하여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삼론종 총무원장 진봉,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일붕문도회 회장 의륜, 인천불교연합회 회장 일초스님 등 각 종단 지도자 등 8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신임 총무원장 경원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종도들을 위한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총무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에서는 경남교구종무원 승원 스님의 종도다짐과 중앙종회의장 법선 스님의 결의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한 승원 스님 외 종도들에 대한 공로패도 수여됐다. (02)991-8175 **노덕현 기자**

백중 맞아 연평도서 위령제 열려

연평도 연평부대 호국사(주지 영범)는 9월 2일 백중 7일기도 회향 이후 연평도 포격 순직장병 위령제를 봉행했다.

이날 위령제에는 하사 서정우, 일병 문광욱 등의 영가가 모셔졌으며 연평부대와 서울 칠보사, 강릉 죽도암 등에서 십시일반 후원한 떡과 과일, 과자 등이 영단에 올려졌다.

위령제에는 박정환 연평부대 부대장을 비롯해 부대 부서 간부, 해병, 해군 장병 1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에 대한 넋을 기리고 당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며 나라지키기를 서원했다. 호국사 주지 영범 스님은 "연평도를 비롯한 서북 5도 장병들이 보다 국토수호에 자신감을 갖고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타종 체험 행사 확대 개최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타)의 타종 체험 확대를 기념해 9월 3일 정창근 경영부총장, 박정극 학술부총장, 강태원 연구경쟁력강화위원장, 정각원장 법타 스님 등과 함께 직접 2학기 개강 타종행사를 진행했다.

정각원은 2010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종행사를 벌이고 있다. 매일 정오 학내 범종각에서 교수와 학생, 행정부서 직원 등 다양한 그룹별로 직접 타종행사를 해왔다.

동국대 정각원 원장 법타 스님은 "그동안 각 행정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종 체험행사를 개최했는데 학내외의 반응이 좋아 이를 교수와 학생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뷰 출가의식 지원
신뷰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뷰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9월 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열린 정조 · 다산 리더쉽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회 이후 화합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 연구소 실장, 채수일 한신대 총장, 안민석 국회의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도올 김용옥 교수,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염태영 수원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진흥 화성시 부시장.

지역문화발전 길찾기에 용주사가 나섰다

용주사 효행문화원서 정조 · 다산 리더쉽 토크콘서트

효문화 살리기에 종교 · 학계 한 목소리
정조 · 다산 리더십과 목민정신 배우자
수원, 화성, 오산 시장 상생 협력 입장 밝혀

9월 1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각계 목소리가 오가는 야단법석이 펼쳐졌다. 정조 대왕과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실천하자는 토크콘서트가 열린 것이다.

용주사(주지 정호)와 한신대(총장 채수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토크 콘서트에는 도올 김용옥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학계 전문가, 지역 정치인,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효행교육원은 토요일 오후임에도 토론 열기가 가득했다.

토론자로 채수일 한신대 총장과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을 비롯해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진흥 화성시 부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또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유봉학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박현모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 연구실장, 김태희 다산연구소 기획실장,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학술적인 날카로운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주로 정조와 다산의 리더십과 사상 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다.

정호 스님은 "용주사가 위치한 융건릉은 효행문화가 문화유적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며 "효테마파크를 건립하는 한편 효행문화 지킴터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정조와 다산의 리더쉽은 여러 문신을 비롯해 일반 서민들과 함께 경학하고 소통한데서 나온 것"이라며 "수원, 화성, 오산 단체장들은 대중들과 소통하며 효문화 창달을 비롯한 지역발전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도 "유교문화가 현대사회에서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며 "민족정신의 근간인 충과 효 정신을 살리는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또 "수원과 화성, 오산의 상생협력위 구성은 단체로서는 최초인 것 같다"며 "효문화를 비롯해 지역사회 나침반 역할을 하는 구심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정호 스님의 발언 후 "불교가 부모를 여의고 출가하는 불효의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부모와 함께 다른 중생도 모두 효로서 섬기고 공양하는 종교"라고 콘서트를 주관한 용주사에 감사를 표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의 사회는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토론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감초 역할을 했다. 김용옥 교수는 또 "효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예수, 또 마호메드 등 여러 종교가 모두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 칭하기도 했다.

이후 토론회는 학계에서의 화성신도시에 대한 발전에 대한 문제점 등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청취한 지역 시장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유봉학 한신대 교수는 정조가 건설한 화성 신도시에 대해 " '실학의 도시', '개혁의 시범도시' 였지만 주먹구구식 보존정책을 반복해 내부적으로 문화유산 훼손과 왜곡의 상처가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도 지역 대학들이 교양과목으로 정조학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불쌍한 백성들을 토호들의 횡포부터 막은 것이 다산의 목민정신"이라며 현대 정치인들이 다산의 목민정신을 배울 것을 주문했다.

시장들은 이들의 주장과 제안에 공감하면서 정조와 다산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지역구 오산시)은 "화성에 세계 유일, 최대의 효 테마 파크를 조성하려는 것은 정조와 다산의 정신을 복원시키자는 취지"라면서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에는 일곱 분의 국회의원과 세 분의 시장이 있는데 화성 복원과 효 테마 파크 조성을 산수화 정치인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화성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또한 수원에 있던 서울대 농과대와 농촌진흥청이 이전한 자리를 문화적 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전 부지를 수원시가 매입해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깨끗한 정치를 하려면 정조를 배워야 한다"면서 "지역주민들 실생활의 편익도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력을 어떻게 모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크콘서트는 2부 학술 토론으로 이어져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토크콘서트를 참관한 이명혜 씨는 "지역의 목소리를 시장들이 직접 청취해 인상깊었다"며 "사찰에서 지역 소통의 장을 마련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는 "몇 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해도 대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날 열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시민들과 함께 산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화성 용주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효문화 요소 갖고 있어. 지역발전에 종교계도 힘 보태야"

– 도올 김용옥 교수

"효행문화 세계에 펼치는데 용주사를 비롯한 수원 화성 지역이 적격"

–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스마트폰으로 사찰법회 참석해요”

서울의 한 사찰을 다니고 있는 김익현(45 · 가명)씨는 최근 바쁜 회사생활로 법회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김 씨는 법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법회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한다. 또 스마트폰에서 팟캐스트(podcast)를 통해 유명 스님들의 법문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김 씨는 전보다 불교공부에 더욱 열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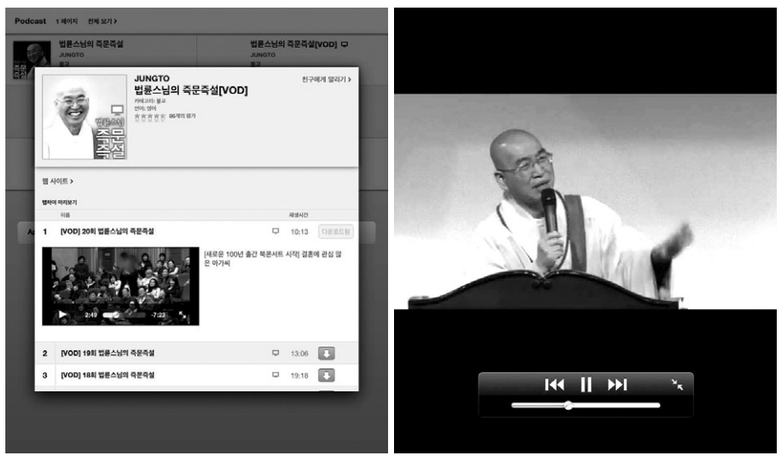
신행활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스마트폰 서비스다. 절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법회현장을 확인하고 스님의 법문을 듣는다. 바쁜 회사생활로 인해 주말 법회 등 자신이 원하는 각종 법회 참석이 어려운 불자들이 늘어가는 상황과 스마트폰 등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기반의 발달이 가져온 변화다.

서울 삼보사는 스마트폰을 통한 포교활성화에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찰중 하나다. 최근 법회 참석이 어려운 불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법회 중계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주 지원 스님에 의해 추진된 서비스는 IP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회를 중계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삼보사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이 법회 현장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삼보사 외에도 스마트폰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찰들이 늘고 있다. 이런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폰 방송 서비스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법회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명 스님들의 법문도 다운받아 시청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 정각원은 2010년부터 토요법회를 팟캐스트를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팟캐스트는 아이튜즈에 접속해 원하는 방송이나 라디오 등을 다운받아 어디서든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법회현황 시청
전국 사찰에서 방송 서비스 확대 조짐
이용자 늘수록 포교확대 기대



팟캐스트 종교분야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영상

정각원장 법타 스님은 당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부응하고자 불자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 방송을 고안해냈다”고 밝혔다.

현재 팟캐스트 종교분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영상은 ‘힐링’이 사회에 대두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외국에서 유학중인 이재민(25) 씨는 “최근 법륜 스님이 한 방송에 출연한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팟캐스트에 스님의 법문영상을 보고 현재 열심히 시청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떨어져 힘든 유학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스님의 법문이 많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삼보사 윤선웅 씨는 “현재 전국 사찰들이 수려한 경관과 스님들의 법문 등 사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모바일 TV’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아직까진 불자들 대부분이 고령이라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 앞으로 스마트폰 천만시대가 열린다고 하니, 모바일 기기를 통한 포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용화선원 역시 팟캐스트를 통해 초심자를 위한 법어 및, 생활 속의 참선법, 스님의 영상 법문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익한 법문들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의 홍법사 역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내놓고 홍법사에 관련된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으며, 사찰행사를 비롯해 경전, 법회영상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양산 통도사는 지난 해 연례행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화엄산림법회를 통도사 전용 앱을 통해 공개했다. 통도사 포교국장 묘경 스님은 “아직 활발히 이용되진 않지만, 부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미디어센터장 유흔우 철학과 교수는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는 온라인 법문은 불교계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욱 세분화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 · 제공된다면 포교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노인자살 예방하고, 여성일자리도 창출

지혜로운여성,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 강사파견 사업

일자리를 찾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소외된 노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된다.

지혜로운여성(이사장 김애주)은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강사양성교육 ‘내 생애 봄날’은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6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내 생에 봄날’은 지혜로운여성이 지난 2010년 서울시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실시한 노인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의 성과로, 20명의 강사가 육성돼 9개 기관에서 197명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65세 미만의 경력단절 여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생은 ▷표현예술심리치료 ▷집단상담 ▷노인의 심리적 특성과 노인자살원인 살피기 ▷대처방법 교육 ▷죽음의 이해 ▷생애곡선그리기 ▷그림 또는 사진으로 자서전 쓰기 ▷자비명상과 감사명상 배우기 ▷스치피 교육과 실전 워크숍 등의 교육을 받는다.

강의에는 정진희 웰다잉운동본부 본부장, 이정호 표현예술치료협회 부회장, 최호선 영남대 심리학과 외래교수, 쌍문동 노인복지센터 센터장 지현 스님, 김기호 아름다운삶 수련원 대표, 최서윤 웰다잉 전문강사, 정진희 동국대사회교육원 교수, 이현정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센터장, 김애주 지혜로운여성 이사장이 강사로 나선다.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은 10~11월에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서울시내 공공시설, 복지관, 사찰, 지자체 등에 강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원하는 유관기관에는 지혜로운여성이 강사비를 부담해 강사를 파견한다.

‘내 생애 봄날’ 교육 프로그램은 선착순 40명에 한해 교육생을 모집 중이며, 노인자살예방 교육과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한 노인복지유관기관과 사찰에서는 강사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은 9월 21일까지이다. (02)722-2102

이은정 기자

스토리텔링 통해 나를 치유하다

9월 20일 명법 스님의 ‘은유와 마음’ 템플스쿨 개설

국내 최초로 은유를 통한 스토리텔링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조계종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서울 종로 불교영어도서관에서 9월 20일부터 총 6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까지 ‘명법스님의 ‘은유와 마음 I’ 템플스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그동안 진행되던 심리치료와 달리 쉽고 재미있게 자신의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색다른 자기치유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 소극적인 한국인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치료가 될 전망이다.

참가자들은 우선 ‘은유로 말하기’를 통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문제를 분리해 내고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이어 ‘스토리 다시 쓰기’에서 무의미하게 살고 있던 이전의 나를 잊고, 긍정적인 새 삶을 찾기 위한 스토리 쓰기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긍정의 자신감 회복과 치유’를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사랑해, 긍정의 힘을 갖게 된다.

강의는 ▷은유, 삶을 형성하는 힘 ▷나를 스토리텔링하다 1, 2 ▷다시 쓰기를 통한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 1, 2 ▷그룹 스토리텔링으로 진행된다. 참가비 12만원. (02)730-0173

이은정 기자

조계종 국제선센터 신도회 출범

초대 신도회장 전성연 · 감사 양진수, 김순천 임명


국제선센터는 9월 1일 신도회 창립법회를 열고 전성연 신도회장 및 감사진들을 임명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가 9월 1일 신도회 창립법회를 열고 신도회 출범을 알렸다.

주지 법정 스님은 신도회장에 전성연(금강지, 66) 대한법률복지원 이사를, 감사에 양진수(도원, 59) 대한전기안전관리 엔지니어와 김순천(지월, 50) 씨를 각각 임명했다.

올해로 창건 두 돌을 맞는 조계종 국제선센터(주지 법정)가 신도회를 창립했다. 국제선센터는 9월 1일 봉행된 우란분절 법회에서 신도회 창립식을 함께 개최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주지 법정 스님은 신도회장에 전성연(금강지, 66) 대한법률복지원 이사를, 감사에 양진수(도원, 59) 대한전기안전관리 엔지니어와 김순천(지월, 50) 씨를 각각 임명했다.

신도회 구성을 위해 국제선센터는 신도대표 14명과 교역직 종무원 2명, 총 16명을 준비위원으로 위촉해 2달 동안 8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다. 신도회장과 감사도 사중 공지를 통해 별도로 선출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전성연 초대 신도회장은 소감문을 통해 “신도회는 여러 사람이 동반자로 서로 협력하여 이끌어 나가야 하는 곳”이라며 “중도의 입장에서 스님들과 신도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행동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매일 다지고 있다. 신도회 임원들이 신도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사랑의 충고와 지혜의 조언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진수, 김순천 초대 감사도 “깨끗하고 투명한 신도회를 만들겠다”며 “열심히 봉사해 화목한 신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회장과 감사를 임명으로 출범을 알린 국제선센터 신도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부회장, 각 부장 등 실무진 구성과 회칙 등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파라미타 제15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 실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가 제15회 전국 청소년 사경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에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시안을 다운받아 사경한 후, 원본을 제출하는 도안활용 방식과 〈반야심경〉 〈법구경〉 등을 사경하고 그에 맞는 창작 디자인 작품을 함께 제출하는 창작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상금 30만원, 특별상은 봉축위원장상과 상금 30만원, 최우수상은 동국대 총장상과 상금 15만원, 우수상은 조계종 포교원장상, 파라미타 총재상, 불교신문사 사장상 등 상금 10만원, 장려상은 파라미타 회장상과 상금 5만원, 특선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과 상금 3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접수는 10월 19일까지 파라미타로 접수하면 되며, 시상식은 11월 10~15일 각 학교에서 개발 시상될 예정이다. (02)723-6165~6

이은정 기자

포교원, 불자 선수단 선전 축하연

9월 17일 ‘2012 런던올림픽 및 패럴림픽 불자 선수단 환영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국제경기에서 선전한 불자 선수단의 공로를 치하하고자 ‘2012 런던올림픽 및 런던패럴림픽 불자 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한다.

환영식은 9월 1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런던올림픽 불자선수 및 임원 102명, 런던패럴림픽 불자선수 및 임원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환영식에는 총무원장 스님 치사, 불자선수 활약상 상영, 축하공연, 선수단 격려 및 기념품 전달이 진행되며, 2부에는 다과회가 열린다.

포교원은 “이번 2012 런던올림픽은 종합 5위로 최고의 성적을 올려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한국 선수들이 획득한 총 28개의 메달 중 13개를 불자 선수들이 수상해 불심을 선양하는데 큰 기여를 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파워드믹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 高音質 무선마이크
스님께서 사용중인 ‘무선-핀 마이크’를 高性能 ‘헤드셋 마이크’로 개조 해 드립니다. (삐- 소리없이 웅장하고 맑은 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 무선 마이크
◆고성능 헤드셋 (귀걸이)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20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법률문제 상담…교계 복지관 찾으세요

불교계 복지관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호응

 # 사례1 박모(77) 할아버지는 20년 전 지인에게 2000만원을 빌려줬다. 당시 차용증을 쓰지 않고 빌려줬던 터라 지인은 매달 주던 이자도 언젠가부터 김 할아버지에게 주지 않는 등 변제(辨濟)할 생각을 않았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김 할아버지는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했고 소액재판의 정보를 얻은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채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모두 되돌려 받았다.

 # 사례2 딸이 5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해 슬픔에 빠져 있던 김모(74) 할아버지. "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낯선 이의 협박 전화에 줄곧 시달려 왔다. 김 할아버지는 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 무료 법률상담을 요청해 변호사로부터 "딸의 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김 할아버지가 딸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계속 독촉 전화가 오면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

불교계 노인복지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변호사가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찾아가 1:1 대면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 345명이 복지관별로 월 1회 방문 상담하고 있다.

각분야 전문 변호사 직접 방문
채권·채무·상속문제 등 다양
기초수급권자는 소송비용지원

주요 상담 내용은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부터 상속,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면 복지관에 문의해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고,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 방문하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주제는 사소한 채권·채무 문제부터 상속, 임금 체불 등 다양하다. 상담을 원하면 복지관에 문의해 미리 상담 일정을 정하고, 예약일에 복지관 상담실을 방문해 변호사와 대면 상담할 수 있다. 사진은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2006년부터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부설기관인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센터장 청원)로 장소를 옮겨 어르신들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등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직접 찾아와 한달에 20~30건 정도의 예약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밖에 불교계 복지관은 2008년 발효된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따라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초수급권자들을 위한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등에 해당되는 자는 누구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 제공하는 불교계 복지관

은평노인종합복지관,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성북노인종합복지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등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전문상담센터에서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금요일,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은 매월 1회, 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 오후 4~5시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서울시어르신상담센터 심훈보 과장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복지관에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다 변호사가 민원인에게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해 개개인의 처지에 맞게 전문적인 조언을 해 주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우리복지관 주력사업 서울 송파복지센터 '몸짱프로젝트'

어르신들 위한 비만클리닉 운영



'몸짱교실' 참가 어르신들은 4개월간 주2회 산책로를 40분간 걷고 센터에서 유연성·근육강화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면서 평균 3㎏을 감량했다.

노년기로 접어든 어르신들은 사회적 역할 축소와 신체·생리적인 능력감퇴로 건강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운동을 통해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고 일상적인 자기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

서울 송파복지센터(센터장 손지영)는 2009년 개관이후 줄곧 헬스, 요가,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단전호흡과 각종 근력운동 및 유연성향상 체조 등 20여 개 강좌를 운영하는 '몸짱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400명 이상의 지역주민들이 북새통을 이루며 이용할 정도로 인기다.

'몸짱프로젝트 사업'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비만클리닉'. 송파복지센터가 2011년부터 체지방비율이 23%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여 명의 어르신들은 건강검진과 체지방 측정을 통해 현재 기초체력상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담당자와 상담을 한 뒤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2012년 상반기 참가 어르신들은 주2회마다 센터에 들러 오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마치고 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한 송파소리길과 야산 등산로를 약 40분간 걷는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때쯤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와 강사의 지도아래 유연성·근육강화운동 및 스트레칭을 한다.

4개월간 꾸준히 운동한 어르신들에게 어떤 변화가 왔을까.

"폐활량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니 친밀감이 높아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흙길을 걷다보니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도심 속에 있는 산이라 보통 때 보다 공기가 더 상쾌하고 좋아요."

"걷기를 싫어했는데 걷기운동을 즐겨하게 됐고 고혈압, 당뇨 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약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이게 됐어요."

평균 80%의 출석률을 보일 정도로 '비만클리닉'의 반응은 좋다.

4개월간 주2회 운동
평균 3kg 체중 감량
스트레스해소·사회성up

송파복지센터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양은혜 건강증진사업 담당은 "4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평균 3kg 체중감량과 체지방량 1kg, 체지방률 1.3kg이 감소되었고 폐활량도 138㎖ 증가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송파복지센터는 지속적으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비만클리닉'은 9월 중순에 2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송파지역에 거주하는 체지방비율이 23%이상인 어르신들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02)409-1616

이나은 기자

두 살 된 환희를 살려주세요

생명나눔, 9월의 환우 선정



권환희(2년2개월·크라베병)

2년 전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장을 하던 신혼부부에게 예쁜 아들 '환희'가 태어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환희가 기운이 없고 잘 먹지도 못하게 됐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환희가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라베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상적으로 태어났지만 성장하면서 뇌가 파괴돼 신경이 퇴행하는 희귀질환이다. 모든 신경계에 퇴행을 가져와 팔다리 근육의 힘이 없어지고 지능 및 신체 발달이 떨어지는 증세를 보인다.

환희는 치료를 위해 2011년 7월 제대혈 이식을 받았지만 워낙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 호전되는 상황은 아니다.

환희가 병원에 있는 사이 부부는 너무 지쳤고 사이가 멀어져 이제 아버지만 남았다. 아버지는 사과농장을 그만두고 환희가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병원에서 함께 생활할 예정이다.

아버지도 당뇨병이 있어 몸을 잘 관리해야 하지만 환희가 건강하게 자라만 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 이러다 같이 몸 상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할머니도 무릎 연골이 파괴돼 제대로 걷기가 힘들 지경이다.

아버지는 사과농사를 그만두게 되자 당장 수입이 없게 됐다. 매월 환희의 치료비로 250만원이 드는데 5년간 6000만원의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불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02)734-8050

저소득 가정 아이에게 책가방 선물하세요

아름다운동행, 9월 16일 조계사서 나눔 바자회 개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9월 16일 오전 10시 조계사 뒷마당에서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 보내기' 기금 마련을 위한 '나눔 바자회'를 연다.

'나눔바자회'에는 세왕섬유, 잠뱅이, 락앤락, 주니어김영사, 동대문의류상가, 코바식품, 한국여성발명협회, 한국맛에서 물품후원에 동참했으며, 아동 도서, 주방용품, 생활용품, 쌀국수, 떡국 등이 판매된다.

'나눔바자회'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내년 상반기에 전국의 아동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세트로 구성된 입학선물로 전달 될 예정이다. (02)737-9595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영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체육대회

영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도륜)은 9월 14일 오전 10시 개관11주년 맞이 '영주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영주시국민체육센터에서 마련한다.

영주지적장애인협회, 영주시각장애인협회 등 영주시 6개 장애인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체육대회는 3부로 구성돼 진행된다.

1부에서는 기념식 및 축하공연을, 2부에는 장애체험경기와 공굴리기, 바톤릴레이, 고리던지기 등 단체경기를, 3부는 폐회식 및 우수참여단체 시상을 진행한다. (054)633-6415

일산노인복지관 전국어르신백일장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학석)은 10월 10일 오전 10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및 호수공원 일대에서 '전국 어르신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시(운문)와 수필(산문)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글쓰기 실력을 겨루게 된다. 행사는 거리상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 등을 위해 백일장대회와 더불어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문학작품 공모를 함께 실시한다. 글의 주제는 사전공모의 경우 자유 주제이며, 백일장대회는 행사 당일 공지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사전 신청자 접수를 해야하며 접수 기간은 9월 28일까지다. 참가신청서 1부(사전공모의 경우 원고 1부 추가)를 복지관 홈페이지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031)919-8677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재가 아닌 내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방법을 전수합니다. **환자**와 **가족분들**이 **확인**이 **가능**

1. 영가는 있는데 확인을 해 줄수 없는 스님, 법사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확인)**
3. 최면과 차원이 다른 기도를 통한 영적인 가르침.
4. 일반병. 정신병과 영가 장애 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난치병 뒤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영가를 몸으로 행동으로 표출한다.
6. 영가에게 말을 가르치는 방법과 빛을 보고 천도되게 하는 방법.
7. 스님의 고질병, 영가장애확인, 신도들의 영가확인.
8. 파동교감법, 영혼심령술, 자율신경계통제법, 오장육부파동교감법을 통한 확인 본인이 직접 천도확인 가능.
9. 암, 당뇨, 고혈압, 중풍, 치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불면증, 환청, 환시, 무속병, 대물림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일반 불자님이나 스님의 난치병 상담) 사찰내 건강프로그램 운영하실분, 대체의학센타 운영에 관심있는 스님과 신도분, 우뇌교감 난치병치유방법 전수
10. **영가의 수준확인 저급영가 – 한과집착질병호소 중급영가–진리을 찾아 방황과혼돈 고급빙의–깨달음에 대한 갈망과열정**

◆ 10주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퇴마공부 하시는분 약간명 모집 ◆

- 기도명상, 만다라진언수련, 영언수련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이 온 목적과 이유 삶의 가치를 확립. 영혼이 윤회의 확실한 기억을 알게함.
-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스님과 조정후에 결정 개별지도 및 단체지도, 사찰 출장강의 지도합니다.
- 형편이 어려운 일반불자분은 재능봉사 기부를 통한 치유합니다.

※ 포교원 스님 영가확인 **천도 특별지도**해 드립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 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칩니다. – 원 장 여산법사 합장

인체전氣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신입·경력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같이 할 신입 및 경력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 아 래 –

모집분야	응시자격	공채인원
행정·법무 공영	관련분야 3년 이상 종사자	○명
신입사원	행정·법무직 종사 희망자	○명

※각 분야 공히 불자로서 군필자 및 면제자

○ **응시기한** : 2012년 9월 25일 오후 6시까지
○ **구비서류** : 1. 이력서(사진부착)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자기 소개서 1부
○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재단법인 선학원 사무처
이메일접수 – jaedan@hanmail.net

불기 2556(2012)년 9월 5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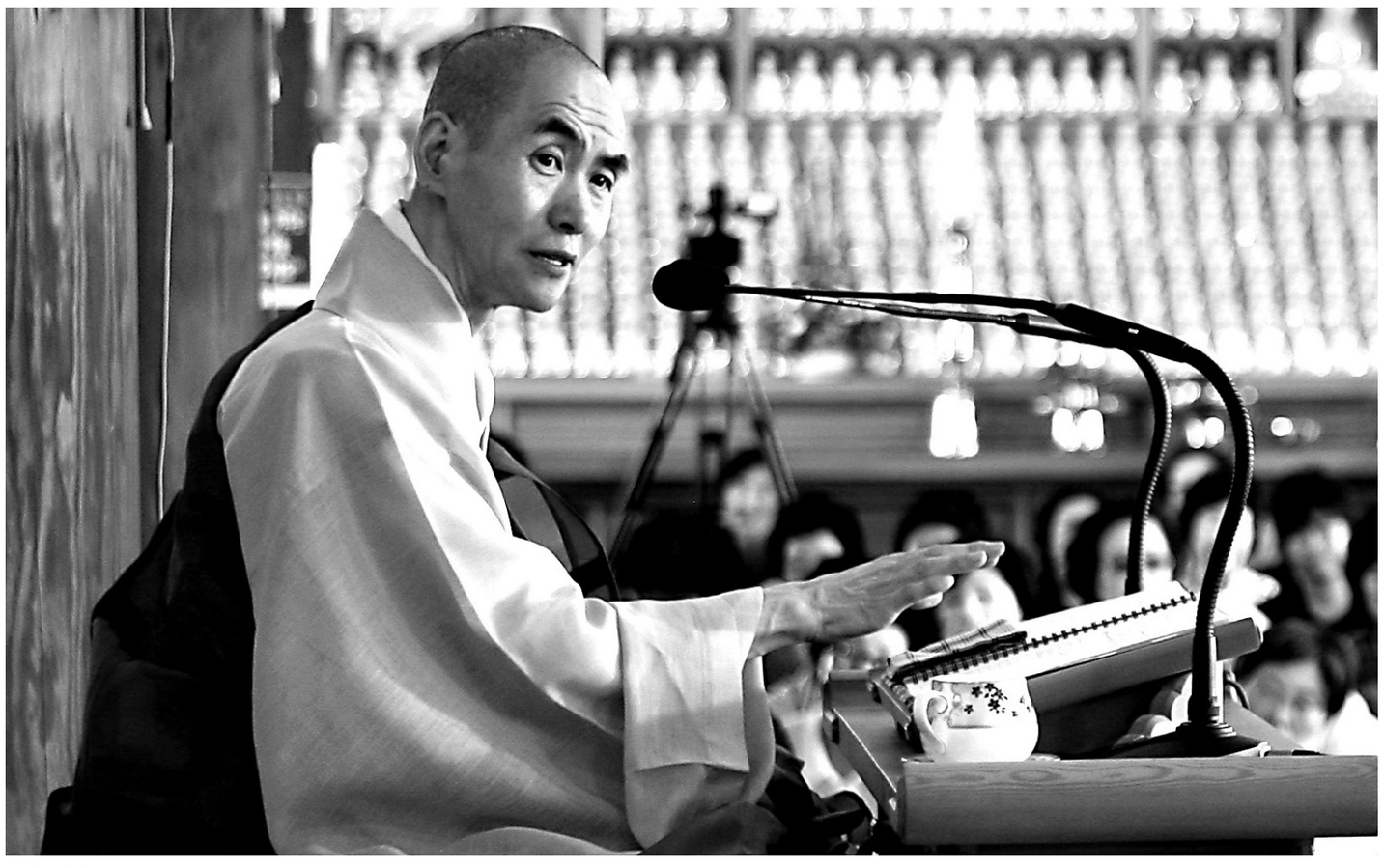
봉은사 선교율 대법회

도일 스님 (송광사 율원장)

계율은 밤길의 등불…행복 지름길

요즘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성폭력 기사는 혼탁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인면수심의 현장을 전해 들으며 법 이전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란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불교의 역할을 돌아보게 된다. 탐욕을 버리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불교 정신이 혼탁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9월 2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열린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의 선교율대법회 '계율에서 배우는 인생의 행복' 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계율을 지키며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일러준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은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얻은 것과 같다' 고 말한 도일 스님. 이번 법문에서 스님은 '불투도' 를 주제로 양심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도일 스님은 … 1973년 양산 미타암에 입산, 1975년 통도사에서 득도했다. 태국 왕립 마하출라롱콘 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현 조계총림 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이다.

하늘도 높고 바람도 청량하고 가을의 기운이 만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을의 청량함과는 달리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리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괴롭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계율 정신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밤길을 갈 때 등불을 든 것과 같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계율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복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출가 스님들조차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재물 권력 이런 거 다 버리고 출가한 젊은 스님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있게 '예'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하물며 스님들도 이런데 속세에 사는 불자님들은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까요? 종교 문화 이런 거 정말 염증이 나도록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몇 만개 되는 교회와 몇 천 개 사찰이 있고 곳곳에 온갖 문화 행사가 도처에 다 열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증을 느끼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게 자기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생각해 보면 같은 조건이 두 개 놓여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 인생을 10으로 봤을 때 9%가 불행이고 1%가 행복인데 우리는 불행 쪽으로 자신을 몰아넣고서는 자신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죠.

하지만 실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잡아당기게 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 한 조각 콩나물 반찬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먹는 순간 "콩나물 김치로 밥을 먹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행복인데, 반대로 진수성찬도 "왜 이리 맛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적어서, 자식이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탓을 합니다. 이런 외부 조건에 불행을 전가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 자기 자신이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불투도(不偸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불투도는 '도둑질 하지 말자' 는 말이죠. 하지만 단순하게 남의 물건 훔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심을 속이고 사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가 아는 불자님 한 분이 곰탕집 개업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미료 없이 음식을 내놓았더니 맛이 없어 못 먹겠다며 손님이 타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수거해 가서 조미료를 한 숟가락 탁 털어 넣고 다시 내놓았더니 "그래 바로 이 맛이야"라고 손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인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진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추겠다고 음식에 조미료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돈 벌어보겠다고 조미료 듬뿍 넣는다면 이런 게 다 도둑질입니다.

요즘, 빵집 치킨집 커피점 이런 게 너무 많죠. 대기업이 이런 사업 뛰어든다고 말도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대기업만의 문제일까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 가보면 대기업은 흉내도 못 낼 맛있는 메뉴에 멋지게 인테리어를 한 가게들이 많습니다. 일본만 해도 대학교수 하다가 아버지 국수집 물려받습니다. 그만큼 장인정신을 가지고 장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프렌차이즈 너무 좋아해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다 똑같은 가게만 있잖아요. 문제는 대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렇게 노력도 안하고 연구도 안하고 쉽게 장사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개발이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가는 말에 편승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단히 정진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도 도둑질 안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대기업도 자신들이 해야 할 일과 일반인들이 해야 할 일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대기업의 도덕성이겠죠.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행을 선택"

자기개발 · 정진 · 연구는 도둑질 안하는 방법 (불투도)

글로벌 인재 키우려면 불교의 계정혜 가르쳐야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용, 고객에 대한 배려, 자부심 이런 것들이에요. 물가가 오른다고 재료의 질을 낮추면 안돼요. 늘 똑같이 그 맛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신용이죠.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되죠. 단골이라고 또 새로운 손님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돼요. 또한 자신이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 매진하고 정진하며 자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게의 질적 수준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서야 장사하는 사람의 도덕률도 서게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장인정신입니다. 물론 이런 장인정신은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개개인 모두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주부가 콩나물 무칠 때도 장인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랜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부처님께서 '도덕률' 을 내놓으실 때는 깊은 부분까지 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럼 계율은 승가에서는 어떻게 적용 될까요? 가령 사찰에서 기와불사를 한다고 시주를 받으면 스님들은 그 돈을 기왓장 사는데만 써야 합니다. 돈이 남는다고 문짝도 고치고 다른 불사에 쓰면 죄가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계율을 어기면 호용죄(互用罪)에 해당이 돼요.

대만 사찰은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줏돈도 항목별로 나누어 받고 있어요. 대중 스님, 주지 스님 이렇게 팻말을 나누어 부쳐 놓으면 신도들이 보시금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 신도들은 많은 돈을 한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보시를 하게 돼요. 우리랑 보시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많은 신도님들이 보시 공덕을 짓고 싶지만 액수를 크게 내야 될까봐 걱정을 하죠. 가난한 사람이 천원만 보시해도 열 명 모이면 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일년에 두 번이라도 보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어요? 보시라는 게 큰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율에서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계율은 유교 덕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불교 공부 잘하면 세계의 모든 학문 그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보다 더 뛰어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불법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면 불교를 가르쳐야 합니다. 계정혜(戒定慧)을 모르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율을 공부하면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계학을 먼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회도 정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불법을 알고 실천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도일 스님은 9월 2일 봉은사 선교율 대법회에서 '불투도' 를 주제로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계율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 법문했다. 참석자들이 스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화제의 신간 작대기風水

풍수지리는 自然現象이다.



자연의 理致를 공부하는 한 分野인 것이다.
태어나서 살다 죽는 모든 과정들이 因緣과 條件과 理由가 있는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땅과 나의 인연은 시작되는 것이고 태어나서 땅을 밟고 살다 죽는 순간까지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죽어서 땅에 묻히면서도 땅과의 인연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나의 八字를 어떤 이유에 의해 땅으로부터 받은 결과이며 잘 사는 것도 땅의 힘으로 부터 받은 선물일 뿐이다.
풍수의 낭만(浪漫)은 온화한 들판의 조화로움에 있다. 들판이 어디 그냥 들판이겠는가? 그 속의 그림을 감상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재미를 느끼며 자연을 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세상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공평한 것이므로 남을 부러워 할 필요도 자기 자신을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 이현당 지음 / 신국판 / 364쪽 / 정가 20,000원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四柱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송월스님의 제2탄 드디어 출간!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김백만 편저 / 신국판 / 양장본 / 정가 50,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新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장본/송월스님 지음/50,000원
한국인의 별점 자미두수 비법 4×6배판/高山 엄창용 지음/양장본/45,000원
子平眞詮精解 우명 서상덕 역 · 저/신국판/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불성 여래장도 고정적 실체가 없다”

도르지 왕축 교수, 제6회 인도 티벳 사상 초청강연회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는 9월 3일 금강대 본관에서 제6회 ‘인도 티벳 불교의 불성과 여래장 사상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함부르크대 티벳불교 전공자 도르지 왕축(Dorji Wangchuk) 교수를 초청해 불성과 여래장 사상에 대해 강연했다.

불성?여래장 사상은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은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닝마 (rNying ma) 전승 속에 나타난 여래장’을 주제로 발표한 도르지 왕축 교수는 “불성 · 여래장사상은 인도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사상계와 티벳불교 지성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특히 불성 · 여래장사상이 불교적인 가르침이냐, 비불교적인 가르침이냐로 티벳불교 내의 다양한 학파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빚었다”고 소개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이런 철학적 논쟁이 기인한 이유는 불교에서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무아(無我)와 공성(空性)의 가르침을 주요한 철학적 내용으로 전제하기 때문”이라며 “불성?여래장사상이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여래장과 그 안에 담긴 불성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나 없음’의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이어 인도-티벳학계의 미해결 주제인 티벳불교의 닝마파와 딴뜨릭 전통 속에 나타나는 여래장의 철학적 함의와 그 배경을 소개했다.

도르지 왕축 교수는 티벳 고전 주석서에 입각해 “인도 대승불교는 중관과 유식, 여래장이라는 세가지 거대한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며 티벳인들의 세전통에 대한 통합주의적 해석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에는 오르나 알모기(Orna Almogi) 박사가 ‘딴뜨릭 전승 속에 나타난 여래장’을 발표했으며 4일에는 박창환 금강대 교수가 ‘〈보성론〉에서의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개념에 대한 소고’를 발표했다.

〈보성론〉은 인도에서 불성 및 여래장 사상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논서로 박 교수는 이전 아비달마교학에 나타난 자성청정심의 관계를 대비해서 고찰했다.

또 박보람 前금강대 HK연구교수는 ‘여래장사상의 소의경전인 〈화엄경〉 티벳역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기존의 연구중심이었던 한역 〈화엄경〉이 아닌 〈화엄경〉 티벳역에 나타나는 여래장 사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5일에는 김성철 금강대 HK교수가 ‘진제의 〈불성론〉에 나타난 불성 개념’을 발표했으며 6일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내 불성?여래장 팀이 그동안 진행해 온 강독 성과물인 진제의 〈불성론〉과 옥 로댄쎄랍의 〈보성론요의〉을 강독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금강대 인문한국 연구센터가 진행한 초청강연회서 경청하는 학생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해군은 임란 이후 불교 중흥의 군주”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 봉인사 제4회 기념 세미나서



조선역사에 있어 광해군(光海君)은 연산군과 함께 군으로 불린 격하된 왕이다. 용렬한 왕이라는 ‘혼군’(昏君) 또는 계모와 동생을 죽인 ‘패륜아’(悖倫兒)로 불렸지만 광해군은 명의 쇠락과 후금의 등장 및 일본의 재편과 같은 국제정세 속에 재위 15년 동안 전후 문화 복구사업을 펼친 군주였다. 이런 광해군의 불교 인식과 그 당시 불교 중흥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 눈길을 끈다.

고영섭 한국불교사연구소 소장(동국대 교수)은 최근 남양주 봉인사에서 열린 제4회 광해군 추선 기념 학술세미나 겸 한국불교사연구소 제2차 세미나에서 광해군 시대의 불교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광해군 시대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섭 소장은 “광해군은 제1차 분조(分朝)시기와 제2차 무군사(撫軍司) 활동을 통해 수많은 승려들의 애국심을 보며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고 소개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 조정과의 분조 시기를 통해 승병에 나선 승려들을 보며 불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했다. 그러한 인식은 왕위에 오린 뒤 경직된 유교 일변도의 정책이 아닌 불교에 유연한 정책으로 발현 된다.

당시 불교계는 전란에 다수 승병이 참여하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사찰의 소진 등으로 사원 재정기반은 위축돼있었다. 더욱이 승군 활동 자체로 인해 수행에 전념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됐으며 일부 승려는 전공을 세운 후 환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와중에 광해군은 불교 선풍을 진작시키는 교유 활동을 이어간다.

고영섭 소장은 “광해군은 부휴 선수(浮休善修)와 같은 선승과 그 제자인 벽암 각성(碧巖覺性)과 고한 희언(孤閑熙彦)과 같은 선사들과 지속적인 교유를 나누며 불교 중흥에 일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소장은 “국가의 지원이 끊킨 조선 시대 자신의 지원으로 원찰인 봉인사를 건립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명기 명지대 교수의 ‘광해군의 대내외 정책’,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임란 승병들의 유격전’, 양진건 제주대 교수의 ‘광해군의 유배생활’ 등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가사보존위 창립기념 학술대회

10월 14일, 금란가사 등 조명

천태종 원각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10월 14일 서울 관문사 2층 대강당에서 천태종 가사보존위원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가사의 변천과 전승’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온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금란가사 복원과 그 제작의 정통성 및 독자성을 연구한 논문이 발표된다.

또 천태종 25조 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사에 내포된 의미와 역사성의 학술적 토대가 공개된다.

학술대회에서는 이봉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가사의 인도적 원형과 중국적 변용’, 김경숙 조계종 의제실무연구회 연구원의 ‘한국 가사의 특징’, 강선정 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조선시대 가사의 유형과 변천’, 천태종 사회국장 보광 스님의 ‘대각국사 금란가사의 특징과 전승’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태종에서는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관문사 3층박물관에서 가사전시회를 개최한다. 천태종은 “한국 가사의 전통을 살피고 불교복식원형을 되살리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중관사상 학술대회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은 10월 20일 ‘중관사상의 원류와 변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첫 행사는 ‘용수의 상호의존적 연기설에 대한 월칭의 해석’을 주제로 남수영 동국대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며, 이태승 교수(위덕대)가 ‘후기 중관사상의 이제설 전개’라를 발표한다.

신상환 교수(인도 비스바 바라티대학 인도티베트연구소)의 ‘티베트불교의 오해와 이해’, 김성철 교수의 ‘인도 중관의 중국적 변용’, 사이토 교수의 ‘중관사상사의 재조명’에 대해 등이 각각 발표된다.

또 윤종갑 동아대 교수, 박인성 동국대 교수, 양승규 동국대 교수(불교문화연구원), 김영진 동국대 김영진 교수(불교문화연구원), 이종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이 각각 논평을 담당했다.

노덕현 기자

태풍 피해 문화재 73곳 중 불교 6곳

문화재청, 문화보고기금 지원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8월 31일 “8월 28일까지 태풍으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재 73개소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문화재 유형별로는 국보가 1건, 보물 6건, 사적 31, 천연기념물 20건, 명승 1건, 중요민속문화재 9건, 등록문화재 5건이다.

불교문화재의 경우에는 화엄사 각황전의 기와, 용마루 등 파손을 비롯해 구례 천은사 종각 기와 파손, 여수 흥국사 대웅전 용마루 기와 탈락, 익산 석불사 기와 파손 등 사찰 전각의 경우 대부분 기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익산 제석사지 소나무 등도 피해를 입었다.

문화재로는 총6곳이다. 문화재청은 직접 관리하는 궁 · 능의 수목 피해는 자체 기동보수단을 투입해 정비 중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피해 가운데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보수, 정비하도록 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천막설치, 토사제거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 범위가 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문화재보호기금에서 긴급보수비를 지원해 복구할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한국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17집 발간

한국정토학회(회장 성운)는 최근 ‘정토학연구’ 제17집을 발간했다.

‘관음사상과 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한 이번 논문집에는 다섯편의 논문이 소개됐다. △관세음보살 사상에 관한 연구(보광 스님) △관음성지 양양 낙산사 복원불사에 관한 고찰(현고 스님) △낙산사 관음신앙의 설화적 표출(장정룡) △한국의 천수관음 신앙과 천수관음도(김정희) △나 · 당 동해 관음도량, 낙산과 보타산(조영록) 등 논문이 실렸다.

또 기고논문으로 △정토교학에서의 열반과 체득(정광균) △의식시 좌립에 대한 고찰(심상현) △문화콘텐츠로 본 진관사 태극기 기념사업(이재수) △길장의 3종불성설의 체계(최은영) △자은대사기의 불신론(임향내) 등이 소개됐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국외문화재 사진 및 탐방기 공모

문화재청(청장 김찬)이 국외소재 한국 관련 문화재에 대한 대내외 관심과 애호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1회 국외문화재 사진 및 탐방기 공모전’을 연다.

공모분야는 국외소재 한국 관련 문화재(외국 국 · 공립 및 사립 박물관 · 미술관, 기타 민간 소장 유물 및 역사 유적지 등)에 관한 사진과 탐방기 분야 2가지다.

사진 분야는 초중등부와 일반부로, 탐방기는 초등부 · 중등부 · 일반부로 각각 구분한다.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응모 가능하다.

수상작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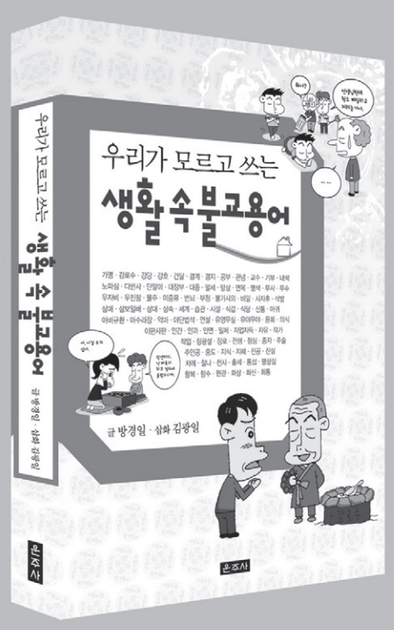
사진은 1인당 5매까지 제출 가능하며 제출자 본인의 창작물이어야 한다. 탐방기는 분량 A4 3~5매 이내로 탐방기 내용의 70% 이상이 본인 창작물이어야 하며, 타 자료 인용 시에는 반드시 자료 출처를 명기해야한다.

수상 내역은 대상에 각 1편, 최우수상에 사진 2편 및 탐방기 3편, 우수상에 사진 2편 및 탐방기 3편, 장려상에 사진 10편 및 탐방기 9편이다. 총 31편을 선정해 시상하며 상금은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10만원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는 외국 박물관 · 미술관 등에 약 15만여 점에 달하는 한국 관련 유물이 소장돼 있으며,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 있는 유적지도 70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외문화재 사진 및 탐방기 공모전'을 통해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유산을 조상의 얼이 서린 민족문화유산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글/김광일 삽화/국판변형/256쪽/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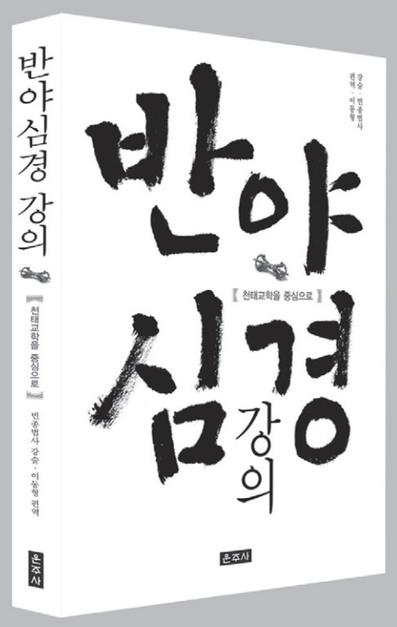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어휘 중에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들을 가려뽑아 그 용례와 현대적 쓰임새, 불교적 의미와 기원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천태교학에서 바라본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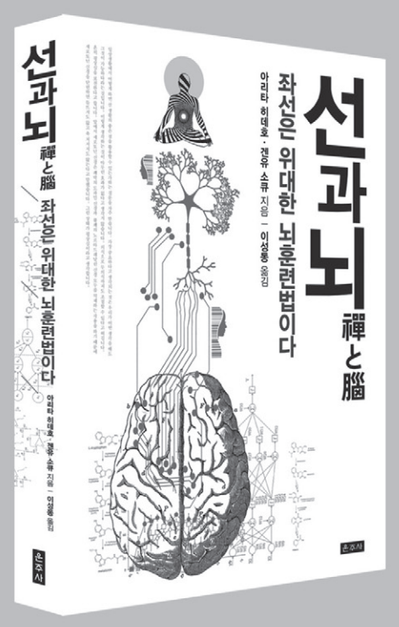
고도의 불교교학이자 실천체계를 겸한 천태교관에 입각하여 『반야심경』을 진공실상과 지관수행이라는 이론과 실천의 두 줄기로 정리한 명저!

반야심경 강의



빈종법사 강술/이동형 편저/신국판/354쪽/15,000원

선과 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큐 저/이성동 옮김/국판/252쪽/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가을바람 부니 山寺 축제도 흥겹다

고창 선운사 9월 22~23일 선운문화제 개최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가 9월 22~23일 제 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KBS 찾아가는 음악회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선운사의 가을'이라는 부제가 붙은 선운문화제는 보은염 이운행사와 산사음악회,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보은염 이운행사는 선운사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검단리 주민들의 전통을 현대에 되살렸다. '보은염(報恩鹽)'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다. 이는 1500년전 양민들에게 소금 굽는 법을 일러준 선운사 창건주 검단 스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해마다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는 봄과 가을이면 절에 소금을 시주했다. 이러한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 일제강점기 지금의 천일염으로 소금채취하는 방법이 보급되면서 명맥이 끊겼다가 최근들어 선운문화제에 그 모습을 재현 전통을 되살리고 있다.

9월 22일 오후 6시 30분 열리게 될 산사음악회는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응수, 소프라노 김주연, 하피스트 곽정 등이 함께 하는 클래식 위주의 음악으로 구성되며 가수 박완규가 출연한다.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청소년 음악놀이 경연대회는 23일 50개팀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일정이 고시되기 전부터 대회참가에 대한 문의가 이어져 지역 청소년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대회 역시 노래, 단체댄스, 연주, 밴드, 국악 등 각 분야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이 경연을 펼친다. 각 부문별 우승자들에게는 전북교육감상, 고창 교육장상, 선운사주지상, 동국대 총장상, 고창군수상이 마련되어 있다. 경연대회 관람객들과 1천여 응원학생들

'KBS 찾아가는 음악회' 눈길
전통 잇는 보은염 이운행사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인기

에게 햄버거 세트는 물론 경품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주어진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 문화유산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문화제에서는 △서각전시회-9월 15일 ~ 10월 15일, 선운사 만세루 △제9회 꽃무릇 시화전-9월 22~29일, 선운사 만세루 △선운사 나눔장터-9월 22~23일, 선운사 일원 △보은염 이운식-9월 22일 오후 4시, 검단마을~선운사 대웅전 △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9월 23일 오후 2시 선운사 특설무대 △백파사상연구소 학술대회-10월 8일, 동국대 정각원 등의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북 고창 선운사가 9월 22~23일 제 5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청소년음악놀이경연대회 장면.

특히 동국대 정각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선운사 대강백 석전 박한영 스님의 시문학을 주제로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이종찬 교수가 '석전의 한시 세계', 김상일 교수가 '석전의 한문학 및 한문학사론', 고제석 교수가 '석전 문학의 근대문학사에서의 위상(경허, 만해, 용성 등 근대 고승에 비교하여)', 홍신선 교수가 '석전이 현대 시인 문장가에게 끼친 영향' 등을 발표한다. 또한 10월 8~ 23일까지 동국대 도서관 일원에서는 석전 박한영 스님의 유품 전시전도 함께 진행된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언제나 지역과 함께 해온 선운사에서 이번에도 지역주민과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화제도 즐기고 절정에 이른 꽃무릇도 감상하면서 몸과 마음을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S 찾아가는 음악회'는 지방의 관객들을 직접 찾아나서 소통하는 음악프로그램으로 선운사 산사음악회는 추후 편성돼 방송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웃 종교 공세에 적극 대처할 터"

총무원장상 수상 김진수 前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더 열심히 포교활동을 하라는 경책으로 알고 지역불교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前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사진〉이 9월 8~9일 전남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포교사단 팔재계 수계실천대법회에서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1년 365일 중 200일을 불교 관련 일을 할 정도로 익산 지역 불교 포교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야전사령관이다.

김 거사는 이리불교대학 부학장을 비롯 익산 관음사 일요법회, 군산 교도소 법회, 군법당,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등에서 다양한 소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1990년 군산교도소 교정교화위원으로 출발, 20년 동안 매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도소를 방문 교화활동에 매달리고 있다. 자동차 정비 교육 등 재소자들의 취업 훈련에 힘쓰고 있는 것은 물론 장애인 재소자들의 직업재활관에도 출강하고 있다.

일요일에 김 거사를 만나려면 군법당에 가야한다는 말이 생길정도로 7공수여단, 육군 부사관학교, 김제 해안대대의 군불자들을 위한 포교활동도 열심이다. 익산 인구의 40%가 개신교 신자이고 원불교의 적극적인 포교공세 속에 자칫 불교가 제3종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실정을 감안하면 김 거사의 활동은 독보적이다.

"이제는 단순한 불자를 넘어 불교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들과 함께 불자들이 포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웃종교의 적극적인 포교활동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익산 관음사가 있기까지 김 거사의 역할은 컸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지은 관음사 건물이 낡아 불자들이 불

군포교 · 교도소 교정교화 등
활발한 포교 활동 공로 '인정'

편해 하자 신축불사 집행위원장으로 화주역할을 자처 3층 건물 불사를 주도한 것이다.

2008년부터 4년간 포교사단 지역단장을 맡아 전북 지역 곳곳의 포교현장을 누비기도 한 김 거사는 이제 새로운 서원을 세웠다. 그는 "익산지역에 불교유치원, 어린이집, 불교장례예식장을 설립하고 불교문화강좌를 개설 익산 시민들에게 불교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는 것이 꿈"이라며 계획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죽림사 입구 폐기물 처리장 '안돼'

사찰과 주민들 반대 시위

1600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 입구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찰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주)전남산업(대표 이갑순)은 나주 죽림사 입구 인근에 위치한 전남 나주 남평읍 풍림리 일대에 863㎡면적의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를 계획하고, 월 50톤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죽림사(주지 법룡)와 나주 남평 주민 300여 명은 '의료 폐기물 수거 및 저장 창고' 설치가 사찰의 수행환경 훼손과 마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6일 반대집회에 나섰다.

죽림사 주지 법룡스님은 "민간사업자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사찰과 마을을 죽이는 것과 같다"며 "특히 매일 수 십대의 트럭이 의료폐기물을 싣고 사찰입구와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 사찰과 마을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6일 실시된 폐기물 처리 반대 시위 장면

(주)전남산업은 지난 2011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건축 허가청인 나주시에서 건축불허가 처리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건축불허가 취소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재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나주시는 항고를 하여 현재 법정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창고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면, 대도시 소비자들은 의료폐기물 처리장 인근에서 반입되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오후불식 쌀 모아 소외 이웃 도와

송광사 지역아동센터에 쌀 200포 전달

하계수련회 수련생들이 오후불식(점심 이후 단식)에 참여해 아껴둔 쌀 200포를 지역 아동센터에 기증해 눈길을 끈다.

전남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지난 9월 4일 순천시청 회의실에서 쌀 기증식을 갖고 순천지역 아동센터 43개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송광사 주지 무상스님, 심일섭 복지국장(순천시), 허홍량 회장(순천아동센터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수련회에 매회 100명씩 4차에 걸쳐 400여명이 1600끼의 단식을 통해 모은 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1500여 명의 아동에게 제공된다.

무상스님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수련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의 뜻이 쌀 한 톨 한 톨에 담겨있다"며 "지역 아동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송광사는 지역민들과 늘 함께 하는 사찰로 지역민들을 찾아가는 사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아동센터장들은 "센터 아이들이



송광사 지역 아동센터 쌀 기증 전달식

사찰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부덕 소장(깨복쟁이 지역아동센터)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후원을 해주었지만, 종교단체에서 받은 기부는 처음"이라며 "방과 후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저녁 식재료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에는 현재 43개소의 아동센터에 1,5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당지자체로 부터 인건비와 일정 관리비만 지원되어 운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계순례대회, 순례지로 '사찰' 추가

승암사 · 동고사 등 포함

오는 11월 전북 전주일원에서 열리는 세계순례대회가 특정 종교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대회 조직위가 불교관련 성지와 인물을 대폭추가할 예정이다.(본지903호 세계순례대회 특정종교행사로 변질우려)

대회조직위원회 불교측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운천스님(남원 선원사 주지)을 비롯한 조직위원과 집행위원들은 9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최초 문제를 제기한 본지 전북지사에 이와 관련한 자료제공과 관련조사를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지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한 사찰 사진과 인물에 대한 자료를 대회조직위 불교측 위원에게 전달해 순례대회 코스에 승암사, 동고사 등 사찰이 포함되도록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타국 생활 올바른 소비법 '중요'

소비자시민모임 다문화가정 교육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9월 1일 '다문화가정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 '소비자의 의미와 8대 권리', '소비자의 3대 책무'에 대한 소비자기본법이 설명됐다. 특히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 통신판매를 통해 피해를 많이 입는 이주여성들에게 올바른 청약철회 방법과 기술들이 설명돼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반비화(29, 베트남)씨는 "한국에 온지 8년차이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모르고 지냈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본인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108염주 만들기 순서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소외계층 '힐링' 무대 열려

범어사, 생명존중 콘서트 개최
10월 27일 벡스코에서


2012 생명존중콘서트 리허설 장면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10월 27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명존중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생명존중, 행복나눔 중국 장애인 예술단 초청 공연 '는 부산 범어사가 주최하고 부산시 불교 연합회, 부산 조계종 연합회, 불교여성개발원 등이 후원한다.

행사에서 펼쳐질 공연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재인 '천수천안관음무' 다. 천수천안관음무는 천수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를 기리며 인간의 고(苦)에 대한 성찰과 승화를 나타낸 것이다.

천수천안관음무는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SBS 스타킹을 통해 처음 소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소외계층을 돕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뜻 깊은 시간을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행사의 수익금 전액은 복지기관 및 저소득층 이웃들의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은 장승익 뭄웍스 대표는 "공연에서 선보이게 될 천수천안관음무는 유네스코 공식 지정 문화재로서 종교를 떠나 누구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공연이다"며 "이번 행사가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심신을 정화시키는 힐링타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천수천안관음무뿐만 아니라 중국 장애인 예술단이 펼치는 음악, 연극, 오페라 등 5개의 추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051)508-312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통일을 위해 법음을 울리다"

불교총지종 창종 40주년 맞아
10월 6일,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


지난 2011년 열린 제1회 통일음악예술제 모습. 이번 예술제에는 2000명의 관객이 통일음악을 감상할 예정이다.

'사회화합과 계층간 융화의 한마당' 을 주제로 불교음악을 통한 지역 주민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불교총지종(통리원장 지성 정사)은 창종 40주년을 맞아 10월 6일 부산 동해중학교에서 통일음악예술제를 개최한다.

제2회 통일음악예술제는 지역주민과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한 총지종의 두 번째 행사로 총지종 전국연합합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불교총지종 마니합창단, 금강합창단, 만다라합창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서 범 불교계가 동참할 예정이다.

기존 불교 행사가 산사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위주 행사였던데 비해 이번 행사는 도심 한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된다. 참가예정인원은 합창단 및 공연단 200명, 관객 2,000명이다.

한편,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후 모든 불공에 '나라의 안녕과 조국평화통일' 을 염원하는 공공서원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불공을 올리고 있다. (051)508-8933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큰스님 모신 백고좌대법회 개최

법왕사서 7일부터 100일간 열려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100명의 고승들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백고좌대법회(百高座大法會)' 를 9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0일간 매일 오전 11시 30분 법왕사 대법당에서 봉행한다.

이번 대법회는 조계종 원로의원인 도문 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겸 동국역경원장인 인환 스님 등 고승들이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의 세계에 대한 법문을 펼친다. 법회 99일째인 12월 14일에는 해인사 율주인 종진 스님이 수계법회를 집전한다.

이에 앞서 6일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에서는 70년대의 인기가수 김태곤을 초청한 산사음악회가 열려 참가대중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백고좌대법회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자는 취지에서 100일 동안 매일 한 분씩 100분의 큰스님을 모셔 설법케 하는 법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대에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 법사 등을 맞아들여 설법한 것이 처음이다.

그러다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조선시대 이후 중단됐다가 법왕사에서 지난 1994년 최초로 부활시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동체대비 상생문화 위해 인재 양성 나섰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동명대에 1억 2000만 원 기부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 해인정사 주지)는 9월 6일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에 학교발전기금 1억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최근 동명대 석좌교수에 위촉된 수진 스님은 또 석좌교수 급여 전액을 향후 1년간 동명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키로 했다.

이날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상생문화 고취 등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앞장서기 위해 동명대와 종·학 협정을 체결했다.

종학협정을 통해 두 기관은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종학협력 공동연구 ▷재가불자 대상의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역문화·예술활동 진흥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공동참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망자의 물건을 태우는 소대는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최근 쓰레기 소각로로 오용되고 있다. 충남 ㅈ사찰

'소대' 는 쓰레기 소각로가 아니다

사찰에는 오래전부터 소대(燒臺)라고 이름 붙여진 소각로가 있어왔다. 이곳에서는 재를 지낸 다음 위패나 망자가 소지했던 물건 혹은 옷가지 등을 태우게 된다. 우리나라 사찰의 경우 아름다운 굴뚝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 소대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지 전에는 대충 기와를 둘러놓기도 하고 아예 소각로를 만들지 않고 땅바닥에서 물건을 태우기도 하였다. 그나마 소대의 기능이 한정적이었고 절에서도 그러한 기능이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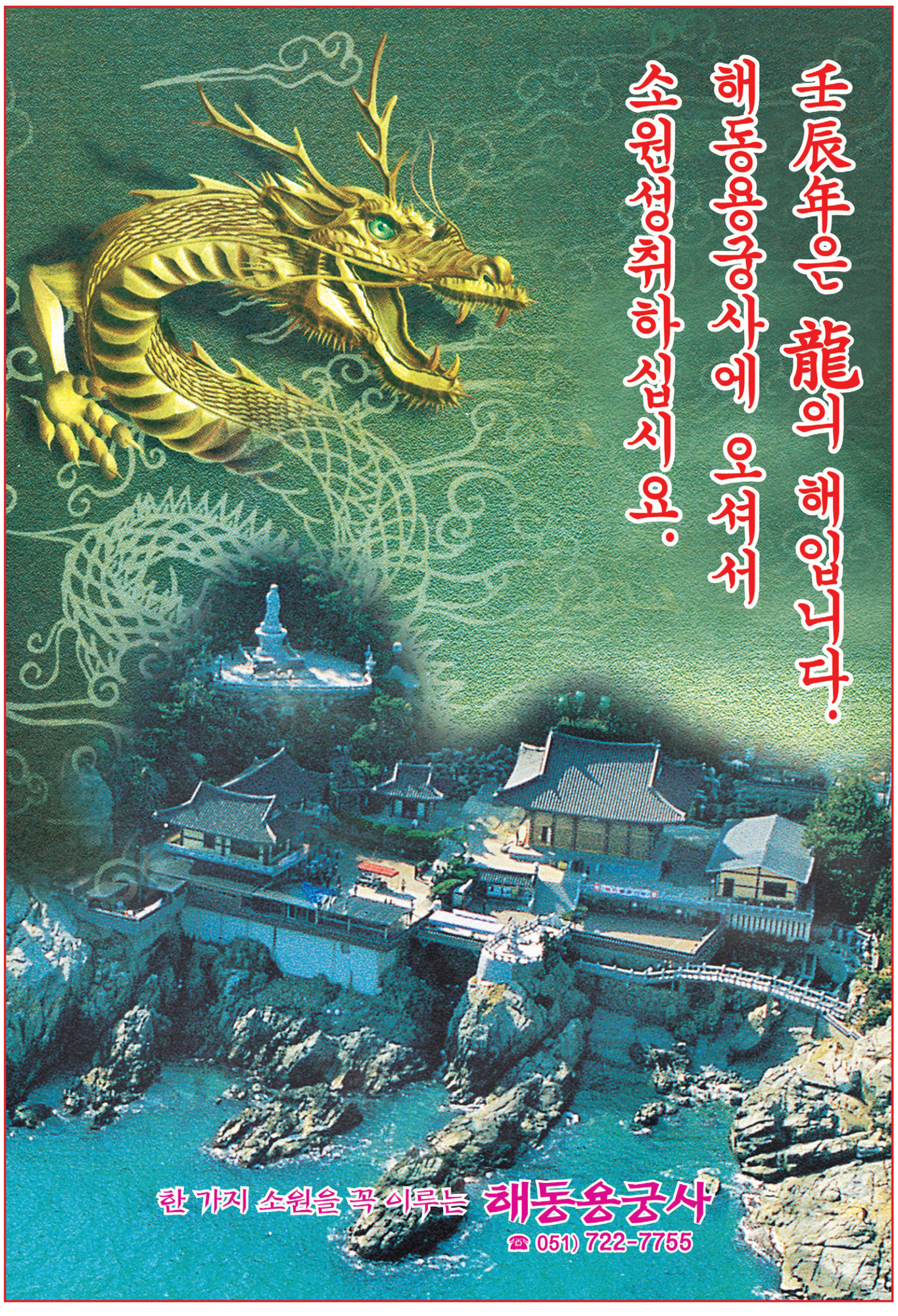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에는 소대의 기능이 쓰레기소각로로 변질되고 있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찰의 신도수가 늘어나고 버려지는 물건이 많은 탓인지 가면 갈수록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고 이것을 쉽게 반출하지 못하다 보니 소대에서 생활쓰레기까지 태우게 된 것이다.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이기도 하지만 법을 따지기 이전에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대기오염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냄새가 진동하여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환경을 지켜내야 할 사찰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사찰에 가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불교적 상징성을 담고 있는 소대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대 하나를 만들면서도 디자인에 신경을 쓰는 사찰은 소대를 쓰레기소각로로 오용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디자인을 알 정도의 안목을 가진 스님이라면 화재의 위험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괜히 생겼을 리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소대를 물건이나 태우는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만들거나 청정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사찰이 있다. 녹슨 드럼통에서 위패를 태우거나 망자가 애지중지 했던 물건들을 태우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생활쓰레기까지 태운다면 이것은 불자들이 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불교인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법하게 행동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생활을 한다. 소대 하나를 만들면서도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결코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⑩ 북한산 도봉옛길 그리고 광륜사, 능원사, 도봉사


도봉 옛길을 찾은 불자와 등산객들이 부처님 벽화가 그려진 도봉사 담장길을 걷고있다. 담장 안으로 들어가 30m쯤 오르면 작은 마당과 법당이 있는데 경내가 공원같다.

개미도 길을 걷고, 까치도 예불소리 듣는다

계절이 변하고 있다. 하늘은 하늘 위에 하늘을 쌓고, 바람은 어느새 옷깃을 파고든다. 들어선 숲길의 그늘 위에서 더운 발자국이 식고, 숲을 채우고 있는 푸른 잎들의 대형은 차가운 하늘에 흐르는 철새의 군무를 닮아가고 있다. 북한산 둘레길 18구간 '도봉옛길' 이다.

도봉1동 340번지 다락원에서 시작해서 도봉동 무수골까지 걷는 길이다. 다락원은 조선시대 여행하는 관원을 위한 원(院)이었는데 원집이 다락으로 되었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무수(無愁)골은 세종이 다녀가면서 붙인 이름으로, 물 좋고 풍광이 좋아 근심이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거리는 3.1km이며, 보통 걸음으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길은 힘들지 않다. 길에는 광륜사(光輪寺)와 능원사(能園寺), 도봉사(道峰寺)가 있다. 이들 절은 둘레길에 바로 문을 대고 있어 쉽게 들를 수 있다. 도봉옛길은 도봉산과 이어지는 구간으로 다락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 다락원에서 700m 지점인 광륜사부터 걷는 방법이 있다.

돌계단과 흙길을 지나면 구불구불한 오르막이 시작된다. 아직은 태양에 힘이 좀 있다. 걷기 시작하자마자 땀이 흐른다. 소나무 숲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능선들을 바라보면서 700m 정도 걸으면 내리막이 시작되고 자운봉으로 가는 등산로와 만난다. 등산로와 만날 때쯤 작은 절 돌담이 눈에 들어왔다. 돌담 앞에는 밤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여름 내 새들이 노래를 적던 나뭇가지엔 팽팽하게 부푼 밤알들이 걸려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길이 바뀌는 것이었다.

반 쯤 열린 문에 금강역사가 팔을 걷고 서있다. 광륜사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금강역사의 눈을 겨우 피해 절에 들었다. 10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다. 광륜사는 673년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 당시의 이름은 만장사(萬丈寺)였으며, 천축사, 영국사와 함께 도봉산의 대표적인 가람이 되었으나, 조선 중기에 들어 양주목사 남언경에 의해 영국사(현 도봉서원)가 폐사되었고, 만장사 또한 쇠락해오다 임진왜란 때 거의 대부분 소실됐다. 조선 후기에 조대비 신정(神貞)왕후(1808~1890)가 부친인 풍은 부원군 조만영이 죽자 풍양 조씨 선산과 인접하고 산수가 수려한 도봉산 입구에 새로 만장사라 절을 짓고 만년을 보냈는데, 지금의 광륜사다. 1970년에 대대적인 중창이 있었고, 2002년 당시 선지식으로 존경받던 곡성 성륜사 조실 무주당 청화 스님(1923~2003)이 광륜사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대웅전에는 불자 한 분이 청화 스님 진영 밑에서 독경을 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 위에 감은 눈을 올려놓고 한 자 한 자 읽어간다. 멀리서 보니 수월관음도가 따로 없다.

10년 전 그날, 청화 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극락세계가 저 십만억 국토를 넘어서 있다. 또는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우리 마음 밖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참다운 염불도 못되고, 참다운 선도 못됩니다. 부처님께서 극락세계가 밖에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음 밖에서 찾지 마세요." 법회가 끝나고 법당을 나와 기자의 카메라 안으로 꼿꼿하게 들어오던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인사하는 이들의 시선을 일일이 시선으로 꼭 쥐어주던 스님의 눈빛은 따뜻하고 넓었다. 선지식의 눈은 밝음으로 빛나기 보다는 따뜻함으로 빛났고, 높음으로 우러러 보이기보다는 넓음으로 우러러 보였다. 방안에 들어 인사를 드릴 때 스님은 무릎을 꿇고 합장으로 모든 이의 인사를 받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을 걸을 때마다 옛날이 떠올랐다. 스님은 이듬해인 2003년 11월에 입적했다. 스님의 따뜻하고 넓은 눈빛은 볼 수 없지만 광륜사 마당엔 스님의 기억이 있었다.

청화 스님의 법향 서린 광륜사
한 폭의 황금빛 그림 능원사
고은의 시 한 수 생각나는 도봉사


2002년 청화 스님이 문을 연 광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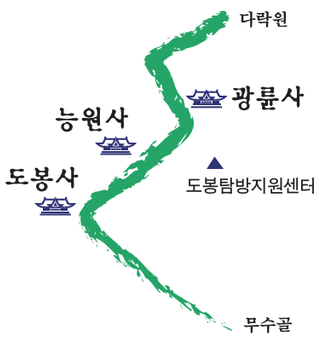

숲 속의 황금빛 그림같은 능원사

광륜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을 걷는다. 약 200m 쯤 걸으면 능원사다. 미륵존불을 모신 능원사는 경기도 여주에 본사가 있고 서울 도봉산과 부산에 선원을 두고 있다. 마당이 널찍하고 전각들엔 모두 황금단청을 했다. 황금빛 일주문을 지나 도량에 들어서면 웅장한 용화전(龍華殿)이 눈에 들어온다. 초록의 숲 도봉옛길에는 황금색 도량 능원사가 클림트의 황금빛 그림처럼 걸려있다. 황금빛 단청을 감상하고 능원사를 나와 200m 쯤 걸으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그려진 벽화를 만나게 된다. 도봉사다. 둘레길 한편에 그려진 탱화를 감상하며 도량에 들었다. 경사진 길을 30m쯤 오르면 작은 마당과 법당이 있다. 공원 같다. 도봉사는 고려 때 해거국사(899~974)가 창건했다. 고려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도봉사에서 정사를 봤다. 전쟁과 화재로 여러 번 소실과 중수를 거듭해오던 도봉사는 1961년 벽암 스님이 법당 및 부속 전각을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법당에서 스님이 예불을 올리고 있다. 마당엔 까치 한 쌍이 날개를 잊은 듯 거닐고, 법당으로 오르는 돌계단 위에는 개미들이 줄지어 가고 있다. "개미행렬이 / 길을 가로질러 가는 것은 / 결코 / 이 세상이 / 사람만의 것이 아님을 / 오늘도 / 내일도 / 또 내일도 /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는 것인지 몰라 // 햇볕이 숯불처럼 뜨거운 한낮 뻐꾸기 소리가 그쳤다" 고은의 시다. 마당을 거닐던 까치 한 쌍이 날개를 찾은 것 같다. 예불이 끝나자 숲으로 날아간다. 예불소리 또한 사람만이 듣는 것은 아니었다.

도봉사를 나와 다시 둘레길에 선다. 걷다보니 곳곳에 안내판이 있다. '도토리거위벌레의 알 낳기', '쪽동백나무' 등 숲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가을철 탐방로에는 도토리를 매단 채 떨어져 있는 참나무 가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과연 누가 그랬을까? 주인공은 도토리거위벌레다. 여물지 않은 도토리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은 후 가지를 주둥이로 잘라 땅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도토리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숲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숲도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도봉사를 지나면서 부터는 거의 내리막이다. 쉽다. 갑자기 숲이 시끄러워졌다. 소나기다. 비가 내는 소리인지 숲이 내는 소리인지. 숲은 시끄러웠다. 지나온 길이 비에 젖었고, 남아 있는 길도 젖었다. 젖은 둘레길을 빠져나오자 소나기가 그쳤다. 3km의 둘레길, 도봉옛길을 걸으면 세 곳의 절을 만날 수 있다. 선지식의 기억이 남아 있는 광륜사. 초록빛 숲에 걸린 황금빛 그림 능원사. 그리고 고은의 시가 떠오르는 도봉사다. 3km의 길 위에 그렇게 세간과 출세간이 이어지고 있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북한산 도봉옛길〉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입종안내

◈ 입 종 안 내 ◈

※ 입종 구비서류(공통) ※

○ 입종신청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증 사본1부, 증명사진 3매
○ 재적종단 수계증 사본 또는 승적확인서
○ 입종비(총무원 문의 바람.)
　- 사찰등록 희망 時 -
○ 사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사찰전경사진(내, 외부, 간판 등) 3매

※ 입종관련 문의는 총무원 또는 가까운 전국교구 종무원에 하시면 됩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저희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은 초대 세계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님의 유훈을 계승하여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큰 발원으로 일붕존자의 수법제자이시며 재)일붕선교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하신 법담 정각 대종사님을 초대종정으로 모시고 지난 7월 24일 『창종선포대법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지면을 빌어 본 종의 창종에 축하와 성원을 보내주신 원근각지의 청정승가와 불자여러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열린종단 · 교육 · 수행종단 · 개혁과 혁신의 종단』을 표방하는 본 종단에서는 "일붕"의 큰 그늘아래 하나 되고자 하는 일붕문도와 일붕존자와 소중히 인연된 청정승가, 법사, 재가불자님들께 언제나 입종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사오니 함께하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불기2556년 8월 좋은 날

※ 전국교구 종무원 ※

경기남부교구원장 : 일성(미륵사)	☎ 011-350-5855
경기북부교구원장 : 지산(통일안국사)	☎ 031-876-2235
경북교구원장 : 해동(지장사)	☎ 054-672-6564
전남교구원장 : 지현(약천사)	☎ 062-266-7462
전북교구원장 : 성각(백룡사)	☎ 010-9516-9600
충청교구원장 : 상원(해천사)	☎ 044-863-5582
제주교구원장 : 대성(일붕홍법원)	☎ 064-702-2328
대전교구원장 : 정원(삼성암)	☎ 042-583-1009
부산교구원장 : 정일(자광사)	☎ 055-342-3551
울산교구원장 : 지운(운지암)	☎ 052-260-4897
대구교구원장 : 보각(지장사)	☎ 054-482-1071

(사)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화엄

종정원 _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미룡사. 051)404~4300
총무원 _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화 041)566-2277, 566-2278　전송 041)566-6141

생태사회와 불교
생태학과 현대인의 심리

외부화된 자연은 정신질환·현대병 원인

한그루 나무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어릴때 살던 경기도 안성 시골마을 입구에는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여름이면 항상 그늘밑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멀리서 손님이 오면 1~2km 밖에서부터 알아차려, 손자인 내가 가까이오면 나를 알아본 사람이 우리집에 알려 할머니가 동구밖까지 맨발로 뛰어나오곤 하셨다. 나에게 이 정자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었다. 수백년간 마을사람들에게 이웃에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교환하는 정보교환의 장이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일감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협동하는 마당이었다. 또한 일하다 들어와 쉬는 곳이고 손님을 맞는 곳이기도 했던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공동체 공간이었다.

이 나무는 수백년간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과 이미 돌아가신 수천 수만의 마을사람들 기억과 추억속에, 마음과 정서속에 없어서는 안될 큰 존재이다. 고향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떠오르는 상징이었고, 궁극에는 돌아가야 할 그리움과 귀의처였다. 이런 나무를 그냥 베어버려 땔감으로 사용하면 그만일까?

이 나무는 이미 그냥 나무가 아니다. 수백 수천년간 보이지 않은 관계의 장을 만들어온 크나큰 에너지 덩어리이다. 그런데 이 정자나무만 그럴까? 저 미루나무는, 나무들이 모여있는 저 산, 저 냇물, 저 길은, 저 집은, 저 사람은 등등.

우리가 항상 보아온 SF영화들을 기억해보자. 하늘 위로 온갖 기하학적으로 솟아있는 인공 구조물, 건물과 그위를 날아다니는 비행선과 우주선, 역시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고가도로들이 보인다.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 내부만 봐도 모두 쇠덩이와 기계, 시멘트 창조물들의 집합이다. 도대체 도시에서든 우주선에서든 사람들이 먹을 녹색채소를 키우는 장면은 일절 보이지 않는다. 이들 미래는 서로 협력하고 생산하기보다 대부분 전투하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런 모습인가? 이 SF영화들속에 자연은 '생활속의 밖에' 있다. 자연이 외부화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이 생활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쟁과 싸움은 어쩌면 필연적일 것이다. 아니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종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뒤 만들어진 인공구조물, 또는 지하생활에 연명하는 SF적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이것이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미래사회가 아니다. 모든 SF의 미래모습은 유토피아(Utopia)가 아니라 디스토피아(Dystopia)이다.

'외집단' 화된 자연과 '내집단' 화된 자연

위의 정자나무로 상징되는 자연은 이미 마을사람들의 생활속에, 기억속에 '내부화' 돼 있는 자연이다. 그러나 SF에서의 자연은 '외부화' 돼 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모든 인간정신질환과 현대병의 원인이었고 결과였다. 불교생태심리학자인 조나단 바필드는 월간 '불교 문화' 에서 바로 이렇게 자연이 '외집단' 화하면서 인간의 정신적 질병과 자기 파괴가 발생했고, 자비연민의 마음은 고갈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사람을 그냥 죽이거나 헤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죽이려는 살인의 마음을 갖게 하려면 우선 상대를 '인간' 으로 보지 않고 '적' 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전의 참전용사들을 인터뷰했을 때 하나같이 자신들은 인간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를 죽인 것이고, 탈레반이라는 적, 악마를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상대도 또한 적으로서 미국인을 죽이도록 훈련받았을 것이다. 결국 전쟁이나 살상은 '상대' 라는 관념을 만들고 이들을 살해하도록 훈습하는 과정, 결국 나와 상대를 구분하게 만들어 나와 관련된 '내집단' 과 상대로 구분된 저들을 '외집단' 화하고, 내집단간의 결속과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나와 남을 구분하는 인식이 근본이 된다.

온갖 패악과 반인륜적 사건들의 원인

최근에 강간과 거리에서 묻지마 공격, 사이코패스적 살인은 왜 발생할까? 도시는 돈을 위해 모여있는 곳이라고 극단화해보자. 이곳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이다.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의 반자연적 문화가 번성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좌절과 상실감을 느끼는 다수의 패배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연, 영혼을 쉴 수 있는 자연이라곤 경험해본 적이 없다. 자연이 '외집단' 화된 도시에서 인간의 마음은 피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생태심리상담사들이나 생태교육프로그램은 자연을 잊어버린 도시사람들에게 자연이 내집단화하도록 하는 치유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속에서 배우고, 자연으로부터 배우고, 자연에 대해 배우는' 과정을 중요한 생태교육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외집단화하는 사회속에 자연을 내집단화하는 것에서 이러한 '아와 타' 의 분리의 인식을 극복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북미인디언들이 성인이 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찾는 과정의 비전퀘스트(Vision Quest)라는 의식이 있다. 오늘날 주목받는 생태적 체험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뜨거운 태양 밑에 드넓은 자연과 대지안에서 자신의 미래와 인생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한다. 공포와 두려움속에 자연에 대한 경외와 겸손을 느끼게 하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감사해하고 행복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다. 이 자연속에서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슬람의 수피들은 돌고도는 춤명상을 통해 자연속에 둘러쌓인 자신과 신과 우주와의 일체를 느끼는 명상을 하기도 한다.



전북 임실의 한 마을의 정자 나무. 정자나무로 상징되는 자연은 이미 마을 사람들의 생활속에, 기억속에 '내부화' 돼 있는 자연이다. 소중한 공동체의 현장이였지만, 점차 사라지고있다.

자연 외부화된 SF적 삶은
인공 구조물·기계·시멘트의 집합
자연 내집단화 생태교육 주목
8정도 · 자비실천 불교 생태적 삶

불교의 수행과 생태심리

불교의 수행은 자신의 내면 그 밑에 수많은 업식으로 깊이 저장된 아뢰야식을 살펴 자각하고 궁극에는 자신만으로 갇힌 인식을 넓혀 보다 확장된 지혜의 눈을 갖는 것이다. 감정에 휩싸여 요동하는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내려놓으며 몸의 미묘한 변화를 살피고 깨달음의 안목을 크게 넓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서 비롯되어 남과 이웃, 생명과 자연으로 그 연기적 일체를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동체대비의 큰 자비심을 내게 된다. 자기편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자비는 진정한 자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붙거나 대상이 한정된 것을 '대(大)자비' 라고 할 수 없다. 내집단화된 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집단까지 자비심을 내는 것, 결국 수행도 그렇게 큰 자비심을 확대하는 것이 대승교리의 핵심이라고 바필드는 주장한다.

불자라면 반드시 실천해야할 팔정도(八正道)에서 '정(正)' 은 빨리어로 'samma'인데 이것은 '완전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의 뜻과 더불어 '연대', '하나로 연결됨' 을 뜻한다. 결국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精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8정도는 모두 서로가 연관된 인드라의 세계임을 인식하면서 실천하는 모든 행위인 것이다.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자비연민을 느끼며 나아가 그것을 뛰어넘는 대자비심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불교가 생각하는 생태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이라도 인도적 위기일때는 식량을 주고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인도주의' 의 명제이다. 그러나 불교적 실천은 이미 나와 남, 나와 적을 구분하는 관념을 뛰어넘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라는 구분을 뛰어넘는 대자비심으로 나가야 한다.

근본생태론과 불교의 생태론

생태심리학은 안네스 (Arne Naess)를 시작으로 한 근본생태론(Deep Ecology)의 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근본생태론은 사회생태론이나 생태사회론, 생태막시즘과 달리 자연과 인간의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나눌수 없는 하나라는 전일적인식(Holistic)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누고 쪼개온 세계가 아닌 인드라의 세계인 것이다. 또한 인간이외의 생명도 그 자체로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간에게 유용성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인간외의 자연에 과도한 간섭이 있어서는 안되며 현재와 같은 자연에 대한 지배적 행동방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연계와 마찬가지로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감소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 사상은 실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 등장한 강력한 생태주의 사조이다.

사회생태론자인 머레이북친(Murray Bookchin)로부터 사회성을 갖지 못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지만, 사실 독일의 녹색당이나 그린피스등의 환경운동가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관과 운동성을 갖게 해준 동력이 되어왔다. 결국 모든 사회적 활동은 보다 근본에 가까이 가는 인식과 더불어 보다 현실에 가까이가는 중도적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 자 : 1판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가로, 세로 20cm
가격 35만원

▣ 크 기 : 높이 105cm 하단 가로 3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연꽃과 LED조명과의 만남!
수공예 창작 연꽃조명

생화와 흡사한 고무소재의 고급연꽃에 LED조명을 넣었습니다.
주로 법당에 부처님 좌우로 놓여지며, 재가불자님 가정에, 수행 하시는 스님법전에 놓여집니다.
고무재질의 고급 연꽃으로서 생화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며 연꽃, 연밥, 연잎, 극락조로 잘 조화된 100% 수공예 창작품입니다.

연등과는 달리 연꽃 자체에 LED조명이 켜지므로 신비롭고 영험함을 더해줍니다.
세속이 찌들고 더럽다 하여도 제한몸 정갈히 살고픈 불자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제작했습니다.
처염상정 연꽃에 등 밝히시어 부디 성불 하십시오.





꽃과조명 LED ART FLOWER
NAVER 카페 꽃과 조명
cafe.naver.com/flowernled

주문제작문의 010-2692-4632 / 010-9231-1192
네이버카페 꽃과조명 (http://cafe.naver.com/flowernled)
제휴쇼핑몰 불교TV(btn mall) / 사찰몰 종로불교 / 모란불교용품

세상을 바꾼 질문 "여자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④ 다문제일(多聞第一) 아난다

〈중〉비구니 출가와 시자로서의 삶



〈거조암 아난다 나한상〉



그림 · 김홍인

비구니 출가의 최대 조력자
부처님께 세 번 걸쳐 간청
사사로운 인연 배제 약속받고
부처님을 그림자 처럼 모셔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은 번조증(煩燥症, 열이 높아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다. 정반왕은 부처님과 석가족 출가자들을 간절히 찾았다. 전갈을 받은 부처님은 난다를 먼저 보내고, 자신도 뒤이어 정반왕에게 갔다.

자신을 찾아온 부처님에게 정반왕은 간절히 말했다.

"부처님,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의 수생에 걸친 공덕과 보리수 아래에서 얻은 이익이 아버지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을 들은 정반왕은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국상이 진행됐고, 부처님도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국모, 부처님께 출가를 청하다

장례를 마치고 부왕의 유골을 수습해 탑을 세운 후였다. 국모인 마하파자파띠가 부처님을 찾아와 황금가사를 보시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황금가사를 자신이 아닌 승가에 보시할 것을 권했다. 젖을 먹여 키운 이모의 보시를 마다한 것은 뒤에 이어질 요청을 알아서 였다.

"선왕이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이 왕궁에는 혼자 남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불쌍한 여인들을 세존의 그늘에 있게 하소서."

"이 교단에 여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청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단호히 청을 거절했다.

수 차례에 걸쳐 애원을 했지만 부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상심한 마하파자파띠는 울며 숲을 떠났다. 여인들의 청을 물린 부처님은 새로 출가한 비구들과 함께 바이살리의 숲으로 길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마하파자파띠가 오백 명의 여인을 이끌고 바이살리의 숲으로 왔다. 이들은 모두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깎았다. 거친 베옷을 입었으며, 맨발이었다. 아무런 준비없이 먼 길을 온 이들의 모습은 초췌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먼지 투성이였고, 맨발은 벗겨져 피가 배어나왔다.

여인들의 소리에 놀라 나온 아난다를 붙잡고 마하파자파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인정이 많던 아난다는 여인들을 다독였다.

"제가 부처님께 가서 여쭙겠습니다. 눈물을 거두십시오."

말을 마친 아난다는 급히 부처님께 마하파자파띠와 오백 여인이 출가를 청하고 있음을 알렸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번에도 단호히 그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사 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세존이시여, 마하파자파띠는 젖을 먹여 당신을 키운 어머니이십니다. 그들의 출가를 허락해주십시오."

"아난다여, 여자들이 교단에 들어오는 것은 청하지 말라."

여성 출가의 길을 열다

세 번의 청에도 부처님은 단호했다. 아난다는 눈물을 훔쳤다. 옷깃을 바로 잡고 이내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 여자도 수행하면 남자와 같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아난다는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여자도 수다원과와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등 4과(果)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다. 아난다여. 여자도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

"부처님 만일 여자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면, 이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난다의 거듭되는 간청에 부처님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만약 여인이 사문이 되고자 한다면 여덟 가지 공경하는 법(八敬之法)을 위반하지 않고 목숨이 다하도록 배워야 한다. 마치 물을 막고 제방을 잘 만들어 물이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승단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난다는 기쁜 소식을 마하파자파띠와 오백 여인들에게 알렸다. 국모의 출가가 알려지자 부처님의 아내 야소다라와 난다의 아내 자나빠다깔라니, 난다의 여동생 순다리난다도 출가했다. 가섭의 아내 밧다까벨리니도 비구니 승단에 귀의했다. 명망 높고 뛰어난 여인들로 구성된 비구니 승단은 이후 당당히 부처님 교단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카스트 제도의 신분사회에서 여인의 출가는 혁신이었다.

하지만, 아난다는 여인의 출가를 간청했다는 이유로 부처님 열반 후 교단의 문책을 당하게 되지만, 이는 훗날의 이야기다.

아난다, 부처님의 시자가 되다

부처님이 성도한지 20년, 이제 부처님도 세수가 60에 가까워졌다. 기원정사에 머물던 여든 명의 장로가 모두 부처님이 계시는 향실에 모였다. 부처님의 새로운 시자를 뽑기 위해서 였다.

사실 부처님의 시자는 이미 여러 명이 있었으나, 제대로 시봉하는 자가 없었다. 심지어는 부처님을 버려두고 가거나 발우를 깨뜨린 자도 있었다. 상수제자 사리불이 가장 먼저 일어나 합장하고 시자가 되길 청했다.

"제가 세존의 시중을 들겠습니다."

"안된다. 그대 또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이다. 그리고 그대의 주위에는 법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런 그대에게 시자는 맞지 않다."

장로들이 돌아가며 시자가 되길 청했지만, 부처님은 모두 거절했다. 마지막으로 아난다에게 차례가 돌아왔으나 나서서 시자가 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대는 시자가 되길 청하지 않는가?"

아난다는 부처님이 세 번 질문하고 나서야 합장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말했다.

"부처님께 올려진 의복과 공양을 저에게 주어도 받지 않겠습니다. 신도들의 초대를 받아 가시는 자리에는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언제든 질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십시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시중을 들겠습니다."

아난다는 자신이 부처님의 사촌이었기 때문에 더욱 행실을 조심해야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같은 조건을 부처님께 제시한 것이다. 부처님도 아난다의 깊은 뜻을 알고 있었다.

"훌륭하다. 아난다. 너의 뜻대로 하라."

부처님의 정식 시자가 된 아난다는 그림자 같이 따라다니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부처님을 모셨다.

전생의 도반이 사제 관계로

어느 날 부처님과 아난다는 바라나국에 잠시 들렀다. 한 곳에 이르자 부처님이 환한 표정을 지었다. 광명과도 같은 환희를 보이는 부처님께 아난다가 연유를 물었다. 부처님은 오래 전 가섭불 시대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 이곳에는 본디 큰 고을이 있었고, 환예(歡豫)라고 하는 옹기장이가 하나 살고 있었다. 그는 사람 됨됨이가 자애로웠고, 자주 부처님께 나아가 맑은 교화를 받았다. 그런 환예에게는 화결이라는 죽마고우가 있었다.

어느 날 둘은 가섭여래가 있는 곳을 지나게 됐고, 평소 불심이 깊은 환예는 친구를 이끌고 설법을 듣기 위해 갔다. 가섭불 앞에 선 환예는 가장 먼저 엎드려 절을 올렸다. 하지만, 화결은 그저 예만 갖추고 물러나 앉았다. 환예가 가섭여래에게 간청했다.

"화결은 제 오랜 벗이지만 아직 미혹해 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없애주소서."

이내 가섭여래는 화결에게 맞춰 설법을 하니 그의 마음이 열려 삼보를 공경하게 됐고, 출가해 불가에 귀의했다.

이야기를 마친 부처님은 아난다와 동행한 비구들에게 말했다.

"그때의 화결은 지금의 내 몸이요, 환예는 지금의 아난다이다. 아난다는 나의 좋은 친구로서 나를 이끌고 가섭불에게 경을 듣게 해 나를 부처가 되게 했다. 무릇 어진 벗의 충고는 만복(萬福)의 터전이다."

부처님의 열반을 예지하다

아난다가 부처님의 시자가 된지 27년, 흥안의 청년도 쉰 살을 넘었다. 어느 날 아난다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기묘한 꿈은 모두 일곱 가지나 됐다.

첫 번째 꿈은 큰 바다가 불에 타고 있었고, 두 번째에는 태양이 없어져 세상이 암흑천지가 됐다. 세 번째 꿈은 비구와 비구니가 가사를 입지 않고 재가 신도가 교단을 짓밟고 있었다. 다음은 비구, 비구니들이 법의를 입지 않고 가시밭길에 있었고, 다섯 번째 꿈에는 커다란 멧돼지가 전단나무 뿌리를 파헤쳤다. 여섯 번째 꿈에는 큰 코끼리가 작은 코끼리를 죽이고, 사자의 몸에는 벌레가 생겨 사자의 몸을 파먹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머리위에 수미산이 얹혀 있었지만 전혀 무겁지 않았다.

아난다의 일곱 가지 꿈을 전해들은 부처님은 이내 한탄했다.

"오랜 세월 뒤에 비구, 비구니들이 법의를 입지 않고 계를 깨뜨리고 속된 짓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처자를 거느릴 것이다. 또한 말법시대가 되면 비구, 비구니가 부처의 법을 빌어 생활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꿈은 부처의 열반을 의미한다. 나는 90일 안에 열반에 들 것이다."

아난다는 당황해 부처님의 얼굴을 보았다. 부처님은 일체의 변화도 없었다. 옅은 미소만 지긋이 번질 뿐이었다. 하지만, 아난다는 그때까지는 몰랐다. 자신이 부처님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게 한 장본인이 될 것이라고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참고문헌
〈부처님의 생애(조계종 교육원)〉, 〈부처님 십대제자(성각 스님)〉, 〈붓다 입멸에 관한 연구(안양규)〉, 〈경률이상 제15권〉, 〈불모니원경〉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ϕ × 34㎝



육각초 7.0ϕ × 34



연화 大 9.5ϕ × 11㎝, 연화 中 9ϕ × 10㎝, 연화 小 7ϕ × 6.5㎝

밀납연화 小 7ϕ × 6.5㎝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New 꽃과 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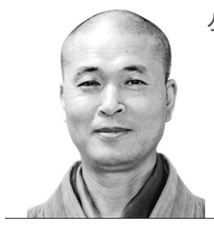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원기둥나비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 창 산 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남김없이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의 적합한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침을 뱉었다.
학승이 물었다.
"그 일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또 한 번 침을 뱉었다.

問 如何是祖師的的意 師涕唾 云其中事如何 師又唾地

조사의 뜻? 나는 그것에 침을 뱉어 주리라. 침을 뱉는 뜻이 무엇인가 물었는가? 그것에도 나는 침을 뱉어주겠다. 누가 감히 조주 스님의 침 뱉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는가? 마음이 추악함으로 덕지덕지 때묻어있는 사람은 조주 스님의 이 행동을 보고 추악하다고 몸을 떨어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들이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대의 심성이 깊은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문해보라. 일상사에 흔들리고, 두렵고, 일치되지 않는가를. 그대가 조주 스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일상사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 아래 자유로운 사람은 흔치않다. 법당에 올라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참회하라. 그리고 초지일관 하나의 화두에 몸과 마음을 밀어 넣으라. 7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밝아질 날이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행(行)을 떠난 것이다."

問 如何是沙門行 師云 離行

무엇이 진정한 사문의 행인가? 그것은 사문의 행을 떠난 것이다. 출가는 자유를 찾는 여행이다. 한 날 한 시도 그 '무엇'에도 정착하면 안 된다. 수행자는 떠남의 삶을 인생으로 여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점점 저쪽 죽음의 세계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그 과정이 인생이듯, 수행자의 인생도 떠남의 인생이다.

우리는 원래 부처이다. 부처는 그가 그냥 살아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다. 부처의 길을 가는 자가 정해진 행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때 묻은 행이 되고 만다. 인생이 한결같지 않듯 부처의 행도 한결 같지 않다. 부처는 그 어떤 행도 행할 수 있다. 그 행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면 부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간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도 가야한다면 서슴없이 그 길을 간다. 따라서 부처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학승이 물었다.
"참다운 휴식처를 노스님께서 가리켜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리키면 휴식처가 아니야."

問 眞休之處請師指 師云 指即不休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에 있든 편안하다.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편안하지 않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쉴 것인가? 일체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지식, 지위, 생각, 철학, 종교, 불교, 승려 등 머리에 있는 것을 다 비워 버리고 태초의 인간처럼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라. 오로지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가족만은 버리지 말라. 무심으로 일하고 또 일을 하라.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상의 최고 부자와 최고 가난한 자이다. 정말 그렇다. 최고 부자는 다 가져서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가지지 않아서 행복하다. 왜냐하면 철저한 거지는 세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가지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다. 만일 머릿속을 철저히 비우기만 한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이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부처는 사자에 비유한다. 백수의 왕이다. 선문(禪門)에는 장부의 기개를 원한다. 부처의 자식은 누구나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과감하고 용기있는 자만이 다 버리고 홀로 걸어간다. 진정 부처의 기상을 이어받았다면 그 누구의 평에도 신경 쓸 것 없다. 코끼리처럼 묵묵하게 저돌적으로 부처님처럼 그 누구에도 의지하지 말고 걸어가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障壁 可以入道]' 고 했다. 수행자들은 명심하라.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쉰다는 것은 쉽지 않다. 휴식처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결심으로 스스로 해야 한다. 휴식처는 일체를 떠난 곳이다. 또한 모든 곳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휴식처야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휴식처가 아니다. 휴식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 〈30〉

조건에 따라 상호의존 변화하는 법칙

연기설-① 연기의 의미

불교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연기설(緣起說)의 산스크리트어는 쁘라띠뜨야-쌈우뜨빠다(pratītya-samutpāda)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연해서 혹은 의존해서[쁘라띠뜨야]', '일어나다, 발생하다[쌈우뜨빠다]' 는 의미이다. 즉 '상호의존해서 일어난다' 는 뜻이며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 고도 바꿔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상호의존해서 일어나는 원리를 차연성(此緣性) 혹은 상의성(相依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기설은 사법인(四法印)의 가르침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사법인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현상은 고정된 것이 없고 생멸변화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기반 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작용의 법칙을 '연기' 라고 한다. 이 법칙은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작용하고 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이다. 즉 부처님은 연기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진실을 발견한 것이다.

초기 〈아함경(阿含經)〉과 빨리어 경전에서는 연기설을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라고 설명한다. 연기를 정의하는 위의 문구야 말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내용이다. 즉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연기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나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세계관을 거부한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각각의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연기설은 또한 불교의 근본설이며 법[불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경전에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라든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부처님)를 본다' 라고 돼 있다. 즉 연기설을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된다.

원시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혹은 중국이나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의 중심사상은 연기설이다. 연기설이야말로 다른 종교나 철학과 구별되는 불교의 독자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의 독자적인 특징이 불교의 각 학파에서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파불교(部派佛教)에서는 연기론을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의 변화는 자신의 업(業)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를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이라고 한다. 유가행파(瑜伽行派)에서는 부파불교의 업감연기설에 아뢰야식연기설(阿賴耶識緣起說)을 더해 설명한다. 우리가 짓는 신구의 삼업은 모두 아뢰야식에 저장되고 동시에 아뢰야식은 다시 우리가 짓는 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승의 법성종(法性宗)에서는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을 내세운다. 진여는 범어로 타타타(tathata)라고 하는데 현상을 초월한 보편적인 유심체(唯心體)이며 연기의 주체이다. 즉 주관과 객관의 모든 것은 아뢰야식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에 진여의 작용이 있다. 다음으로 화엄종(華嚴宗)의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이 있다. 이 연기설은 중생과 부처님, 번뇌와 깨달음, 생사와 열반 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 세상은 상호 의존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통일돼 있다는 견해이다. 법계연기설은 현상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의 통합과 융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연기설은 어떤 학파의 학설이든 연기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세상이 상호의존에 의해 생멸변화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관점에서 일치한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㉟



저열한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 낸다 〈앙굿따라 니까야〉

나는 이럴 때마다 놀란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 아닌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주만상의 근본 이치를 깨달은 것이라 배웠지 않던가. 깨달음의 내용은, 어려운 말로 하면, 연기(緣起)라는 말로 정리된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렇긴 하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오는 동안, 어쩌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나 가르침이 추상화(抽象畵)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저 하늘 위에서나 벌어지는 일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통해서, 그분의 언어를 좀더 가까이에서 들어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바가 적지 않다.

그분은 추상화를 잘 그렸던 화가가 아니다. 구상화(具象畵)를 즐겨 그리셨다. 아니, 어쩌면 사진작가였는지도 모르겠다.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인간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마음씀씀이(用心)를 조용히 들여다 보신다. 카메라 앵글을 들이댄다. 아주 가까이 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클로즈업(close up)한다. 그 장면을 크게 인화하여, 우리 눈 앞에 대준다. 보라, 이것이 그대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연출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장면이 한 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을 많이 찍어서 보여주신다. 사진작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부처님 역시 놀라운 관찰자이다.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 분의 관심은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주의자였다. 그는 현실의 인간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類型化)한다.

①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칭찬거리를 드러내는 사람.

② 질문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

③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사람과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④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①에서 ④에 이르는 각 항목에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열한 사람' 이고, 뒷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 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일아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pp.515-516. 참조.) 나는 '저열한 사람' 일까, '훌륭한 사람' 일까? 혹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정도는 아니라 해도, 질문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수준은 아닌가?

도대체, 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나와 타자가 대립하는 언어생활이야말로 '나' 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기인(起因)하여 '나' 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나' 를 없애고, 그 '나' 를 내다버림으로써, 나는 '나' 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자와도 하나로 어우러지고, 타자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그림 · 박구원

훗날, 〈천수경〉의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앙굿따라 니까야〉의 이러한 말씀에서 시발(始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나는 다른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제3자에게 말한 일이 없는가? 오늘 하루, 나는 다른 사람이 묻지도 않는데, 나의 장점을 과대포장하여 제3자에게 선전한 일은 없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설법연수원을 통하여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이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회 박사의 특별지도

교육일정
■ 종 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연수안내
■ 자 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강사소개
[설법연수원 회장 우불 김 철 회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면시술사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 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삼천만원의 평생인연
회향선원에서 평상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회향복지원 1인1실 평생거주할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녀 20분만 평생모십니다.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혜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회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회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울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들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땅 회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고지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발원합니다.

회향선원 주지 혜명 합장

● 문의 : 회향선원 011-771-75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7〉

봉사는 수행… 혜택 받은 가피

봉사단체 '작은손길' 김광하 대표



김광하 대표는 … 연세대 상과대학 졸업 후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로부터 참선을 배웠다. 1980~87년 다국적 기업인 '필립 브러더스'에서 근무하다가 1987년 무역회사인 도이상사(주)를 창업했다. 1997년부터 경불련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후원하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2004년 봉사단체인 '작은손길'을 설립하고 노숙자 시설인 '사명당의 집'을 개원했다. 현재 작은손길 대표, (주)도이상사 사장,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 청정한 삶을 살고자 서원한 이들을 불자라 말한다. 한국 불자들은 통념적으로 10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이들 모두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처님 당시 인도 꼬살라국의 권력층들은 불자로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왕을 모시고 여러 궁녀들과 더불어 놀았지만 항상 세 가지 일을 조심했습니다. 첫째 바른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집착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며, 셋째는 거기에 넘어지고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모든 재물은 늘 세존과 출가자, 재가자들과 함께 쓰며, 제 것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바른 사유를 실천했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눠가질 것을 약속했다.

봉사단체인 작은손길(사륜의 집) 김광하(60 · (주)도이상사 사장) 대표는 10여 년 동안 작은손길을 이끌며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실천해 왔다. 김 대표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혜택 받은 사람이란 뜻이다. 그건 부처님의 가피다. 봉사를 통해 명예를 추구한다면 고행이지만, 나에게 봉사는 단지 수행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깨달음으로 가고자하는 서원

9월 5일 서울 신설동 풍물시장 인근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골목골목을 돌아 허름한 2층 단독주택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그는 환한 웃음을 띠며 "이곳이 작은손길 입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누추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집안 곳곳을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거실을 끼고 있는 커다란 주방에서부터, 쌀, 과일 등을 보관하는 창고, 주말이면 네팔이주민들의 아지트가 되는 안방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보물상자에서 보물을 하나 둘 씩 꺼내놓듯 집 구석구석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곳에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말마다 들려 물품을 운반하거나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차량 운행 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작은손길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종로 3가 지하철역 근처에 계신 400여 어르신들에게 차와 사탕 등을 보시하고,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을지로입구역 근처에서 200여 노숙자들에게 음식 등을 보시한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독거노인들에게 반찬배달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전달 및 사진교육을 통한 재능보시,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주말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입양청년들에게 숙식제공에도 나서고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봉사활동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오전에는 방앗간에 맡긴 떡을 찾아 다른 봉사자분들과 함께 을지로, 종로를 돌며 커피와 함께 나눠 드려요. 그렇게 수 백 명에게 나눠 드리고 주변을 청소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게 제가 하는 일의 다예요."

김 대표는 현재 중소 무역회사의 사장이다. 하지만 그는 평일에도 어김없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1997년 로타리클럽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심한 매질과 노동력 착취를 당한다는 김해성 목사의 강의를 듣고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를 통해 2년 간 후원을 시작했다. 그러다 2002년 서울 김포에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꾸려나가다 2004년 '작은손길'을 설립해 본격적인 현장 봉사활동에 나섰다.

"처음 '작은손길'을 설립하면서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죠. 첫째는 회원모집을 절대 하지 않는다. 둘째는 지자체 및 국가의 어떠한 후원도 받지 않는다. 셋째는 절대 상(相)을 내지 않는다였죠. 제 힘으로만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언젠간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었어요. 오로지 수행으로서만 이 일을 하겠다고 가족들을 설득시켰죠. 그렇다고 제 재산 모두 털어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회원이 10여 명도 안됐지만, 현재는 알음알음 알고 찾아와 주셔서 130여 명이 넘어요. 제가 정말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거죠."

2004년 '작은 손길' 설립
10여년 깨달음으로 가는 봉사

회원모집 안하고
국가후원 안받고
상 안내기 가족과 약속

어르신 노숙자 독거노인 이주민 탈북자
눈이오나 비가오나 만나는 이웃

'작은손길'은 오로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김 대표는 "최근 불광사, 봉은사, 금륜사 등에서 탈북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원해 줘 운영에 큰 어려움은 겪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 대표는 '작은손길'을 이야기할 때마다 '봉사단체'가 아닌 '수행단체'라고 강조했다.

"'작은손길'은 단순히 봉사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수행단체예요. 일반시민단체나 복지단체에서는 활동의 규모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불자들에게는 마음을 살피는 수행이 근본이 돼야 해요. 불교단체의 활동은 하심(下心)이 중요해요. 마음을 낮출 때 관용과 화합이 이뤄지기 때문이죠. 봉사활동이라도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있으면 남과 경쟁하느라 바쁘고 각박하게 마음을 쓰게 돼요.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는 마음이 곧 불교의 겸손이죠. 봉사 활동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에요. 자비심을 놓지 않고 겸손을 지키며, 보시를 통해 만날 때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김 대표의 이런 원칙 때문에 회원들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상(相)을 내세우지 않는다. 조용히 노숙자들과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나눠주고 돌아오는 게 전부다.

"간혹 학생들이 찾아와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면 도장 찍어주시나요'라고 물어요. 그러면 바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상(相)을 내기 위해 찾아오신 분들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나가세요."

김 대표가 '무주상보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불교포교라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대표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할수록 이것이야 말로 진정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실감한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음의 세계에 드는 것이 저의 서원이에요. 깨달음은 인간이 두려움, 미움, 고통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깨달음을 봉사를 통해 실현하고 싶어요."

실제로 김 대표는 10여 년 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서 서로 경계 없는 만남이 무엇인지 느꼈다고 설명했다.

"처음 저희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 줄 때 사람들의 경계가 심했어요. '저들이 우리한테 왜 음식을 주는거지'라는 의심이 든 거죠. 그런데 저희는 합장만 하고 음식을 나눠주곤 그대로 돌아와요. 그렇게 꼬박 10여 년을 하니 사람들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느꼈죠. 실제로 타 종교에서는 음식을 나눠주기 전 종교적 의식을 오랫동안 진행해요. 그러다 보니 그들도 '아, 내가 이 찬송가만 부르면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들에겐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이 이 음식을 나눠주는 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어떤 조건도, 경계도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진정 부처님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김 대표는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한 탈북학생이 그러더군요. 처음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아줌마, 아저씨들이 잘해줄까' 고민했대요. 그런데 1~2년이 지나도 아무런 대가없이 자신에게 한 결같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살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봉사자들이 감동받았죠."

'작은손길'은 '무주상보시'의 의미만 이해한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맞고 있다. 2년 전부터는 가톨릭 신자인 회원의 소개로 교회에 매달 쌀 80kg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교회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위해 무료로 공부방을 열고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무주상보시'의 원칙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사람이다 보니 어려운 고비가 오면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김 대표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더욱 자신을 점검했다. 또한 사석에서 만난 지인들에게도 절대 자신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 때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혹시나 형편이 나은 사람이 후원금을 적게 주면 '왜 저 사람은 이것밖에 돈을 안내지'라는 분별심이 들때도 있죠. 그럴 때 마다 내 자신을 경계해요. 또 명예욕도 버려야 되죠. 그래야 진정 피안으로 갈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계없는 만남’ 무주상 보시



김광하 대표가 봉사자, 탈북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여름캠프에서 즐겁게 게임하고 있다.



서울 신설동에 위치한 ‘작은손길’

수 있거든요.”

이밖에도 ‘왜 하필 부랑자와 노숙자를 돕느냐’는 주변의 질타에 한동안 속앓이를 한 적도 있다. 처음 ‘작은손길’은 노숙자쉼터로 출발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6년 전, 현재 자리한 주택으로 새로 터를 잡았다.

“노숙자는 엄밀히 부랑자와는 달라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숙자로 추락하기까지 대개 2~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IMF이후 이런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들은 직업을 잃거나 빚에 쫓겨 가정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값싼 고시원을 드나들다 결국 노숙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또 추위에 떨다보니 몸도 성한 곳이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죠. 대개 우리가 아는 부랑자는 100명에 10명도 안됩니다. 저는 그 분들께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학시절 불교와의 인연

처음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연세대 재학시절 독서서클에 가입하면서 부터다. 서클활동으로 불영사 수련대회에 처음 참가했다 스님들을 만난 후, 그는 불교에 점차 관심을 가졌다. 이후 대구 동화사 양진암에서 경봉 스님의 법문을 듣기도 하고 경전공부도 열심히 했다.

“젊은 시절,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사회적으로 억압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 이 사회를 어떻게 타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당시 법정 스님이 번역한 〈숫타니파타〉를 읽고 초기불교에 빠져, 휴학을 한 뒤 동국대 홍정식 교수가 강의하는 초기불교 강의를 도강하기도 했다. 그러다 1977~1978년에는 보림선원의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를 찾아가, 1년 반 동안 백봉 거사의 시봉자로 지냈다.

당시 백봉 거사는 〈금강경〉〈유마경〉〈선문염송〉

초기 경전 보급, 저서활동도 활발

아침 · 점심 · 저녁 ‘자기 점검’

“부르지 않아도 먼저 벗이 되자”

‘유마경’ 첫구절 가슴에 새겨

등을 통해 재가불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법문을 했다. 김 대표는 최근 1년 동안 백봉 거사의 가르침이 시대에 묻히는 것을 염려해 서울에 보림선원을 다시 설립하고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밖에도 4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법과등불’이라는 불교모임공부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한국빠알리성전협회 편집위원을 맡아 초기 경전 보급에도 앞장섰다. 그는 〈금강경과 함께 역사 속으로〉〈무문관 강송〉〈금강경-깨달음에는 길이 없다〉〈노자 도덕경〉〈길 위의 삶, 길 위의 화두〉 등 많은 저서를 펴내며 문서포교에도 활발히 활동했다.

하지만 이런 이념들을 접할수록 ‘수행을 통해 너와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져만 갔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기 위해 봉사를 통한 수행길에 올랐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사람을 볼 때 지적능력을 많이 판단했어요. 분별심이 심했죠.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사람은 ‘행(行)’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저보다 학벌도 낮고,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이 조용히 봉사활동을 하며 보살행을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한 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김 대표는 “자신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것조차 다른 봉사자들의 공을 가로채는 것 같아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낮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저녁에는 ‘오늘 내 자신이 어땠는지’ 점검한다.

“〈유마경〉의 첫 구절에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먼저 벗이 되어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불교는 세상의 한 줄기 빛입니다. 저는 봉사라는 수행을 통해 두렵고, 경계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진리에 다가서고 싶습니다.”

이런 김 대표에게도 최근 고민이 하나 늘었다. 본래 10년만 운영하기로 했던 ‘작은손길’이 어느 새 만 10년을 코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제 화두가 ‘작은손길’을 언제까지 운영하는 가 입니다. 처음 가족들과 딱 10년만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 세월이 이만큼 흘러 어르신들이 제 ‘형님’벌이 됐죠. 앞으로 언제까지 운영할 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작은손길’은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작은손길’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저만의 수행방식이었죠. 이건 정신적인 문제에요. 이 자체가 정의니까요. 만약 누군가 ‘작은손길’ 같은 단체를 운영하겠다면 그 분만의 방식으로 접근해야죠.”

〈화엄경〉 ‘보현보살행원품’에는 “깨달음은 중생에게 속해 있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다면 모든 보살들이 끝끝내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온다. 뭇 생명의 고통과 자비에서 출발하지 않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은 적어도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중생들과 수행공동체를 실현하며 자신을 낮추고, 선(善)을 향해 노력을 기울였던 부처님의 삶처럼, 오늘도 불자로서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질 경 이



동국대 명예교수

길을 걷고 있었다. 건너편에 사람이 보인다. 인도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인도에 사람이 서 있다거나 걷고 있다면 몰라도 앉아 있는 양이 기이하여 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가까이 가보니 한 남자가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 올라온 풀을 뜯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고 있느냐고 말을 건네기도 조심스러운 형색이었다. 얼굴에 핏기는 가신지 오래인 듯 하고 손등에 심줄마저도 병마에 지쳐 버린 듯 자취를 감추었다. 그의 행위는 아마도 이래서가 아닐까 한다. 남은 삶이라도 만인이 다니는 길을 내 손으로 단장해 놓고 싶다는 인간의 원초적 마음이 발동했노라고.

그가 뽑고 있는 풀은 내겐 어린 시절부터 눈에 익은 것이다. 이름은 질경이다. 질경이는 토끼가 좋아하는 먹이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토끼풀 클로버를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상추, 엉겅퀴, 시래기도 좋아한다. 아무리 좋은 먹이라 해도 단비 맞은 풀잎은 싫어하는 것이 토끼의 식성인 듯하다.

질경이는 밟아도 죽지 않는다. 아무리 밟힌다 해도 모습만 흐트러질 뿐 죽지 않는 풀이다. 질기고 질겨 ‘질경이’라고 부른다. 연전에 하버드대학 세계종교연구센터에 있을 때이다. 건물 뒤에는 한적한 공원이 있었다. 오가는 이도 많지 않고 습한 공원은 질경이가 다수 차지하고 있어 친근감이 더 했다.

‘발바닥으로 옮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독일에서는 ‘길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나 동물의 발에 붙어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생각이 솟는다. 인간은 본인의 의지로 가고 옮을 정할 수 있지만 누군가의 발길에 의해 자신의 주거지가 정해질 수 뿐 없는 운명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오직 한 만이 쌓여 갈 것만 같다. 그러나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질경이의 삶에서 우리는 무한한 인내를 배워야 하고 한없는 넉넉함을 익혀야 할 것 같다.

춥다고 양지바른 곳으로 옮겨가지도 못하고, 덥다한 들 그늘진 곳으로도 마음먹은 대로 옮겨갈 수 없는 삶이 아닌가. 반면에 사람들은 춥고 덥고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대처한다. 적당한 난방이며 냉방에 몸을 맡기기도 한다. 번식의 한 방법이 이름으로 고착되었으니 그 삶이 오죽할까. 길이 있는 한, 질경이는 밟혀서 자라고, 밟혀서 자기 씨앗을 옮겨 번식할 것이다. 그래서 질경이는 간혹 민초의 삶에 비유되기도 한다.

만병에 좋은 약으로 차전초(車前草)라 하고 그 씨앗은 차전자라하여 한방에서는 이뇨제로 쓰이고 눈병과 설사에 쓰기도 하는 긴요한 약제이다. 그 이름에 얽힌 일화가 흥미롭다.

한나라에 마무(馬武)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떠났다. 산 넘고 강을 건너 풀 한포기 나지 않는 사막을 지나게 되었다. 병사도 지치고 군량미는 바닥이 나고 물도 부족하여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 갔다. 회군하자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병사들은 아랫배가 붓고 피오줌을 누는 습열병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군마까지도 피오줌을 누면서 한 마리 두 마리 쓰러져 갔다.

그런데 한 마리가 생기를 되찾고 오줌을 누는 것이었다. 이 말은 마차 앞에 있는 돼지 귀처럼 생긴 풀을 열심히 뜯어 먹고 있었다. “맞아! 이 풀이 피오줌을 멎게 한거야.” 병사는 곧 그 풀을 뜯어 국을 끓여 병든 병사들에게 먹였다. 그러자 오줌이 맑아지고 퉁퉁 부었던 아랫배도 본래 모습을 찾게 되었다. “그 풀을 수레바퀴 앞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하니 이름을 차전초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생명은 위대한 것이다. 작열하는 태양이 내려 쪼이는 아스팔트 위에도 생명은 숨 쉬고 있다. 틈. 틈은 생명을 잉태하는 모태가 되기도 한다. 생명은 처소를 가리지 않고 숨 고르기를 하

질긴 생명력의 질경이 보며

생명 위대함과 존중 느껴

며 존재를 보존해가고 있다. 바위틈에 하늘거리고 있는 구절초의 모습에서도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 들끓는 유황천에서도 생명이 존재한다고 한다. 호극성균이라던가. 생명 있는 것들은 모두 위대한 것을.

유위법을 〈금강경〉에서는 여섯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 꿈과 같고 허깨비 · 물거품 · 그림자 · 이슬 · 번개와 같다고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 생성과 소멸이 따른다. 하지만 무위법은 인연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즉 천지만상의 도가 무위법인 것이다.

아스팔트 위에 위태롭게 핀 풀은 천지운행을 터득했기에 행인의 발길에 밟히거나 자동차의 바퀴에 짓이겨진다 한 들 원망이나 한이 서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었다 한들 누구 하나 서둘러 힐링할 생각마저 내지 않아도 섭섭함이 없다. 아, 위대한 초목이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삼보리는 각이고 각은 깨달음이다.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곧 반문이 따른다. 생명의 근원이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근원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존귀사상이야말로 불교의 제일 덕목이 아닐까 한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육신의 고통이 따른다 해도 질경이의 삶을 견주어 보면 큰 위안이 되고 건강한 삶의 갓밝이를 맞게 되리라.



마음챙김명상…美대선 전당대회에 전파

마음챙김수행 유권자들에게 캠페인활동 독려







① 최근 개최된 민주 ·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음챙김명상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끈다. 사진은 9월 4일 열린 버락 오바마 美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지명한 민주당 전당대회 ② 마음챙김투표 공식홈페이지 ③ 'MindfulVOTES' 배지

美민주 · 공화당 전당대회 부스마련
명상 · 요가 등 사람들에게 알려
SNS · 배지로 유권자들에 홍보

미국 대선을 60여 일 앞두고 그 열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명상과 요가, 태극권 등을 통한 마음챙김명상(Mindfulness)을 최근 개최된 민주 ·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알려 눈길을 끈다. 마음챙김투표(MindfulVOTES)라는 단체가 그 주인공.

선불교수행자이자 작가인 앤젤 쿄도 윌리암스(Angel Kyodo Williams)가 창시한 모임인 마음챙김투표는 마음챙김명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장려하고 그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정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음챙김투표는 美 인터넷신문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의 후원을 받아 최근 열린 공화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상과 요가를 연습하고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오아시스(Oasis)'를 마련했다.

앤젤 쿄도 윌리암스는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음챙김투표운동을 통해 부정부패의 온상인 정치와 당파적 싸움에 정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윌리암스는 "마음챙김투표는 2012년 대선 유권자들과 정치인들에게 마음챙김명상을 알리는 국제적이며 당파를 초월한 캠페인"이라며 "마음챙김투표는 알아차림 · 소통 · 참여를 핵심가치로 삼고 이를 시민의 삶에 퍼뜨리고 대선캠페인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챙김투표는 공공장소와 투표부스에서 마음챙김의 효과와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5만명의 미국 마음챙김명상수행자들을 교육 · 장려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통해 수행자들은 △방석에 앉아 좌선 · 명상만 할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수행자들이 투표를 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라 △한 번의 투표가모여 다수의 투표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줘라 △결속과 교육을 통해 5만명의 수행자들을 동원해라. 마음챙김을 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은 눈에 띄는 유권자가 될 것이고 정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 3개의 미션을 과제로 삼고 캠페인활동을 하고 있다.

마음챙김투표는 공식홈페이지(http://mindfulvotes.org/)를 개설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MindfulVOTES'라는 글자에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배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마음챙김투표(Mindfulvotes)는 "마음챙김명상수행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석은 너무 좁은 공간이 돼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마음챙김명상수행이 무엇을 사야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등 우리의 몸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러한 알아차림을 우리학교에, 사회에, 나라로 까지 확장시키자"고 말했다.

이어 마음챙김투표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가치를 심어준 수행을 정치에도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자비심을 갖고 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극단적 당파싸움과 당지지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믿는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티베트사원 급습…中공안 승려 4명 체포

중국 공안이 칭하이성(青海省)의 티베트 자치지역 안에 있는 사원을 급습해 중국 당국이 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월 4일 "중국 공안이 지난 1일 칭하이(青海)성 위수(玉樹)현 드자토에촌에 있는 티베트 사원 질카르사(雪歌寺)를 급습, 티베트인 승려 4명을 체포하고 다른 1명을 연금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무장병력 수백명이 차량 60여 대를 나눠타고 사원에 들이닥쳐 지난 6월 있었던 승려 두명의 분신을 외국 매체에 알렸다는 이유로 승려 4명을 체포하고 이 장면을 사진 촬영하던 다른 1명을 연금했다"고 전했다.

공안은 사원의 방을 샅샅이 뒤지며 컴퓨터와 DVD 등을 압수했고, 항의하는 승려들을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병력 수백명이 9월 4일 티베트 사원을 급습해 스님들을 연행해갔다. 사진은 2008년 3월 유혈사태때 중국공안에의해 연행된 티베트 스님들.

한 소식통은 "중국 공안이 사원을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걸어 사원 측은 의례적인 방문으로 알았다"면서 "공안의 급습 직후 사원 내의 모든 불이 꺼지고 외부와의 통신수단도 두절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쓰촨성 티베트 자치구에서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 중국내 티베트인 자치구역에서 중국에 항거해 분신한 티베트인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5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나은 기자

연못서 놀던 어린이 1000년된 불상 발견

새로판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1000년이 넘은 불상 6점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세계 불교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새로운 연못을 파고 있던 캄보디아 클렝 포르(Khleng Por)지역에서 우연히 불상이 발견됐다.

캄보디아 주정부 문화부장관 프락 삭혼(Prak Sakhon)은 "불상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에서 80㎞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며 "이 불상은 9~12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50㎝정도의 높이로 9㎏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상은 지방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불교 필사본연구 선두주자

세계의 불교학자(32)

리처드 살로몬 美 워싱턴대 교수



불교학에서 필사본(筆寫本) 연구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필사본에는 불교사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가 수록돼 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요즘 보는 불교경전이나 불교에 관한 출간된 문헌들은 필사본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리처드 살로몬(Richard Salomon) 미국 워싱턴 대학 교수는 세계 불교 관계 사본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다.

리처드 솔로몬 교수는 1970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동양학으로 학사를 마치고, 1975년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산스크리트어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와 쁘라끄리뜨어 비문, 특히 간다라에서 출토된 카로쉬티 비문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언어와 문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다양한 아시아 문화와 언어로 수천 년을 이어온 불교 문헌의 풍요로움과 심오함에 심취돼 사본 연구에 몰두하게 됐다.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불교 관련 사본들은 대부분 간다라 지방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이 사본들은 △12개의 두루마리로 된 시니어 컬렉션(Senior collection) △100여 개의 작은 야자나뭇잎 단편으로 구성된 스코엔 컬렉션(Schoyen collection) △대영 도서관 컬렉션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대영도서관 컬렉션은 대영도서관이 간다라 지방에서 출토된 29개의 자작나무 껍질 뭉치로 된 사본을 수집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간다리어나, 카로쉬티 문자로 기록된 불교 사본군이 포함돼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법구경〉 등이 수록돼 있다.

살로몬 교수는 1996년부터 워싱턴대학의 아시아 언어 문학과에서 '초기불교 사본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걸고 전공교수 · 학자들과 대영도서관 컬렉션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프로젝트는 사본의 각 단편들을 재조합하고, 그것을 다시 로마나이즈 본으로 출판하는 것과, 간다라-카로쉬티어에 대한 문법서와 사전을 편찬 · 출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쳐 출판된 책은 〈간다라 지방의 고대 불교 사본(1999)〉 〈간다리어 본 꼬불소경의 연구(2000)〉 〈증일아함경류의 간다라 경전 삼본(2001)〉 〈간다리어 법구경의 신판본과 전생담 모음(2003)〉 등 9권의 책이 출판됐다.

간다라 지방은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걸쳐있는 지방을 가리킨다. 1~3세기 경에는 이 지역이 인도 불교인들의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중 하나였다.

살로몬 교수는 2007년 한국을 방문해 '경전 필사본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불교 필사본 연구자들과 좌담을 가졌다.

여기서 그는 "간다라 필사본과 간다라 불교 연구 분야가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오직 하나의 필사본만 알려져 있다가 얼마 전 최소한 수십 개의 간다리어로 된 필사본이 알려지기 시작해 연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기원 후 1~2세기에 쓰인 것도 포함돼 있는데, 불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교문헌에 심취돼 사본연구
간다라필사본 · 불교연구 몰두
빨리어 · 경전내용 많기 때문

문헌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이라고 설명했다.

살로몬 교수에 따르면 간다라에서 발견된 불경들의 상당수는 빨리어나 다른 경전들에 포함된 내용이 많음을 강조하며 필사본 연구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간다라 불교문헌을 통해서도 불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초기 한역 경전이 간다리어에서 번역됐다는 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라며 "학자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학생들이 필사본 연구를 할 수 있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작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솔로몬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인도 비명학 연구 입문(옥스퍼드 대 출판부, 1998)〉 〈간다라의 고대 불교 문서(대영도서관/워싱턴 대학, 1999)〉 〈간다리어 본 꼬뿔소 경의 연구(워싱턴 대학 출판부, 2000)〉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카로쉬티 사본 단편들(Bulletin d' etudes Indiennes 16, 1998)' 등 다수가 있다.

이나은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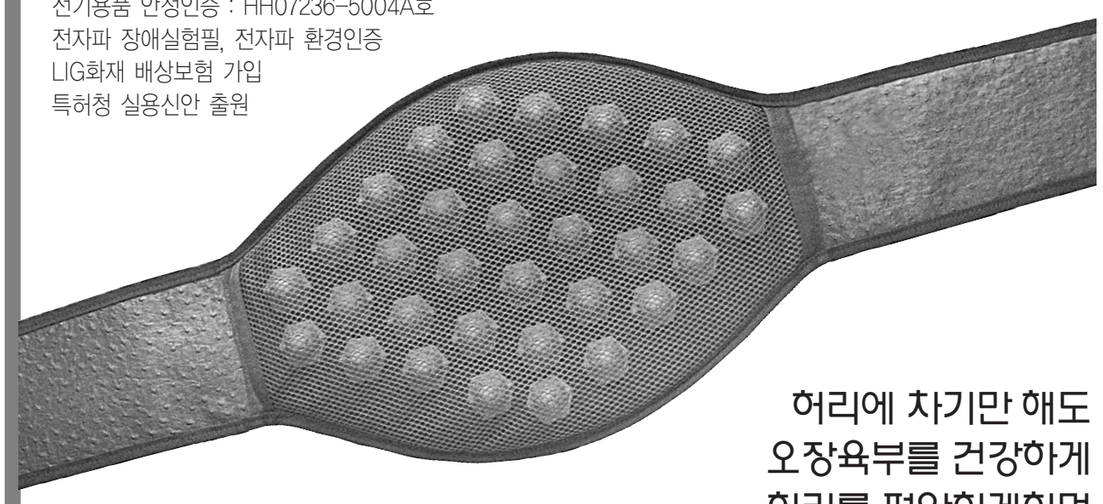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요,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성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요,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이다. - 잡아함경-

원목 고탁자

상판과 다리를 두껍게 제작하여 견고성이 탁월하며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원목 그대로의 나무결을 살려 나무 고유의 멋과 은은한 자연미를 선사합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엄선 사용하였기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GS가구의 통원목 고탁자 입니다.
모던한 거실 풍경과 어우러진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즐거움을 드립니다.

원목 고탁자는 상판만 원목이며, 통판으로 제작되어진 제품입니다.
원목 통판으로 제작되어 여름과 겨울에 원목의 수축작용으로 갈라짐이 생기는데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갈라짐 현상은 제작상의 문제가 아닌 원목(나무)의 특성상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이니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식탁, 응접실테이블,책상,아이들 공부택상, 다과상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테이블

● 가격 : 18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청도 王(반)건시

왕건시 30과 청도군 특산품 추석 선물세트

친환경 농산물로 수입저가 농산물과는 비교 하지마세요.

경북 청도군은 감이 씨가 없습니다. 간혹 씨가 있는제품이 있긴 하지만 거의 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씨가 없으니까 먹기가 편하시겠죠? 일단 드셔보시라니까요~

청도반시 꽃감으로 씨가 없고 당도가 높으며 인체에 유익한 영양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청도가 자랑하는 특산물입니다. 미주지역 수출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제품은 되도록이면 빨리 드시는게 좋구요.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 가격 : 60,000원 [계좌 : 053-01-269062 농협.(주)현대불교신문사]
● 원산지 : 경상북도 청도 ● 제조사 : 동일농산



사찰이미지 200% UP!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法 법과 果



법과활용(Application)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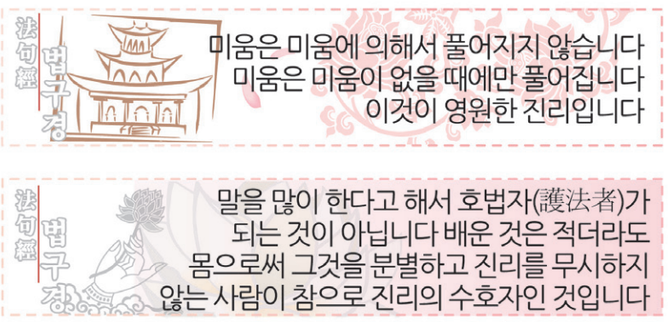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 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법과 문의
TEL : 02)2004-8216
FAX : 02) 737-0696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청학 비상서 찾은 관음보살 의미

명성황후의 십장생 병풍


명성황후가 순종의 무병장수를 기원하여 제작한 십장생 병풍 중 '청학비상'

대승불교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는 누구일까? 그분은 관세음보살님이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동양삼국인 한중일을 비롯해서 상좌부 불교까지 관세음보살은 그 존재와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티베트불교에서 관세음보살님이 흘린 눈물서 태어난 백색과 녹색의 다라관음(多羅觀音)들조차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녹색 타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백색 타라는 자비로 중생을 돌보고, 장수와 치유, 평정함을 얻게 해 준다.

그리고 한국 일본 중국 중 가장 먼저 관세음보살을 모시는 사찰을 지은 곳이 바로 낙산사다. 낙산사의 대승불교 속에서 위상은 중국의 관음성지인 절강성 영파 보제사(普濟寺)의 방장스님도 동아시아 최초 관음성지로 인정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

관음본연경(觀音本緣經)에 의하면, 옛날 남인도의 장나 장자와 마나사라 부인과에 태어난 두 형제인 조이와 동

다섯 청학 날아 오른 전설은
5천만 우리 민족 상징해 '홍미'

생 속이의 설화가 있다. 일곱 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는데, 아버지가 이웃나라로 무역을 간 사이 계모가 두 아이를 무인고도(無人孤島)에 버린다.

동생 속이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죽어가자 형인 조이는 고통을 겪으며 사는 모든 중생들을 구하는 보살이 되고자 하는 서원을 남기고 죽는다. 이렇게 조이는 다시 태어나 관세음보살이 된다. 그 조이와 속이가 죽은 섬의 이름이 보타락가산으로 백화산(白華山)과 일광산(日光山) 두 개의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양양 낙산사에는 매우 특별한 관음성전이 있다. 바로 보타전(寶陀殿)이다. 세계에서 한 곳의 성전에 가장 많은 관세음보살상을 모셔놓은 곳이 어디일까? 바로 이 보타전이다. 전각에 모셔진 모든 관음상을 다 세어 보면 전부 1539분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밀교(密教)의 영향을 받은 보살상들이긴 하지만, 7관음상(천수관음, 성관음, 십일면관음, 여의륜관음, 마두관음,준제관음, 불공견색관음), 32관음 응신상, 그리고 1500분의 좌불형의 소형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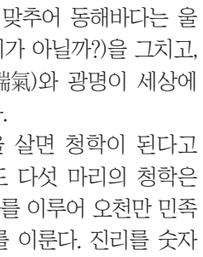
재미있는 것은 32관음을 천수관음으로 치고, 1500관음상과 곱하면, 우리 민족의 숫자와 비슷한 48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 보타전은 마근스님과 지홍스님의 원력으로 91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93년에 완공한 건물이다.

7관음이 모두 모셔진 한국최초의 관음전각이기도 하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7관음이 봉안되는 날 밤에 하늘에서 풍악소리가 울리고, 다섯 마리 청학이 하늘을 날고, 때를 맞추어 동해바다는 울음(아마 파도소리가 아닐까?)을 그치고, 무지개빛 서기(瑞氣)와 광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한다.

백학이 천년을 살면 청학이 된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다섯 마리의 청학은 5000이라는 숫자를 이루어 오천만 민족의 숫자와 일치를 이룬다. 진리를 숫자로 표현하는 법수(法數)의 관례가 있는 불교의 습속에서 보면 이런 일치는 어떤 상징을 이룬다.

여기 이 사진은 사실 명성황후 민씨가 처음 낳은 두 아들이 요절하여 죽고, 세 번째 얻은 순종황제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제작한 십장생 병풍의 한 부분이다. 구름위 태양 가까이 날고 있는 청학은 아름답고 청초하기까지 하다.

미국의 오레곤대학에 소장돼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해 용인에 있는 고창문화재연구소에서 수리를 끝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필자는 운 좋게 보타전 7관음 봉안때 비상했던 청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컷 보았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일러스트 속에 담겨진 붓다의 세계

김용덕의 '도일, 붓다를 즐기다' 展

불화는 대표적 불교예술 중 하나다. 많은 사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화는 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불교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화에 담긴 진정한 내용을 알려고 하기 보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사천왕이나 화려한 색채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일반인들은 불화를 무속화처럼 인식하는 반면 불자들은 불화를 지나치게 신성시한다"고 말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김용덕(58) 씨는 붓다의 존재를 많은 사람들이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하고 싶었다고 한다. 9월 12~18일까지 서울 종로 불일미술관에서 선보이는 '도일, 붓다를 즐기다'는 불교일러스트 작품 40여 점을 통해 불교문화를 알리고자 했다.

"불화는 오랜 세월 우리 일상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예술이자 문화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단순히 전통문화의 하나로만 대접받거나 무속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루벤스나 미켈란젤로 그림들은 종교적 내용을 담고 있어도 예술성이 높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반면, 고려불화 등은 박물관이나 교과서에 박제된 채로 남은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계명대 미술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김용덕은 홍익대 대학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상명대, 계명대, 장안대, 경원대 등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또 2000년 격월 인형전문잡지 'edolls'를 발행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 불교일러서트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는 "대학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던


부처님의 열반을 그린 '적멸'

쉽고 편하게 불교 느끼도록
일러스트 40여 작품에 표현
그림으로 불법 홍포에 힘쓸 터

시절, 학생들과 함께 수업의 일환으로 사찰 참배에 나서면 학생들의 사천와상이 무섭다고 호소해 안타까웠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을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 한 끝에 대학시절 공부한 시각디자인을 통해 일러스트 작업에 몰두하게 됐다"며 "그래서 이번 전시의 주제도 대중들이 불교를 친근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도일, 붓다를 즐기다'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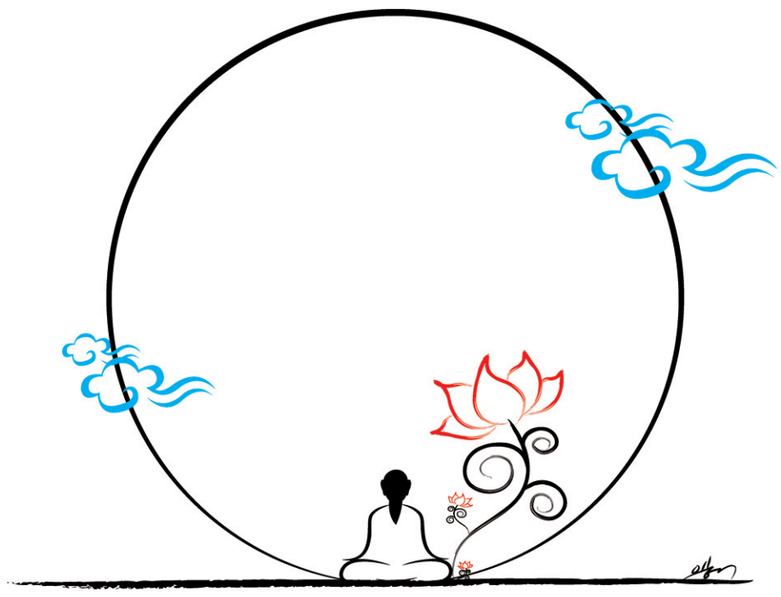
이를 위해 그는 그동안 동산불교대 법인 스님에게 불화를 배우고,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불법 홍포의 서원을 담아 작품에 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지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한 작품만 전시된다. 작품은 모두 디지털프린트로 작업했으며 단순해 보이면서도 화려한 색감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구경열반(究竟涅槃)_2'은 삼매에 든 남자 뒤로 부처님 얼굴이 등장한다.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한쪽으로 꺄우뚱하게 치우친 부처님의 얼굴을 바로 세우려는 수행자의 정진이 돋보인다.

그는 "'사람'의 받침 'ㅁ'이 둥글어지면 '사랑'이 되는 것처럼, 부처님이 꼭 정적인 자세로 굳어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이 뭣꼬 2'는 좌선을 하고 있는 승려의 머리 위로 빨간색 연꽃이 크게 핀 모습이 형상화돼 있다. 환희심을 얻은 승려의 마음을 단순명료하게 표현했다.

김 씨는 "불교와 불교문화는 무속적인 것이 아닌 높은 정신세계에 기반을 둔 가치 있는 것것이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작품을 통해 널리 전하고 싶다. 또한 전시를 마친 뒤 작품을 디자인제품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733-5322


김용덕의 '도일, 붓다를 즐기다' 전이 9월 12~18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작품은 김용덕의 '이뭐꼬4'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마음공부서 찾은 여유의 미학

이윤진 작가 '쉬어가기' 展

종이에 검은 먹을 찍어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은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뭉쳐 하나의 존재가 되고 또다른 경계를 만든다. 점을 찍는 행위 그대로 작가가 스스로 인식하는 존재감이며 그 인식들은 다시 '감정덩어리'가 되었다.

동양화가 이윤진의 '쉬어가기' 展이 9월 16일까지 스페이스선+에서 열린다. 작가는 마음 들여다보기를 통해 인간을 탐구하고 더 나아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열망을 작품으로 보여준다. 주제로 선택한 '감정덩어리' '섬' '나라' 시리즈는 자신이 보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과 보고 싶은 것과 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모아 작업으로 표출했다. 그리고 이것은 '쉬어가기'라는 역설적 제목으로 쉬어 지지 않는 생의 움직임을 오롯히 묘사하고 있다.

'감정덩어리' 시리즈에서는 점과 선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들이 모여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 이는 특정한 감정을 전달하고자 강요하는 것이 아닌 보는

감정덩어리·섬·나라 등 소재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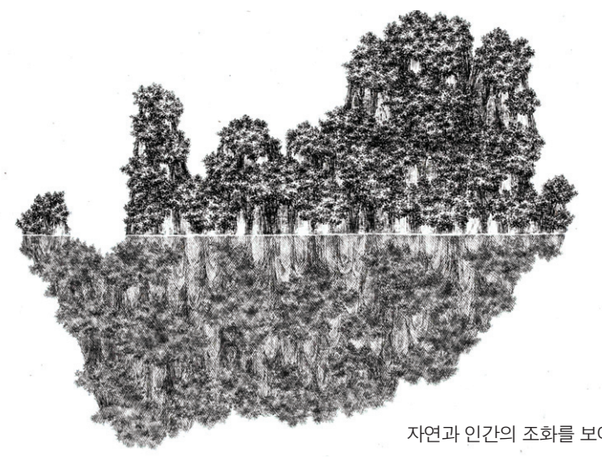
이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요소들만 전달하고자 했다.

'섬' 시리즈는 객체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다. 실재와 허구,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이 작업들은 감정 덩어리의 형상을 가지고 상반된 혹은 같은 공간의 개념을 표현하고자 했다.

'나라' 시리즈는 크지 않은 드로잉 연작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모양과 프랑스, 중국, 이라크, 캐나다 등 세계 국경의 모습을 아웃라인으로 표현했다.

'나의 마음 들여다보기'로부터 시작된 작가의 작업들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보여준다.

또 산업화와 물질주의로 얼룩진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한걸음 물러나, 자연과 유기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쉬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02)732-0732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보여준 '休'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비결 풍수총론
현,불교TV에서 풍수학 강의 중
동방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저자 : 耳山 張 泰 相
정가 : 40,000원



국민의 부와 국가의 부를 정의 내린다
저자 : 아이크 정
안형렬 공저
정가 : 15,000원



불교 경전의 극치 무구정광 대다라니
無垢淨光大陀羅尼經
寒照 辛 興 植 謹譯
정가 : 10,000원

30년 전통의 제조명가에서 제조하는 수공예 불교 은제품
건강과 믿음을 위한 여러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도서 및 쥬얼리 은제품 구매문의 : (주)한메소프트 02)879-2007
입금계좌 : 신한(100-023-357023) 농협(1281-17-003433)
예금주 : (주)한메소프트
인터넷 상품구매 : 칠성상회 http://shop.7-star.net 에서 해당 상품 검색 후 구매 가능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322호 (주)한메소프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이 오 칼 라 지 붕 공 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

욕망 향해 질주하는 인간 허상 조명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첫 작품 '꿈'

삼국유사 속 원효와 의상, 소설 〈꿈〉을 쓰는 춘원 이광수, 그리고 〈꿈〉 속의 조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한무대에 오른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연극 '꿈'(작 김명화 · 연출 최용훈)이 9월 1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펼쳐진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춘원 이광수는 친일분자라는 비판을 받고 불안과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

독립운동 하던 과거의 자신과 변절자가 되어 세상을 피해 숨어있는 현재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날 낙산사 관음보살을 배경으로 뜰에서 마당을 쓰는 조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춘원은 삼국유사의 조신지몽을 소재로 작품을 써나가며 조신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소설이 점점 절정에 오를수록 춘원은 조신의 내면을 보게 된다. 욕망에 순응한 춘원과 조신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다.

연극 '꿈'은 욕망과 금기사이에서 방황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 국가 양심을 넘어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행동한다. 원효 스님은 욕망에 따라 요석공주와 선을 넘었고,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사랑하여 파계하고 결혼을 선택했으며, 월례는 결혼 전 조신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고, 이광수는 '2.8 독립선언문'에 참여했으나 결국 친일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욕망의 실현 뒤에 따르는 것은 고뇌와 번민뿐이다. '꿈'은 욕망대로 행동한 인간을 통해 성과 속, 선행과 악행이라는 상반된 가치 속 인간 깨달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꿈'은 삼국유사 속 이야기를 기본으로 여기에 식민지 시대의 이야기를 더하며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낸다. 또한 신라와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신화적 상상력과 역사 고증을 통해 두 시대를 절묘하게 매치시킨다. 삼국유사 이야기 속의 인물과 '꿈'을 소재로 소설을 쓴 소설가 이광수와 최남선을 등장시켜 신라와 식민지 시대의 공통적 연관성을 만들어내며, 역사를 통해 현대 한국사를 날카롭게 투영한다. 또 한편으로는 순결한 청년 춘원이 노년의 춘원에게 칼을 겨누게 함으로써 논쟁적 인물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열어둔다.

이번 무대에는 연극배우로 절정을 맞은 배우 강신일, 남명렬이 출연한다. 연륜이 더할수록 압도하는 무대 장악력을 선보이는 두 배우가 같은 무대, 그것도 친구로 출연하는 일은 앞으로 드문 일이 될 것 같다. 또한 '돐날' 등의 히트작을 통해 오랜 콤비웍을 자랑하는 최용훈 연출과 김명화 작가의 만남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1688-596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립극단의 '삼국유사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연극 '꿈'(작 김명화 · 연출 최용훈)이 16일까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에서 펼쳐진다. 공연은 삼국유사 속 원효와 의상 스님, 소설 〈꿈〉을 쓰는 춘원 이광수, 그리고 〈꿈〉 속의 조신이 시공간을 초월해 한무대에 오른다.

춘원 · 조신 · 원효 스님 통해
욕망과 금기 사이 방황 그려내
16일까지 백성희장민호극장

"브로드웨이 넘을 뮤지컬 기대"

자승 스님, 쌍화별곡 연습 현장 격려 방문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9월 3일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의 진한 우정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쌍화별곡'의 연습 현장을 찾았다. 이날 자승 스님은 임시 관람석에서 하이라이트 시연 장면을 지켜봤고, 웃음 박수로 배우들을 격려했다.

시연 후 자승 스님은 "뮤지컬 '원효'보다 안무, 노래가 더 좋은 것 같다"며 "배우들의 연기가 자신감이 넘치고 장악력이 있다. 브로드웨이를 뛰어넘을 공연이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서울 공연이 짧은 만큼 많은 불자들이 찾아왔으면 한다. 총무원도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쌍화별곡'은 오는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오는 11월 7일 중국 심천 보리극원에서도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3일 '쌍화별곡' 연습 현장을 방문 출연진들을 격려했다.

동국미술인 작품 한 자리에

9월 18일까지 경인미술관서

연등회 중요무형문화재 등재 기념을 위한 제10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이 열린다. '마음의 등불'전이 9월 12~18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 1관에서 열린다.

동국불교미술인회는 "동국불교미술인회는 지난 19년 동안 회화, 단청, 조각, 공예 등의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또한 격년제로 정기 회원전을 개최하며 우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왔다. 이번 10회 회원전은 우리 불교의 전통 축제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지정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된 행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시 참여 작가로는 ▷회화 · 단청에 양용호(서울시 무형문화재 단청장), 전연호(일섭문도회 회장), 이연욱(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 이수자) 외 8명의 회원과 ▷조각에 허길량(중요무형문화재 108호 목조각장 인정), 이재순(중요무형문화재 120호 석장), 송근영(대한민국전통문화재조각회 회장) 외 6명의 회원 ▷공예분야에 심용식(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6호 소목장), 김영희(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옥석장), 소병진(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주장) 등 다양한 불교미술 분야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24명의 회원이 참여한다.

정혜숙 기자



서칠교 作 '수하항마'

재즈와 함께하는 산사의 가을밤

구미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개최

경북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에서는 아도다례제를 기념하고 불교의 멋을 전하고자 제 10회째 '솔바람음악회'를 개최한다. 9월 15일 태조산 도리사 경내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회는 사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음악회에는 매혹적인 재즈보컬리스트 '웅산', 첼리스트 '이상희', 색소폰리스트 '김영찬'과 더재즈오케스트라(The Jazz Orchestra)의 감미로운 재즈콘서트가 산사를 찾는다. 프로그램은 ▷더 재즈오케스트라의 환상적인 재즈 콘서트 ▷매혹적인 재즈보컬리스트 '웅산'과 함께하는 재즈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재즈 가수 웅산과 함께하는 구미 도리사 솔바람 음악회

불교적 글쓰기로 창작의 기쁨 되찾아

불교문학창작교육원 현장

"25년 전 주부백일장, 마로니에백일장 등에서 장원을 받을 만큼 글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작가로 데뷔하고 싶었지만 시부모님 봉양하며 사느라 뜻을 펼치지 못했죠. 그러면서 삶에 회의를 느꼈고 우울증이 왔어요. 그때 화계사에서 5년 넘게 경전공부를 하며 제 자신을 찾았죠. 그리고 이렇게 불교적 시각으로 글쓰기를 배우며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창작교육원 1기생 마손숙 보살

9월 4일 종로구 낙원동에 위치한 불교문학창작교육원(Buddhist Author Training Institute, 이하 BATI)에서는 장기오 PD의 드라마 강의가 한창이었다. 캐릭터 설정, 플롯의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전국에서 모여든 수강생들은 온 몸과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

남지심 원장은 "문학은 불교 속에서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문학이라는 방편을 통해 그 진리를 다양하게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장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강좌를 진행하며 불교문학에 목말라하는 작가 지망생들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절반 이상이 지방에서 온 학생들인데 결석도 한 번 없이 너무 열심히 배우고 있죠. 그저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기오 PD의 드라마 강의 장면

작가 지망생 창작 열기 뜨거워
교수, 전직PD 등 우수 강사진 포진
24일까지 2기 수강생 모집

BATI는 도제시스템을 적용 후배작가 양성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3단계 18개월 교육 과정을 통해 내부 작가 인증서를 수여한다.

전연순 수강생은 "불자로서 늘 불교 문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기관이 없어 망설였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 글쓰기 공부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며 소감을 전한다.

이제 BATI는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24일 개강을 앞둔 BATI는 소설, 동화, 수필, 시, 드라마, 방송구성작가 지망생들을 모집한다.

주 1회 6개월 총 24회와 1회의 평가로 구성되며 18개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열정 있는 작가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강좌에는 ▷김재영 동방대교수 '부처님 생애' ▷남지심 작가의 소설 및 동화 반 강의 ▷장기오 前 KBS PD의 방송드라마및 구성 강의 ▷장영우 동국대 문창과 교수의 소설 강독 및 작품 분석 강의 ▷정찬주 작가의 소설 동화 반 강의 ▷천양희 시인의 '시 수필 강의'가 진행된다.

(070)8880-8202 **정혜숙 기자**

민추본 미디어콘텐츠 공모

10월 5일 접수 마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2012 상생과 공존을 위한 '평화통일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응모작은 '상생과 공존'을 위해 평화통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팀별 응모도 가능하다.

응모 분야는 UCC영상, 홍보이미지이며 접수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출품규격은 영상 해상도 720×480, 1280×720 이상, 파일형식 wmv, avi, mp4 등 재생가능한 영상이다. 이미지 해상도 300dpi 이상, 크기는 A4이상 규격이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원본파일 제출 가능하다. 접수는 이메일peacecontest2012@gmail.com 접수하며 응모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통일부장관상) 1명에게는 상금 70만원, 우수상(현대아산 대표이사상) 2명에게는 상금 50만원, 장려상 5명 상금 20만원, 참가상 10명에게는 부상이 주어진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15일이며 시상 및 전시는 1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갤러리 '나무'에서 진행된다.

신비의 섬 울릉송담복지타운과
함께 할 가족을 모십니다

요양보호사 00명 · 간호사 0명 · 물리치료사 0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격증
☎ 문의 054)971-8730 / FAX 054)971-0355
또는 메일 lotus0203@hanmail.net
숙식 제공 1인 1실. 급여 사회복지시설기준법에 준함

사회복지법인 迎佛院 울릉송담복지타운 산하시설

▷ 송담실버타운(노인요양원)
▷ 송담재가복지센터
▷ 다문화센터
▷ 재가노인복지센터
▷ 요양보호사 교육원
▷ 울릉신문사
▷ 울릉.독도 인터넷 뉴스

■ 울릉도 여행시 조계종스님 숙박 무료제공 해 드립니다.
(복지타운 내 별관)
☎ 문의 054)971-8730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광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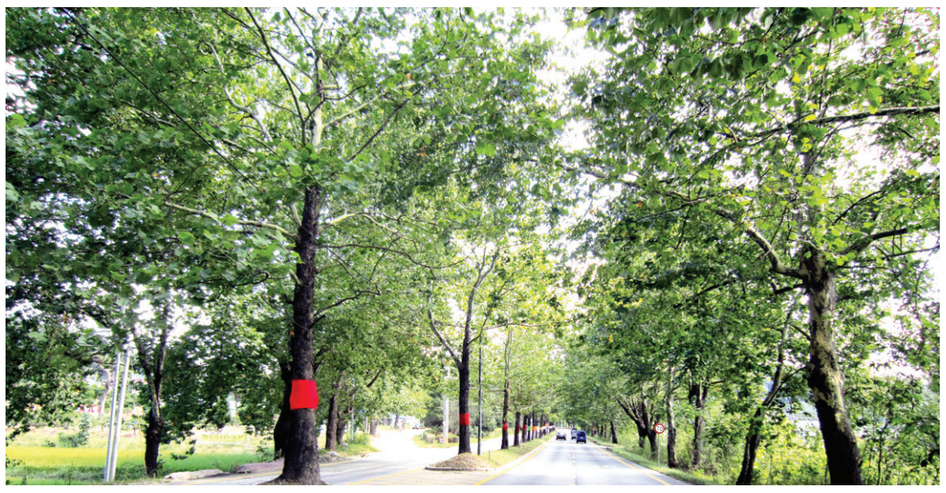
말 없는 숲이 간직한 이야기들



숲에는 갈등이 없다
이우상 지음
아름다운 인연 펴냄
1만4천8백원

"현대 불교사의 큰 스승 성철 스님은 열반송에서, 당신이 이승에서 지은 죄업이 수미산에 넘친다고 했다.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이고 억지를 부린 일을 큰 죄업이라 여겨 참회한 것이다. 나무도 수명을 다하면 고사목이 된다. 지반의 영양부족, 기후변화, 태풍, 낙뢰, 해충의 침입 등에 의해 고사목이 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에 의한 벌채도 원인이다. 나무는 태어난 자리에서 수백 년, 천여 세월과 풍파를 온몸으로 맞다가 열반송 한 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열반한다. 고사목을 보면 숙연해진다. 번뇌의 흔적인 양 잎사귀와 껍질을 서서히 벗고 앙상한 등뼈만으로 여전히 꼿꼿이 서 있다. 매장, 화장, 조장도 아닌 비바람에 몸을 맡긴 채 선 채로 적멸을 향해 간다." 책은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와 식물에 얽힌 이야기 모음이다.

1부 '이야기 숲'에서는 나무에 얽힌 전설이나 에피소드를 담았다. 고사목, 싸리나무, 불두화, 달맞이꽃, 산벚나무…. 숲 속의 이야기가 숲을 이룬다. "싸리나무는 과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나무였다. 사립문은 사리로 엮어 만든 문이다. 나지막하게, 경계하지 않게 만든 문이다. 거부가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된다." 조선 숙종 때다. 어사 박문수는 암행 중에 첩첩산중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들어간 초가집에서 처음 본 여인이게 회초리로 매를 맞는다. "여보시



플라타너스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천재'라는 나무 말이 있으며, 꽃말은 '용서와 휴식'이다.

오, 선비님! 일어나 앉으시오. 사정이 딱해서 재워드린 것인데 얌전하게 잠이나 자고 갈 것이지, 선비의 체통과 삼강오륜을 져버리고 유부녀를 농락하려 들다니!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니 냉큼 밖에 나가 싸리회초리를 해오시오!" 싸리나무 회초리로 매를 맞아 본 사람은 안다. 회초리의 위엄과 효과를. 예전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선생님과 부모는 회초리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 아이들은 사립문을 나서서 자신이 지은 잘못을 생각하며 알맞은 굵기의 싸리가지를 꺾어갔다. 물론 가늘고 약한 걸로 꺾어갔다. 그러나 훈육의 효과는 거기서 성공했고, 끝났다. '회초리'의 이유와 가치는 그랬다. 그 회초리는 다름 아닌 우리 곁에 흔하게 있었던 싸리나무였던 것이다. 책이 이야기 하는 '숲'은 단순히 숲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 꽃, 식물은 저마다의 의미와 사연을 갖

'갈등'의 어원은 숲
정작 숲에는 갈등 없어

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2부 '나를 비우는 숲'과 3부 '아낌없는 숲'에서는 현대사회의 세태에 대한 시각을 나무와 숲 식물을 통해 바라보고, 나무와 숲이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간은 나무와 숲을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한다.

'갈등(葛藤)'은 한자어 그대로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이다.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 자라는 특성이 있다. 정확하게 관찰해보면 칡 줄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즉 '갈'은 '등'을 감고, '등'은 '갈'을 감아올린다. 이처럼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까다롭게 뒤엉켜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갈등'이다. 따라서 두 식물은 아무리 길게 뻗어 가도 화합해 만날 수가 없다. '갈등'의 어원은 이 같이 두 나무줄기의 속성에서 비롯됐다. 칡과 등나무가 서로 까다롭게 얽혀 있으면 그 둘을 떼어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한 이유에서 '갈등'은 일이나 인간관계가 까다롭게 뒤얽혀 어려운 상태 또는 개인의 내부에서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책 제목에 걸린 '갈등'은 숲에서 온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 생태의 가치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의 잘못된 세태를 꼬집으면서 숲과 갈등을 얘기한다. 나무와 식물은 제각각의 인간을, 숲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내포한다. 저자의 말처럼 숲이든 인간 세상이든 갈등은 무서운 존재다. 무리를 해체시키고, 개인을 파괴한다. 하지만 정작 숲에는 갈등이 얽혀 자라지 않는다. 이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다. 갈등은 개개인의 욕망이나 욕구에서 시작한다. 인간의 이기심, 시기심에서 갈등이 싹튼다. 정작 '갈등'의 어원인 숲에는 갈등이 없는데 말이다. 저자는 나무와 식물들이 얽혀 사는 숲속 이야기를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을 찾아내고 관찰했다. 생생한 사진 자료를 첨부해 이해를 돕고 있다. 숲과 어울린 사진을 비롯하여 근접 촬영한 사진 등 책에 수록된 나무의 모든 사진을 보면 실제로 나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다. 기품과 품위가 넘치는 나무의 위상을 세밀히 관찰하여 사진에 담았다. 책을 펼치면 다양한 나무와 꽃, 식물들로 어우러진 숲을 걷게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투자'

회전목마 위의 서민경제

아이크 정 · 안형렬 지음 | 한메소프트 펴냄 | 1만5천원



미국 '월가'를 비판하며 한국 경제를 돌아본 교양 경제학이다. 무지막지한 경쟁에 내몰린 서민경제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서 이 책은 간단한 처방전을 내려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국가를 치유하는 비책을 제시한다.

세상은 점점 더 글로벌화 되고 개인화 되는 추세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유가와 금 시세 및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 경제와 비즈니스의 중심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져가고 뉴욕증권거래소의 시황이 국내 증권가의 개미군단들에게도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계는 이처럼 자연의 생태계처럼 돌아간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의 커다란 먹이사슬로 엮여 복잡하게 연계되어 살아 숨 쉬는 세상이다. 요즘의 한국 경제는 초저이자율 시대, 서민물가는 하늘 모르게 치솟고 있다. 부모들은 부동산 및 펀드에 열광하고, 자식들은 취업난에 시달리고, 계층 간의 갈등은 더욱 더 깊어가고 있다. 두 저자는 "정신 못 차리면 한국경제의 몰락은 시간문제다"고 말한다. 책은 한국 경제가 상대해야 하는 국가와 집단들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지금부터 우리 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고 향상되어, 홍수처럼 밀려드는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지 않고, 보다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 아이크 정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국제금융인으로, 한국의 대기업 종합상사를 시작으로, 엔지니어링회사, 무역회사 및 화학회사를 운영했다.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중공업분야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인수 합병, 주식시장 상장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자 안형렬(安炯烈)은 한메소프트에서 재직하면서 IT분야의 영업, 마케팅, 유통 및 다방면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하여 벤처경영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창업경제신문 투데이의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서 10여 년째 전문벤처창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두 저자는 책을 통해 경제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삶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 한다. 더하여, 요즘 한국사회의 키워드는 단연코, 복지이자 반재벌로 상징되는 경제 자유주의인 요즘, 두 저자의 재벌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참으로 탁월해 보인다. 부자를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 칭하는 것을 거부하는 두 저자는 이런 사고의 차이가 정책이 출발하는 시발점이 되다보니 사회적인 불균형을 바로잡기 힘들다고 말한다. 역으로 부자를 돕는 것을 사회적인 비용이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도발적인 요구를 한다. 이렇듯 책은 시민을 위한 지침서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9~9/4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4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5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6	산사는 깊다	지안	불광출판사
7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 속 불교용어	방경일	운주사
8	자기치유(YOUNG OLD와 함께하는 몸과 마음 이야기)	조순희	정우서적
9	마음을 천천히 쓰는 법	주경	마음의숲
10	마음 닦기 일곱 가지 핵심 비결	달고 켄쩨 린포체	여래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청소년의 '우울' 함께 극복하기

우울을 넘어서

LISA M. SCHAB 지음 | 고진하 · 인경 스님 옮김
명상상담연구원 펴냄



청소년 상담사 등을 위한 〈위기의 청소년을 돕는 워크북〉 제4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우울 극복' 워크북이다. 우울감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장기간이거나 단기간이거나, 유전적이거나 상황별이거나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도움이 될 만한 연습을 소개하고 있다. 우울을 극복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그를 잘 다루어나가도록 인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우울을 경험하지만,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엄청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변화는 청소년들이 혼란스러운 느낌과 슬픔에 더 쉽게 감염되게 만든다. 즉 우울에 감염되기 쉬워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담사나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일상생활을 점검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우울을 다루는 법을 배워서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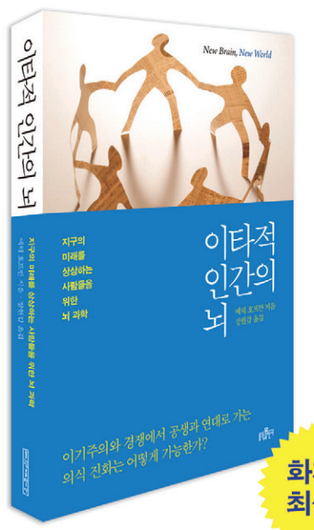
책에서 소개하는 연습은 다른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거나 우울증 약을 먹어도 된다. 우울감을 다루는 것은 수업을 받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한다. 책은 청소년들의 우울을 진단하고 우울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제각각 다르고,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치유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내는 일은 독자의 몫이다. 저자는 "이 책으로 작업해 나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발 끈을 묶는 법이나 읽기, 쓰기를 배워온 것처럼 우울을 다루는 법도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우울에 대해 많이 이해할수록 극복하는 방법도 더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기분을 다루거나 없애버리는 것도 쉬워진다고 말한다. 책에 실린 연습활동들이 도움을 줄 것이다. 책은 총 40개의 활동을 통해 우울을 넘어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영적 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문제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힘든 상황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영적 힘이 평화와 힘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10, 종교적 믿음에서 도움받기'에서는 자신이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울감을 줄이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정신적으로 의지하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 기도나 명상을 통해 걱정 덜기 등'이다. 40개의 각 '활동'에는 '활동하기' 코너와 '한 걸음 더' 코너를 만들어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위기의 청소년을 돕는 워크북' 시리즈를 펴낸 명상상담연구원은 청소년의 우울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명상과 영성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270자 안에 든 공(空)의 도리를
유가와 도가의 핵심 사상까지 아울러
세상에 던지고 홀연히 사라졌던
무구자 도인 !
그리고
우리 시대 최고의 선승 중 한 명인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 !
한암대원 선사 강설
456면 | 22,000원
무구자 도인 주해
반야심경

송계도인松溪道人 무구자無垢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홀연히 나타나서 무엇인가 외우곤 하는데 어느 스님이 들어 보니 어떤 것은 알아듣겠고 어느 부분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야심경』을 주해註解한 것입니다. 인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희귀한 것이니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받아 훑어보니 좋은 말씀이어서 속장경續藏經에 실었다고 합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지구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을 위한
뇌 과학
이타적 인간의 뇌
에릭 호프만 지음
장현갑 옮김
272면 | 15,000원
화제의 최신간
현대 문명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뇌의 위기다!
생태계 파괴, 빈부격차 확대, 공격적 성향의 극대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인간의 이기주의에서 왔다고 진단한 저자는
우리 뇌에서 희망의 근거를 발견했다.
좌반구와 우반구의 균형이 회복되고 전두엽이 고도로 활성화되면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뇌와 인간 의식, 그리고 세계의 관계에 관한 40년 연구를 총망라한 이 책에는,
지구를 사랑하는 한 가슴 뜨거운 과학자의 열정이 녹아 있다.

"자비심 일어날 때 관세음보살 화현"



성운대사의 관세음보살 이야기

성운대사 지음
운주사 펴냄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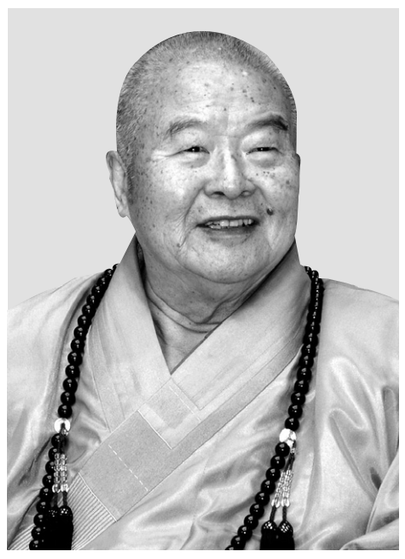
대승불교에는 그 이름만 들어도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평안함을 주는 존재가 있다. '관세음보살'이 바로 그 분이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인가? 이 책은 바로 어릴 적부터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 후 오랜 세월동안 관음기도를 해 온 대만 불광산사 성운대사가 관세음보살 신앙과 이론적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 놓은 책이다. 관세음보살은 누구이고, 어디에 계시는지, 또 그 분을 알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준다.

70여년간 승려생활을 해 온 저자는 결론을 내린다. 관세음보살은 우리들 모든 마음속에 존재하며, 자기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라고. 관세음보살의 자애로운 눈빛으로 중생 바라보기를 따라 배우고, 관세음보살의 신묘한 지혜와 힘을 갖게 됐을 때, 인간 세상의 원만한 진리가 바로 우리 마음, 두 눈, 두 손과 두 발끝에서 이미 우리와 하나돼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크게 이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제1부는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현묘한 지혜'에서 관세음보살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 때론 이론적으로, 때론 경전과 고사, 영험담을 들어 현대적 시각에서 설명한다. 특히 관세음보살과 직접 인연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음은 당신 집에 있다'는 항목을 통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임을 깨닫게 해준다.

중생을 보살도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유용

경험담 통해 관세음보살 재해석
'관음법문' …중생에게는 유용한 수행
"누구나 계율 지키면 관음력 얻어"



한 수행으로서 '관음법문'을 대비참법, 이근원통, 〈보문품〉독송, 관음기도 등의 수행법을 통해 소개한다.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일심으로 염불하면 해탈한다'는 간절한 믿음과 정성이다. 아울러 이러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관음력'에 대한 저자의 설명도 흥미롭다. 관세음보살의 큰 신통력은 무엇보다 중생을 자식으로 생각하는 자비심에서 나오며, 누구나 자비에 의지하고 청정한 계율을 지키며 인내하고 평상심을 활용하면 관음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아울러 모든 불자들이 관음력을 길러 인간정토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 2부 '관세음보살보문품강화'에서는 성운대사가 모리시타 다이엔이 쓴 〈보문품〉 해설을 젊은 시절에 번역하면서 자신의 체험을 덧붙여 알기 쉽게 편역한 것을 싣고 있다. 따라서 제 2부는 〈보문품〉에 대한 온전한 경전 해설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

마지막 부록으로 첨부된 '관세음보살과 불광인의 인연이야기'에서는 불광산 사부대중들이 직접 체험하고 겪은 관세음보살의 영험기를 수록하고 있다. 재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관세음보살에게 기도함으로써 그 자비와 가피를 받은 사연들이 수록돼 있는데, 마치 〈보문품〉에서 설한 경전 내용을 현실 속에서 증명이나 하는 듯, 하나같이 고개가 끄덕여지고 감동을 준다.

이렇듯 이 책은 관세음보살의 존재와 관음신앙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의미, 다양한 실천수행법과 영험담까지 제시함으로써 관세음보살에 대한 종합적 안내서 역할을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관세음보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성운대사는?

1927년 중국 강소성 강도서 태어나 12세에 지개 스님을 스승으로 출가했다. 1947년 초산불학원을 졸업하고, 백탑초등학교 교장, 남경 화장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1949년에 대만으로 건너간 이후로 '대만불교강습회' 교무주임과 의란 염불회 지도 법사 등을 역임했다. 1967년에는 고웅(高雄)에 불광산을 창건해 불교와 세상을 아우르는 '인간불교' 사상을 추진해 옴으로써 현대화된 불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출가 후 70여 년 동안 불광산을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 200여 개의 도량을 세웠고, 수많은 강원과 도서관, 대학, 병원, 사회사업기구 등을 설립했다. 세계 각지로부터 출가한 제자가 1천여 명, 전 세계에 분포하는 국제불광협회 신도수가 수백만 명에 이른다.

정화 상징 '물'과 만남이 '카르마'

카르마의 바다

문정희 지음 | 문예중앙 펴냄 | 8천원





시인 문정희 〈사진〉는 지난해 가을과 겨울을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보냈다. 선망의 여행지 베네치아였지만 종일 발밑에서 찰싹이는 물은 문정희를 비감(悲感)으로 떼밀었다.

그 곳에서 떠올려진 시상들은 곧바로 시가 되었다. 그 것들을 묶은 새 시집이 바로 이번에 출간된 〈카르마의 바다〉이다.

모든 길이 물로써 시작되어 물로써 이르고 모든 바닥이 물로 출렁이고 모든 끝이 물에 닿는 도시에서, 시인의 '물에 대한 감각'은 극대화되었다. 오랫동안 생명력과 정화의 상징으로써 물의 언어를 구사해오던 시인은, 이 시집에 이르러 마침내 그 언어의 정점에 이르렀다. 먼 이국에서 온 시인에게 베네치아의 물은 사랑을 이야기했고, 형벌처럼 고독을 내리기도 했고, 상처를 치유하는 정화수가 되어주기도 했다. 이 모든 물과의 만남을 시인은 '카르마'로 받아들인다.

지구를 덮고 사람의 몸속을 흐르고 눈물로 배어 나오는 물은 그 자체로 생명이다. 거기에는 비감이 가득하다.

"많은 바다를 건넜지만 눈물을 다 건너지는 못했다…나는 모르겠다/나는 아직도 눈물을 건너고 있다"(소금꽃중에서)

관념을 떠돌기 쉬운 생명의 물은 시인의 시에서 눈물과 진흙탕 같은 구체적 사물로 단단히 서 있다.

"물이라는 건 생명이죠. 정화하고 갱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관념적이고 실감이 없어요. 베네치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문학은 관념이어서는 안 돼요. 구체여야지."

홀로 생명과 벌이는 사투와 그 속의 비감은 처절하다. 시인에게 '발로 뭉개면 더욱 꿈틀거리는 찬란한 절규!'의 지렁이와 '바르르 입술 떨며 푸른 살로 일어서는 맨살의 아우성!'의 질경이가 어머니다.

문 시인은 "삶의 본질은 상처죠. 그렇지만 소외받고 고통받았고 가난한 게 상처가 아니에요. 해가 가고 나이가 들고 혼자 시소를 타면서 건너편에 어둠이 타고 있을 때 느끼는 것이 비감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어요."라고 설명한다.

1부 '살결'에서는 극한의 고독과 생의 비애, 사랑의 뜨거움을 노래한 시들을 묶었다. 가눌 길 없는 슬픔("얼마를 더 가야 하는 것일까/한없이 무거운 슬픔의 무게를", 「시이소오」)과 대작하고, 사랑에 온몸을 던지고("나는 한 번도 사랑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씨앗처럼 온몸을 던질 뿐이다/그때마다 불꽃일 뿐이다", 「날벌레의 시」), 유리 같은 존재를 들여다본다("망원경이 되어 별자리를 바라보고/하늘 중에서도 깊은 하늘을 향해하다/그만 깨지고 마는 유리를 닮은/내 사랑은 어찌하여 이리도 슬픈 두께여야 하는가", 「유리 이야기」)

2부 '물결'에서는 물방울 하나에서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시인이 스스로 물의 몸이 되어 쓴 시들을 엮었다. 바다 앞에서 시인은 안으로 또 안으로 사유한다("해골과 남루와 유랑의 불빛 출렁이는/밤바다를 생포하면 알 수 있을까//지옥보다 외로운/내 안의 내가 보일까", 「짐승 바다」). 또 바다는 시인의 눈물을 받아

'물' 주제시 66편 신어
'물'은 모든 상처 치유해줘

주고("내가 운다/바다 앞에 서서//나는 힘과 계산 따위를 잘 모른다/오직 눈물을 알 뿐이다//슬픔의 발원지에서 솟아나는/흐름을 알 뿐이다", 「내가 운다」), 시를 써나갈 원동력을 준다("어디든 솟는 물은 나의 잉크, 출렁이는 상처, 으르렁거리는 표범이니/생애의 양식 충분하다/유배가 풀리더라도/결코 아는 길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물의 초대」).

3부 '숨결'의 시들은 시인이 삶에 던지는 물음표와 느낌표와 마침표이다("이곳은 어디인가/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바람처럼 가벼운 질문뿐인가", 「질문」). 시인과 세계 사이, 이심전심의 순간을 노래하고 있다("깃털과 별과/나 사이/통역이 필요없다//그 의미를 묻지 않아도/서로 다 알아들었으니까", 「통역」).

이번 시집에는 이렇게 66편의 시와 함께 시인이 직접 베네치아 체류 중에 직접 촬영한 사진 7컷이 담겨 있다.

김주일 기자

일상 깨달음 그림일기 형식으로 묶어

당신을 바라봅니다

희상 스님 지음 | 담앤북스 펴냄 | 1만5천원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많이 길들여졌다. 그러나 미술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이 많다. '저게 뭘까?' '왜 그랬을까?' 등등. 그럴 때, '이게 뭐야?' 하는 물음을 일으키는 눈과 느낌과 생각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심이며, 기본이 된다."

몇 년전 서울 불일미술관서 '고무신' 설치작품전을 연 희상 스님이 최근에 책을 냈다. 그동안 꾸준히 그려온 그림과 전시회 때의 고무신 작품들에다 한 호흡 쉬어가게 하는 짧은 글을 담은 〈당신을 바라봅니다〉이다.

아침에 일어나 무심히 호미를 들고 나가는 농부처럼 예술 작업을 하는 희상 스님은 미술 활동을 통해 부처님 사상을 표현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현대 미술을 많이 어려워한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많이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술에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작품들이 많다.

희상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이야기를 어떻게 하여 예술에 좀 더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플라톤이 이야기한 감각적 요소가 최대로 떨어져 나간형태에 있어서만이 감각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처럼 예술과 종교의 본질 추구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엮었다.

많이 이야기들이 함께하는 이들과 일상의 모습들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읽기도 쉽고 한 걸음 쉬어 갈 수 있는 여유를 제시해 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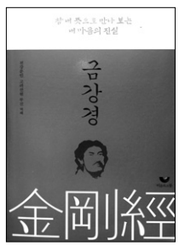
희상 스님은 경북 청도 운문사 운문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 미술학과를 나온 뒤 독일로 건너가 브레멘 국립조형예술대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했다. 독일에서 8년동안 회화, 설치 작업을 해왔다.

김주일 기자

재가자가 한글로 쉽게 풀이한 〈금강경〉

내 마음의 진실 금강경

무진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3만3천원



'참 내 뜻으로 만나보는' 〈내 마음의 진실 금강경〉은 시중에 나온 수많은 금강경 해설서 가운데 하나지만, 보기 드문 책이다. 그 이유는 이 책 저자가 스님이나 불교학자가 아닌 재가 선(禪) 수행자로서 "이뭣고?" 화두를 깨친 거사(居士)인데다, 기존 한문 금강경을 전문불교용어가 아닌 일반적 한국어로 쉽게 풀이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이다.

6대 선지식으로부터 인가 받은 당대 대선사인 전강(田岡, 1898~1975) 선사 문인(門人)으로서 40여년 참선한 깨달음의 안목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핵심적 뜻의 흐름으로서, 또는 육조혜능선사의 돈오선(頓悟禪)의 뜻으로, 또는 당신의 구체적인 수행체험을 근거로 자상한 도움말을 주고 있다.

저자인 안산 고려선원장 무진 거사는 이 책의 발행을 계기로 몰록(찰나에 몽땅) 깨닫는 돈오선(조사선이 되살아나서 나날이 침체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풍토가 되살아나기를 발원하고 있다.

어렵고 복잡해서 출가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선(禪)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당장 깨달을 수 있는 언하대오(말끝에 단박 깨침)의 가풍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평생을 수행해도 깨닫기는커녕, 온갖 선병으로 고통 받거나 깨닫지 못한 좌절감으로 참선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화두선(간화선) 수행자들이나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나도 지금 당장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단비와 같은 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는 "2년 동안 조계종 기본경전인 〈금강경〉의 정확한 우리말 번역을 위해 수행정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좀더 많은 불자들이 이 경전을 접해 수행하는데 큰 지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합장
학장 범성 010-9243-0113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과정 : 1년 (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단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 개강일 : 2012년 10월 2일 화요일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 (경우에 따라 요일 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 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 팩스 054)762-5889
5. 강주스님 : 현공스님 (010-4783-0077)
6. 접수기간 : 상시모집 (전화접수 가능)
7.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 없이 가능

한 국 불 교 태 고 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심지가 진표의 점찰사상을 이은 까닭은?

'佛骨 간자' 신묘한 법연에 동화사 창건

1. 동화사의 중창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고승들은 왕자 출신이 적지 않았다. 하늘에 해가 하나 뿐인 것처럼 왕이 되지 못한 왕자에게는 출가(出家) 혹은 광인(狂人)의 길만이 주어졌다. 물론 출가 이후 신라 성덕왕과 고려 현종처럼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왕자들은 왕위 쟁탈전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출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다. 신라 헌덕왕의 셋째 왕자였던 심지(心地)는 태어나면서부터 천성이 맑고 슬기로웠다. 그는 학문에 뜻을 둘 나이에 출가하여 스승을 따라 부지런히 불도를 닦았다. 중악(팔공산)에 머물던 그는 마침 진표(眞表)의 법통을 이은 영심(永深)법사가 진표 율사의 불골 간자(佛骨簡子)를 전해 받아 과증법회(果證法會, 占察法會)를 연다는 말을 듣고 뜻을 정하여 찾아갔다. 하지만 때가 너무 늦어 참례가 허락되지 않자 뜰에 자리를 깔고 엎드려 대중과 함께 예참했다.

일주일이 지나 큰 눈이 내렸다. 그런데 그가 섰던 땅 사방 10 여자 남짓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신기한 일을 보고 당에 오르기를 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병이 났다고 사양하고 방으로 물러났다. 심지가 불당(佛堂)을 향해 조용히 예불을 올리자 팔굽과 이마에서 피가 흘러 진표율사가 선계산(仙溪山)에서 정진할 때와 같았다. 지장보살이 날마다 와서 그를 위문하였다. 하루는 지장보살이 법석을 마치고 본산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간자(簡子) 두 개가 자신의 옷깃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간자를 가지고 돌아가 영심에게 알렸다. 영심이 말하였다. "간자가 함 속에 있는데 그럴 리가 있는가?" 영심이 간자를 찾아보자 함은 그대로 있었지만 간자 두 개가 과연 없었다. 그는 매우 이상히 여겨 간자를 거듭 싸서 넣어 두었다.

심지가 길을 가다 다시 보니 여전히 간자가 옷깃에 붙어 있었다. 해서 심지는 되돌아와 법사에게 말하였다. 영심이 말하였다. "부처님의 뜻이 자네에게 있으니 자네가 받들고 가게." 영심은 간자를 심지에게 주었다. 그가 공산으로 돌아오자 중악의 산신(山神)이 두 신선(神仙)을 거느리고 심지를 영접하여 산기슭으로 인도한 뒤 바위에 앉혔다. 심지가 말하였다. "지금 적당한 땅을 가려 이 부처님의 간자를 봉안하려는데 우리는 정할 수가 없소. 청컨대 세 분과 함께 산에 올라가 간자를 던져 정합시다." 심지는 산신들과 함께 산봉우리에 올라가 서쪽을 향해 간자를 던지자 간자가 바람에 날려갔다. 그때 산신이 노래를 불렀다. "바위는 물러가 평지가 되니/ 낙엽은 흘날리고 눈앞이 밝아지네./ 부처님 뼈의 간자 찾아 얻었으니/ 정결한 곳에 모셔 들고 정성 드리겠네."

산신이 노래를 부르고 나자 심지는 숲속의 샘에서 간자를 찾아 불당을 짓고 봉안하였다. 지금의 동화사 첨당(籤堂) 북쪽에 있는 작은 우물이 그곳이다. 다른 전승에 의하면 심지는 흥덕왕 7년(832)에 이전의 유가사(瑜伽寺)를 거듭 개창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아직 겨울철인데도 절 주위로 오동나무[桐] 꽃이 만발[華]하였기에 동화사(桐華寺)로 고쳐 불렀다 전한다. 하지만 불교 공인 이전인 신라 소지왕(炤知王) 15년(493)에 극달(極達)이 절을 짓고 법상종의 성격을 띤 유가사라는 이름을 붙일 까닭이 없다는 점에서 심지가 창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여튼 심지는 진표-영심으로 이어지는 점찰사상을 동화사에서 이어갔음을 알 수 있다.

2. 점찰사상의 가풍

점찰사상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 즉 『점찰경』의 경설에 입각한 것이다. 경전에는 지장보살이 나무쪽[簡子]을 던져 길흉과 선악을 점찰하고 참회하는 법이 설해져 있다. 이 경전에 의해 이루어진 법회를 점찰법회(占察法會)라고 한다. 신라의 원광(圓光)법사는 점찰보(占察寶)를 만들고 이 법회를 처음 열었다. 『점찰경』의 상권에는 189간자의 이름이 서술되어 있다. 1간자는 상승(上乘, 大乘)을 구하여 불퇴(不退)를 얻고, 2간자는 구한 과위[果]를 증명한다. 3간자는 중승(中乘, 삼승의 중간인 緣覺乘)을 구하여 불퇴를 얻고, 4간자는 하승(下乘, 삼승의 맨 아래 聲聞乘)을 구하여 불퇴를 얻는다. 5간자는 신통력을 구하여 성취하며, 6간자는 사범(四梵)을 닦아 성취한다. 7간자는 세선(世禪)을 닦아 성취하며, 8간자는 받고자 하는 묘계(妙戒)를 얻는다.

9간자는 일찍이 받은 것에 계구(戒具)를 갖춘다. 이에 대해 일연은 미륵보살의 설한 신득계(新得戒)란 금생에 비로소 계를 얻음이요, 구득계(舊得戒)란 과거에 계를 얻고서 금생에 또 얻는 것이다. 때문에

진표 · 영심 · 심지로 점찰사상 이어져
〈점찰경〉 상권에 189간자 이름 서술
신라 원광, 점찰본 만들고 법통 이어
점찰사상, 유식 · 미륵 · 밀교와 긴밀

수행한 공덕에 따라 본래의 신계(新戒)와 구계(舊戒)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해명하고 있다. 10간자는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면서 하승(下乘)을 구하려는 것이다. 11간자는 아직 믿음에 머무르지 못하면서 중승(中乘)을 구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72간자까지는 모두 과거 현세 중에 혹 선하거나 악하거나 얻거나 잃는 일이다. 이하부터는 모두 미래의 과보를 가리킨다. 173간자는 자신을 버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며, 174간자는 죽어서 축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귀(餓鬼), 수라(修羅), 인간(人), 인왕(人王), 천(天), 천왕(天王), 법을 들으며[聞法], 집을 떠나며[出家], 성승을 만나며[値聖僧], 도솔천에 태어나며[生兜率], 정토에 태어나며[生淨土], 부처님을 찾아 뵈며[尋見佛], 하승에 머물며[住下乘], 중승에 머물며[住中乘], 상승에 머물러[住上乘] 해탈하는 것이 189간자 등이다. 여기서 일연은 " '주하승' 으로부터 상승에 이르기까지는 불퇴(不退)를 얻고 여기서는 상승을 얻어 해탈(解脫)한다 했으니 이것으로 구별된다" 덧붙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삼세의 선악과보의 차별상이다. 이것으로 점쳐 보고 그 마음속으로 행하는 것이 서로 들어맞으면 감응이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이르지 않으니 허류(虛謬)라고 한다. 곧 8간자와 9간자 둘은 다만 189간자 중에서 온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연은 『송고승전』에는 다만 108 첨자(籤子)라 하니 무슨 까닭인가? 아마도 저 108번뇌를 잘못 알고서 이른 것이며 경문의 글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까닭이라 해명하고 있다.



동화사 봉황문 왼쪽 벽에는 심지 스님이 손수 정을 들고 새겼다는 말이 전하는 마애불좌상이 있다. 통일신라 9세기 작품으로 보물 제 243호다.

또 일연은 고려의 문인이었던 김관의(金寬毅)의 『왕대종록』(王代宗錄, 2권)을 살펴 "신라 말년에 대덕 석충(釋冲)이 진표율사의 가사 한 벌과 계간자(戒簡子) 189개를 고려 태조에게 바쳤다"는 기록을 덧붙이며 이러한 사실을 논증하고 있다. 다만 그 역시 지금 동화사에 전하는 간자와 그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말하고 있다. 그런 뒤에 그는 찬시로 심지를 기리고 있다. "귀족의 집안에서 자라나 출가하였고/ 근검과 총명함은 하늘이 주었다네/ 뜰에 쌓인 눈에서 간자를 얻어/ 동화사 산봉우리로 던졌네." 일연은 동화사의 창사가 진표-영심을 이은 심지의 점찰가풍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3. 진표의 계승자

점찰사상은 유식사상과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유식법상종의 한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존재를 인식으로 환원하는 유식사상은 인도의 미륵-무착-세친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인식론의 스펙트럼을 크게 확산시켰다. 유식사상은 다시 동아시아로 건너와 자은법상종으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이 유식법상종의 스펙트럼 속에서 뻗어 나온 또 다른 광선이 석존 입멸 후 56억 7천만년을 지나 다시 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여 화림원 안의 용화수 아래서 성도하여 3회의 설법으로서 석존의 교화에 빠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미륵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륵은 석존의 업적을 돕는다는 뜻에서 보처(補處)의 미륵이라고도 하며, 현겁(賢劫) 천불(千佛)의 제5불이라고도 한다. 그가 주재하는 법회는 용화삼회(龍華三會)이다.

점찰사상은 이들 유식사상과 미륵사상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찰하는 법과 참회하는 법을 주요 행법으로 하는 독자적인 사유체계라 할 수 있다. 수나라 보리등(菩提燈)에 의해 번역된 『점찰선악업보경』(2경)은 하나의 진실한 경계[一實境界]에 난행도와 이행도[二道]의 사태와 이치를 보는 도리[觀道事理]가 갖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경이다. 본디 점찰이란 점서(占筮)의 법이자 밀교(密教)의 비법(秘法)으로 나의 마음을 월륜(月輪) 혹은 연화(蓮花)로 관찰하여 그 위에 글자를 관찰하면 아자(阿字)가 변하여 여의보(如意寶)가 되어 그 보주가 법계에 두루 가득하게 된다. 때문에 그 가운데 일체의 선과 악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 그 길흉화복을 알게 되는 것이다. 『대일경소』(4권)에서는 "스스로 마음을 관찰하되 연꽃 위에 여의보주를 내외가 명철하도록 해야 하며, 저를 자세히 관찰할 때에 소유한 선과 악이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이 여의주는 다만 아자(阿字)를 끌 뿐이다"고 하였다. 『비장기』(秘藏記) 말(末)에도 "아직 싹트지 않은 일을 결정할 때에 내 마음으로 월륜(月輪)을 관찰하고 윤상(輪上)에서 아자(阿字)를 관찰하여 여의주가 되고 보배구슬이 법계에 두루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밀교적 수행 비법이 유식사상과 미륵사상과 결합하여 점찰사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점찰사상은 그 계보가 유식사상과 미륵사상 뿐만 아니라 밀교사상과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찰경』에 입각한 점찰법회는 진표 이래 신라에서 널리 유행했으며 고려시대에도 지속되었다. 지눌의 정혜결사와 요세의 백련결사에 앞서 이루어진 진억(津億, ?~1074년경)의 지리산 수정결사의 사상적 배경 역시 유가 법상의 한 계통인 『점찰경』이었다.

점찰사상은 유식 법상종의 한 흐름
동아시아 불교인식론으로 일대 변혁
참회 주행법 크게 유행
진억 스님의 수정결사 등에 영향

진억은 지리산 오대사를 수축하여 수정사(水精寺)라 명명한 한 뒤 1) 결사대중 모두의 이름을 간자에 새겨 주고, 2) 매 15일마다 『점찰업보경』에 의해 이름 새긴 간자를 던져 선악의 보응을 점치며, 3) 점친 선악의 결과를 두 개의 함에 나눠 놓고 악보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결사 대중들이 대신 참회하고 다시 점을 쳐 보아 선보(善報)를 얻게 되면 그만두고, 4) 처음 선보를 얻었지만 다시 악보(惡報)에 떨어질 경우를 생각하여 일년마다 한 번씩 점을 쳐 보고 만일 악보에 떨어지면 처음과 같이 대신 참회하였다. 그는 이들 네 가지 수행 단계를 통해 수정결사의 행법을 확립하였다. 이 수정결사 역시 진표-영심을 이은 심지의 점찰사상을 계승한 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잘 한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는다.
평화로우며 미움이 없고, 두려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초 능 력 개 발

초능력 개발 비법 전수
– 초능력 개발사업 하실 분에 한함
– 신내림에 실패하신 분에 한함
오십견 치료 (1~5회 완치)
치료비법전수
010-5822-076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모든 통증해결

오십견,허리,무릎,관절,
빙의,신병,눈병 등...
(스님의 원력
으로 즉시효과)
지장사 범성스님 합장
010-9243-0113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적은 보시금으로

의식에 필요한
사물 다루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법고,태징,북,목탁,요령 등
010-3657-6302

계룡산 천황사

보각스님의 신비한 기치유
빙의,무병,정신병,중풍,
불치병, 암 현대의학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
탁월한 효과 "신분 절대 보장"
011-673-0492
041)855-3492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번뇌의 굴레에서 해탈을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는 생명의 글문 비방

큰 법력으로 사물,바라무,살풀이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과
한문을 능통하게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되게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구병시식 및
불상 불화. 점안과 각종 불공의식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어디든지 찾아 뵙겠습니다
010-3854-8107
네이버, 구글, 유투브 비구무불 검색
트윗 kangmubul 검색
영축산 토방 50대 비구승 무불 합장

천도재, 49재, 바라무, 점안식 등 아주 저렴하게 집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010-4193-1707
철학 1개월 수강으로
개업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함.

비구니 기도스님
女사무장
모십니다
(부산)
051)721-0449
010-3579-644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경남 진해
011-878-74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7139-8631
010-9127-6331

주 지 구 함

스님이 없는 절이나
가난한 사찰을 무보시로
도와드립니다
(사주,관상,주역 능통한 63세 비구스님)
010-3895-4858
탄성스님

염불 잘하는
스님이 의식 집전해
드립니다
천도재,49재,바라,
나비,회심곡
010-6569-1010

행자 및 수행자 모집

남여 5名
생활불교 실천 교육도량
(사)대한불교일승종 관암사
경기 양평 031)773-5283
010-4118-5283
주지 무공당 東和 합장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조계종 노승이 이젠 쉬고자 본 종
아니면 타 종단 비구니 스님으로
인연있는 스님을 정진수행 도량으로
4년간 자유스럽게 정진하되 도량이
인연 있으면 노승 열반까지 보장함
(답사후 결정)
소백산 원각산 지장보궁 내원암(큰절뒤에)
경북 054)653-1180
010-6353-1180

심 와 기 도

• 소원을 성취시키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 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 사물 ✹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 명리, 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합천)
010-9506-57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010-3189-874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가평)
031)585-4626

새로 창건한
사찰에서
공양주, 기도스님,
행자승을 모십니다
(충남 천안)
010-8008-5098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해광 하순천 지음 .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값 15,000원 / 410면 / 전화 063)643-7285
◉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비구니 행자(예비스님) 모집

1. 부처님 공부는 큰 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철저한 행자(예비스님). 자율교육
3. 2년 공부 후 주지발령
4. 학력, 나이에 관계없음
010-2669-1800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구리)
010-8641-449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55)972-8068

부전
소임
원합니다
010-5281-44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충북 청주)
010-3691-5865

한국불교대학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

http://cafe.daum.net/indelamang
다음카페 불교인드라망은 장소, 시간, 남녀노소 어느것 하나에도
구애됨 없는 우리불교인 모두의 인터넷 사이버법당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053)474-8228, 010-9562-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암 환자 여러분

암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이곳 암 환자 쉼터는 자연으로 이루어진 편백, 대나무, 계곡으로 이루어진 곳.
자연식탁, 풍부한 운동, 새벽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간표대로 환자에게 맞는 자연식탁, 모든 재료는 텃밭에서 생산되고
환자의 모든것을 관리해 드립니다. (상담환영, 지도는 청암스님)
편백숲 쉼 터 직통 061)763-3390
원장 010-3162-3390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 051)721-644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799-426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광사
• 주 지 : 서정(韓貴東)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18-77

위 인과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 / 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고 려 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
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
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페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미니 납골당 신축 전문 시공사

– 결로방지 100% / 온난방 100% / 환기 100% / 인테리어 100%

안치대 설치 전문 업체

– 황금색 스텐 안치대. 원목 안치대. 주물 안치대 . 강화유리 안치대

성심 시공사의 안치대 명성

– 성심시공. 믿음시공. 완벽시공. 심플시공 . 엄숙경건. 최상의 인테리어
※ 꼼꼼한 판단과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010-3390-1161

보고 듣고 배우는 –

첨단 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전을 학습 할 수 있는
[경전 학습기]를 판매할 소호 사업자를 모집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 판매사업부
02)2061-992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당)
010-3618-6061

불자정보 26 | 905호 | 전면광고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법당 : 23(목조)
- 요사 : 80평
- 부지 : 19,000
- 가액 : 9억

- 위치 : 부산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 부지 : 2,500평
- 가액 : 9억

- 위치 : 강원 영월
- 법당 : 15평
- 요사 : 35평
- 부지 : 64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 국가지정 문화재 거대 마애불(보물)
- 시내중심 최상의 불사조건
- 영험한 마애불상 주변 평지 같은 임야 8500평 중 잡종지로 전환 가능한 땅1000평
- 가액 : 20억

010-5012-22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사찰 대 80평
- 법당, 삼성각, 공양간, 요사채
- 산자락에 위치, 법회 민원 없음
- 약간의 텃밭
- 가액: 2억 5천만원

010-5346-4138

포교원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선사APT정문앞
- 지하철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70평
- 전세 8000만원
- 시설비 2800만원

02)481-3635
010-3714-3635

별장식 암자안내

- 위치: 충북 충주시
- 대지 286평, 별장 45평
- 법당, 조립식 17평
- 자동문 차고, 조경최상
- 산자락에 위치, 남향
- 가액: 3억 1천만원
- 대출 1억 4천 포함
- 오후 1시 이후 연락바람

010-3693-532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부지 : 6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5억 7천

- 위치 : 서울
- 부지 : 8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 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7억 (은행 3억 가능)

아름다운 대사찰

- 총부지 : 약 4700평
- 목조법당 42평(목조 와가건물 8동)
- 명부전, 나한전, 산신각, 요사책
- 대종각, 대법고, 주차장 500평
- 총가액: 30억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토굴 임법당(급)

- 위치 : 경북 의성 IC 10분거리
- 대지 93평, 방2, 법당, 공양간
- 황토 목조(약 100년 보수완료
- 상단불,좌우원불,토불,주련 기타 집기일체 양도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4천 5백만원

010-4113-1080

도심속의 사찰

- 위치: 경남 밀양시 삼량진읍
- 평수 : 대지 ,63평
- 법당 .11평 요사채 ,25평
- 전세 : 3,000만원 (몸만들어와도 됩니다)
- 스님,법사,철학자,보살님 참 좋음

010- 7459-297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북구 칠성시장 부근
- 상가건물 4층, 65평, 옥상사용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 산신, 칠성, 용왕, 영가단, 법당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시설: 도시가스, 아주 깨끗함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0-2542-2227

삼보기획 사찰 안내

삼보기획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충남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56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요사 : 6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5억5천

1억정도에서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무관
법률, 세무, 무료, 상담 환영, 양도,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구입하실분 연락주세요

삼보기획 010-6722-2211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국립공원(유달산) 내
- 별장식 암자 • 평수 200여평
- 시문화재 등재
- 특징: 전설과 영험이 있는 기도도량
- 가액: 1억 5천만원(조절가능)

011-623-4487
011-229-41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광명고 건너편, 봉래산 자락 100년 역사, 바다가 보이는곳(영험)
- 촛불기도, 굴법당 2동, 요사채3동 법당 2동 25평, 녹지 1500평
- 주차 10대 이상가능
- 보증금 6천5백만원, 월150만원 시설비 협의

010-2637-6144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6층 건물 5층, 평수 : 60평
- 전세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 40 만원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매우만족함))

010- 9929-290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오류동역 남부
- 약 10평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300만원(절충불가)
- 철학원 운영중입니다
- 급 안내 합니다

011-729-6011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찰 안내 "가 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 대지 980여평
- 임법당, 요사채 1~2층. 50평
- 별채 10평. 연못 1개
- 가액: 3억 5천만원

010-8660-9449
011-779-956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예천군 상리 소재
- 옆개울과 연못이있는 청정지역 총 1,000평(대지 포함)
- 매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도 있음
- 가액 : 3억 (꼭 필요한분만에게 가격조절 가능)

011-861-625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180(팔도시장내)
- 평수 : 35평 법당 . 소불 100불
- 에어콘완비, 즉시입주가능

전세 : 1,000만원, 월세 : 35만원
시설비 : 1,200만원

010- 8664-4223

토굴·암자 안내

- 경북 영천시 화산면 부개리
- 대지 143평
- 건물 : 법당 가능 8평, 요사채 6평
- 주차장완비
- 대숲 좋음, 비구니스님 환영
- 가액: 4천 8백만원(꼭 사실분)

054)336-0890
010-2772-5656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두천시
- 건평 70평(입법당 20평, 방6개, 화장실3, 공양간2)
- 신축과 같음
- 텃밭 200평, 주차 10대
- 전철 온천 근접
- 주변 산, 대로변 버스정류장
- 도보 2분거리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390-6654

도심안의 산중사찰

- 부산 (구 보림극자 위)
- 대: 97평(계단 약간 있음)
- 1층65평(법당 및 공양간)
- 2층 35평 (큰법당)
- 텃밭(20평)
- 급양도가: 2억9천만원

- 8m 옆 나대지
- 평당 240만(36평)
- 현재 유료주차장
- 부산 범일동 (지분등기) (부산진 시장 10분거리)
- 가액 : 8700만원

부산 동구 범일동 010-5511-7000 스님

사찰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유원지 부근
- 임야 : 3만 5천평
- 현재 한옥 2채 현재 임법당 운영
- 사찰 및 연수원 양로원 적합
- KT서원주역 10분거리 청량리역에서 30분거리 • 통신광케이블 도로포장
- 평당 7만원 절충가능

010-2554-672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산 마산
- 산밑 단독주택(마산시내 훤히 보임)
- 보증금 : 100만원(월 15만원) 시설비 : 2500만원 (3000만원 들었음)
- 양도도 가능 : 5,000만원 (대지40평), 사용공간 100평
- 비구니 보살님 살기 편함

010-7264-8474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2층
- 평수 : 20평
- 석가세존 삼존불 (동으로된고불)
- 전세 : 일천만원 월세 : 이십만원
- 주차장 완비, 시설비 답사후결정

055)247-8808
010-6480-8808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집현면
- 부지 250평
- 삼존불, 법당, 요사 모든 시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없음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010-8315-2100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궁유면 운계리 871-2
- 총평수 1700평중 대지 5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포함 70평, 준공필
- 사찰앞 계곡이 수려하고 청정지역임
- 가액: 3억 5천만원
- 타건물 교환 환영
- 스님 건강관계로 (급)양도

055)572-0405
011-9850-8208

암 자 안 내

- 위치: 가야산 국립공원 내 암자
- 계곡속 명당, 대지 168평 지상권 300평, 합 468평
- 황토집 44평, 심야보일러
- 창고 20평 1동
- 이동식 주택 방1동
- 무상사용 800평, 자연석 조경 연못
- 대출 4000만원, 합 1억 2천만원

010-3077-1118(주인직)

사찰,복지시설터 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
- 산자락 밑 밭 6000평
- 물좋고 산세가 수려함
- 가액: 3억(3년전 금액)

010-3540-019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25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찰(터)운영하기 좋은곳

- 위치: 경북 영천시 고경면(영천 호국원 앞)
- 잡종지 약 1070평 • 가옥 2채(약100평)
- 호국원주차장사용가능
- 교통편의 최적지
- 가액 : 현지 답사후 용도에 따라 분활하여 시세에 맞춰 상방 합의하여 결정

010-5633-8768

포교원안내

- 대구시 대명동 단독주택 독채
- 법당, 방3,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300만원, 월 25만원, 1년 선세
- 시설비 비품 일체 2700만원
- 완벽한 시설
- 몸만 오면 바로 법회

011-458-2955

사 찰 안 내

- 부지 실평수 200평 중 (대지등기 123평)
- 법당 30평(목조단청)
- 요사 2동, 종무소(불사리탑 5층)
- 특징: 수행과 포교의 정법도향
- 서울 인접 의왕시 소재
- 전통적인 사찰
- 가액:10억

010-5466-3321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밑
- 대지 195평, 도심 포교 최적지
- 법당 40평(장엄완벽) 방3개
- 후원채 20평, 화장실 따로
- 보증금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4천만원(1억 들었음)

010-7181-679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 대지 : 47평, 건평 :120평 3층건물
- 1층 : 용왕당 방1칸
- 2층 : 요사채, 방2개 욕실, 내부 외부 화장실 2개
- 3층 : 법당 주지 (친견실)
- 개금3존불, 원불, 법당 종 30관
- 심야전기,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평당 : 380만원

010-4561-5629

다용도 토지 건물

- 경북 영덕군 창수면
- 지방도 계곡 접한
- 대지 560평, 건물 60평
- 밭 650평
- 최상의 조건
- 가액 : 1억 2천만원
- 주인직

010-8899-88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동두천시
- 건평 70평(입법당 20평, 방6개, 화장실3, 공양간2)
- 신축과 같음
- 텃밭 200평, 주차 10대
- 전철 온천 근접
- 주변 산, 대로변 버스정류장
- 도보 2분거리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6559-091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경산 용성 매남 자성암
- 대지 : 500평 (종교부지: 근린시설, 명당지임)
- 암자 : 임법당, 심야보일러(닭,개,경운기,농약,소똥냄새,항공기소음등 일체없음)
- 시설 : 사물, 조경, 양방향 위성 인터넷, 정자, 기타 시설일체
- 양도가액 : 2억 6천만원 (대출 : 제일금융권 7천만원 융자가능)
- 동업자(환영) : 1억 3천만원 (공동명의및 신분상관없이 모든권한 주지스님과 50:50)
- 사연 : 2인 공동 운영(50:50) 성황중이나, 1인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지분을 돌려주기 위함.
- 통화 : 주지스님 직접수신/ 수행시간은 수신 불가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016-444-9885 주지 성묵스님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동래
- 2층, 3층사용(각 8평)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500만원(답사 후 절충)
-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

010-3070-8100

토 굴 안 내

- 위치:경남 의령군 용덕면 의령읍에서 차로 5분
- 대지 : 150평
- 법당, 요사
- 가액: 6,000만원
- 의령군- 대구간 국도변

010-3550-8247

포교원안내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가주동
- 대지 : 98평
- 요사채 :방3칸 거실1, 화장실1
- 법당 : 30평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30만
- 시설비 : 2,000만원 (절충가능)

010- 4753-82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 대지 : 2,000평
- 건평 : 40평 (산신각 : 8평, 해수관음, 달마포상 5자)
- 건물양도: 1억 (답사후 결정)

010-6358-0034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원당 전철역 부근, 도로변 위치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약간
- 평수: 40평

011-9133-9270

포교원안내

- 위치:경남 거제 시내
- 3층 건물중 2층 50평
- 접견실, 부엌
- 보증금 1500만원, 월 90만원
- 6자부처님 8불
- 시설비 20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 앰프시설, 에어컨 2대
- 스님. 몸만 오시면 됨

010-4344-922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학동
- 5층의 4층 40평
- 법당, 주지실, 접견실, 공양간 욕실, 냉난방완비
- 보증금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600만원 관리비 없음
- 즉시법회가능

010-4000-2911

살아 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 벽암록 -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

데이비드 해밀턴 (유기화학 박사)

㊤ 긍정적인 생각의 힘

생각 · 체험이 뇌 바꾼다…변화 주체는 '우리'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는 심신의학 분야 권위자 데이비드 해밀턴이 플라세보 과학과 양자학 치유를 결합해 마음속 치유 장면의 모습을 떠올려 실제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심상화' 요법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뇌 과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마음 훈련으로 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플라세보 치유 효과라 부르는 믿음의 치유 효과를 최신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보여주며 양자장 치유라는 에너지 치유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금주부터 3회에 걸쳐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낙관주의자들이 오래산다

낙관주의자들은 비관주의자들보다 오래 산다. 과학자들은 65~85세의 네덜란드인 남녀 999명을 설문한 결과 높은 수준의 낙관주의를 보인 사람들은 어떤 원인으로든 사망 위험이 45% 낮았고, 높은 수준의 비관주의를 보인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77%나 낮은 것을 발견했다.

2006년에 카네기 멜론대학의 연구진이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가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보다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소리굽쇠와 같다. 소리굽쇠를 치면 주변에 있는 것이 함께 공명한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불평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불평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불평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갖고 다니는 박테리아와 같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감염시킨다.

불평하는 대신에 당신이 감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라.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 당신이 감사하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출수록, 당신이 감사할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심장에도 좋다.

나이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나이 먹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보다 약 7년 반을 더 오래 살았다.

근본적으로 당신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몸과 마음을 늘 바쁘게 움직인다면 더 오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병이 나더라도 빨리 나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도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마음가짐과 나이드는 과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많은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다.

충분히 몸을 써라

신체적 쇠퇴의 주요 원인은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미국 국립 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두뇌 트레이닝을 받은 후 기억력이 상당히 향상됐다. 90대 전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적으로 활발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다.

신경과학계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뇌를 운동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뇌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

많은 성인들이 나이가 들면서 뇌 기능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굳게 믿은 나머지, 마치 부정적인 플라세보(placebo)효과 처럼 자기 강화적 악순환에 빠지게 돼 결국 행동방식마저 바꾸게 된다. 노화는 모두 마음에 달려 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지말고 당신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

믿음의 힘

플라세보(placebo)는 진짜 약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가짜 약이다. 플라세보는 의학 실험에서 시험약을 대조군에 대비해 테스트할 때 사용된다. 플라세보가 대조군이 되자면 치료가 되지 않아야 하지만 치료가 된다. 환자들이 진짜 약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플라세보를 복용한 환자들은 모두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즉 뇌가 질병과 싸우기 위해 천연 진통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뇌는 언제나 자체적으로 약을 생성해 낸다. 그 이유는 분자 수준에서 마음이 물질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믿으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생성되며, 그 화학물질의 중대한 역할로 인해 당신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마음은 아스피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1981년에 영국의 킬 대학교에서 835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알약에 찍혀 있는 상품명이 약의 효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놀랍게도 같은 약이었음에도 브랜드가 찍힌 아스피린이 더 잘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플라세보였음에도 브랜드가 찍힌 플라세보가 통증을 더 완화시켰다. 브랜드가 찍힌 약이 브랜드가 찍히지 않은 약보다 그다지 나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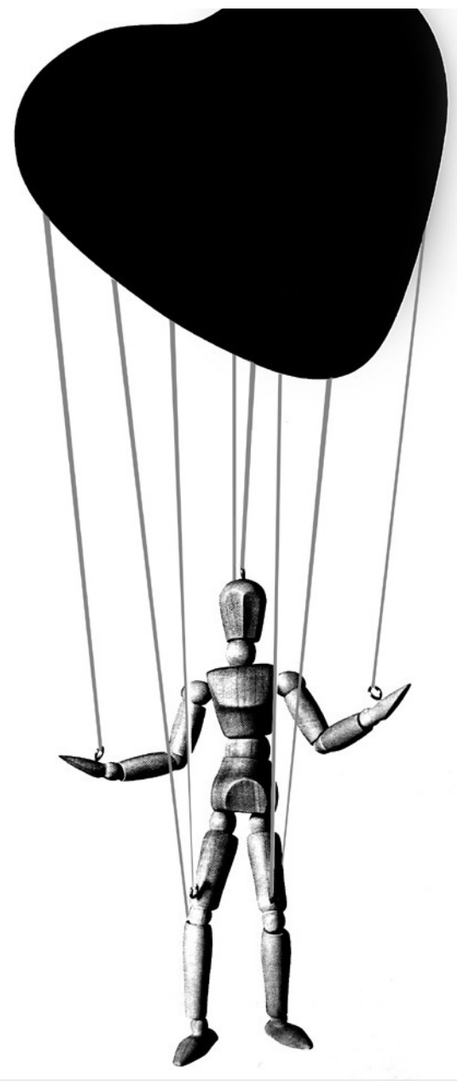
플라세보는 실제로 치유효과가 있으며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온다. 플라세보는 우리가 희망과 위안이라는 생각을 부여하는 상징이며, 그런 생각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환자들이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다 복용하지 않았을 때는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상식이다. 약을 처방받았을 때는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대로 끝까지 약을 복용해야 한다.

생각이 뇌를 바꾼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자라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있으며, 모든 생각이 뇌 구조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킨다. 말하자면 우리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도 뇌에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비관주의자 심장 질환 77%
불평은 박테리아 같아 감염
'새 언어 배우기' 좋은 뇌운동
플라세보 복용 믿으면 효과



오감으로 느껴지는 신체적 체험만이 뇌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뇌를 바꿀 수 있다. 〈미국 신경방사선학 회지〉에 실린 수학자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학에 종사했던 사람이 수학적 사고를 관장하는 뇌 부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자들이 그렇듯이 사고하고 추상하고 분석하면서 수학자로서 보낸 세월 동안 매년 '수학의 뇌 지도'에 새로운 가지가 추가된 것이다.

결국 우리의 체험과 생각이 뇌를 바꾼다. 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신체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지시를 전달하는 정적인 유기적 물질 덩어리가 아니다.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뉴런들의 네트워크, 즉 신경 연결망이다. 또한 우리가 변화의 주체다.

우리가 뇌의 어느 부위에서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내면 뉴런들이 빽빽해지면서 서로 밀어내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인접해 있는 두 그루의 나무에서 수천 개의 새로운 가지가 자라날 때 서로 밀어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아이디어를 곱씹어보고, 같은 꿈을 계속해서 꾸면 뇌가 두꺼워지게 된다.

뇌는 근육과 같다. 근육은 더 많이 쓸수록 더 발달한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위축돼 작아진다.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때마다, 예전 방식으로 생각하던 것을 담당하는 신경 연결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담당하는 신경 연결이 자라기 시작한다.

요즘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적인 삶을 살면 손상된 뇌를 재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우리가 운동할 때나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자연스럽게 신경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경험은 대부분 강한 긍정적 감정과 연관돼 있다. 그러므로 생각과 감정이 신경 생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신경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경 펩티드(neuropeptied)라는 또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도 뇌에서 생성된다. 뇌에는 마음, 감정, 태도의 다양한 상태를 반영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은 뉴런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라는 것에 결합해 다른 뉴런에 정보를 전달한다.

데이비드 해밀턴(David R. Hamilton)



유기화학 박사이자 심신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1995년부터 영국 대형 제약회사에서 심혈관 질환 신약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그 후 4년 동안 영국과 최고의 육상경기 클럽에서 코치와 팀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다. 1999년부터는 자기계발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피릿 에이드(Spirit Aid)라는 국제 자선 단체를 공동설립했다. 현재 글래스고 대학과 제임스 와츠 스쿨에서 화학과 생태학을 가르치고 있고, 활발한 집필 및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질병 치료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다. 저서로는 〈행복의 과학〉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등이 있다.

많은 신경 펩티드의 대부분은 혈류 속으로 방출돼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각 부위로 여행한다. 결국 마음과 몸의 강력한 연결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신경 펩티드를 만들어내고, 이 신경 펩티드가 신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신경 펩티드는 간과 신장, 췌장, 소화관, 결장, 생식기관, 피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혈당, 혈압, 심장 박동수, 호흡, 체온, 내분비계, 면역 체계, 성 충동, 심지어 식욕제도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 모든 기관과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

마음은 뉴런에 있는 DNA의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몸 전체 세포의 DNA 유전자에도 영향을 준다.

가령 어떤 사람이 짜증을 내고 적대적인 감정에 빠져있다고 하자. 이 사람의 뇌는 그런 감정과 관련된 신경 펩티드를 생성하고, 이 신경 펩티드는 몸 전체를 흐르면서 저마다 같은 '색'과 '소리'를 가진 수용체를 찾아 접속하게 된다.

마음의 힘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강력해서, 비록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심장 질환이나 암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나쁜' 유전자를 이겨낼 수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마음이 몸을 치료한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05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5(直) FAX 02)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제주(제주시내)
• 100평가량 (법당 50평가량)
• 법당, 방3, 샤워실2, 공양간1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절충
010-5035-5831

사찰안내
• 신비의 동굴이 있는 사찰 • 경북 경산시 남천면 소재
• 맥반석산 임야 8500평, 대지 2000평
• 맥반석동굴법당 110평, 70평
• 대웅전, 30평, 산신각 6평
• 맥반석 돌탑 108기,공양간 40평, 방5개
• 사철 계곡물 철철 흘러감
• 총가액: 12억 6천만원. 주변시세 명당 2만원
011-809-7434 주인직접

사찰안내
• 위치: 경북 김천 혁신도시
• 김천역 및 구미 KTX 10분거리
• 건평 1,2층 100평 대웅전 단청
• 대지 국유지 및 사용면적 약 500평
• 총 3억 5천만원 (은행융자 1억포함) 절충
• 법당, 사물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010-8725-3196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건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중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기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개금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재 (땅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중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개금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중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여명
■ 가액 : 26억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현우경' 이야기 (37)

자신의 피를 준 왕

왕의 피 마신 다섯 괴물 비구로 환생

옛날 어느 한 작은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는 곡식이 넘쳐나고 백성들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 매우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평화롭던 나라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 백성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모든 농사는 흉작이 됐다. 결국 남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게 됐고, 목숨을 잃어가는 이들은 점차 늘어났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5명의 괴물들이 벌인 일들이었다. 백성들은 나라 안에 괴물 5명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불안에 떨었다.

결국 이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전하,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고, 흉작이 이어져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한 괴물들이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아 더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전하거라. 내가 부처님의 열 가지 선행법을 일러줄 터이니, 이를 항시 실천하도록 하여라."

왕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 가지의 선행법을 실천하도록 명령했다. 모든 백성들은 왕의 말을 믿고 따랐다.

얼마 후, 신기하게도 백성들은 건강을 회복했고, 모든 농작도 풍년을 맞게 됐다. 백성들 모두 지혜로운 왕 덕분에 자신들이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무척이나 기뻐했다.

그때 5명의 괴물들은 이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화를 냈다.

"사람들이 기운을 차렸으니, 우리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산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우리는 사람의 피를 먹고 살아야 하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네."

"이것이 모두 왕 때문일세. 왕이 사람들에게 요상한 방법을 일러주는 바람에 우리가 굶게 됐어."

"우리 모두 왕을 찾아가 따집시다.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게 생겼소."



삽화 · 강병호

괴물들은 모두 왕을 찾아갔다. 왕이 괴물들을 보고 물었다.

"너희들은 어째서 나를 찾아 온 것이냐."

"전하께서 백성들에게 열 가지 선행법을 일러줘 사람들이 모두 기운을 되찾아, 저희는 이제 살 길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무척이나 굶주려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병을 퍼트려도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칼로 자신의 팔을 찔렀다. 왕은 5개 그릇에 똑같이 피를 담아 괴물들에게 나눠 줬다.

"지금 너희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힘들어하니 이것이라도 마시고 기운을 차리거라."

괴물들은 왕이 나눠 준 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다시 기운을 차린 괴물들은 왕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다. 왕이 괴물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나의 피를 나눠 주었으니, 이제부터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너희들에게 선행법을 일러줄 터이니, 그대로 믿고 실천하거라. 또한 절대 백성들을 헤쳐서는 안되느니라."

괴물들은 왕에게 선행을 하고 백성을 헤치지 않을 것을 약속한 뒤, 궁을 나왔다. 괴물들이 떠나고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원했다.

"훗날 제가 만약 부처가 된다면, 선정의 지혜로 이들의 온갖 탐욕과 악행을 없애고 열반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은 요동치며, 붉은 빛이 감돌더니 꽃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숲속에서 아난다가 좌선을 하고 있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설법시간이 다가오자, 좌선을 마치고 설법장소로 향했다.

설법 장소에 도착하자, 아즈냐타카운디냐 등 다섯 명의 비구가 먼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난다는 문득 다섯 명의 비구가 어떤 인연으로 부처님과 연을 맺게 됐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했다.

"저 다섯 비구와 나와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부처님은 다섯 명의 괴물들과 왕의 이야기를 아난다에게 상세히 들려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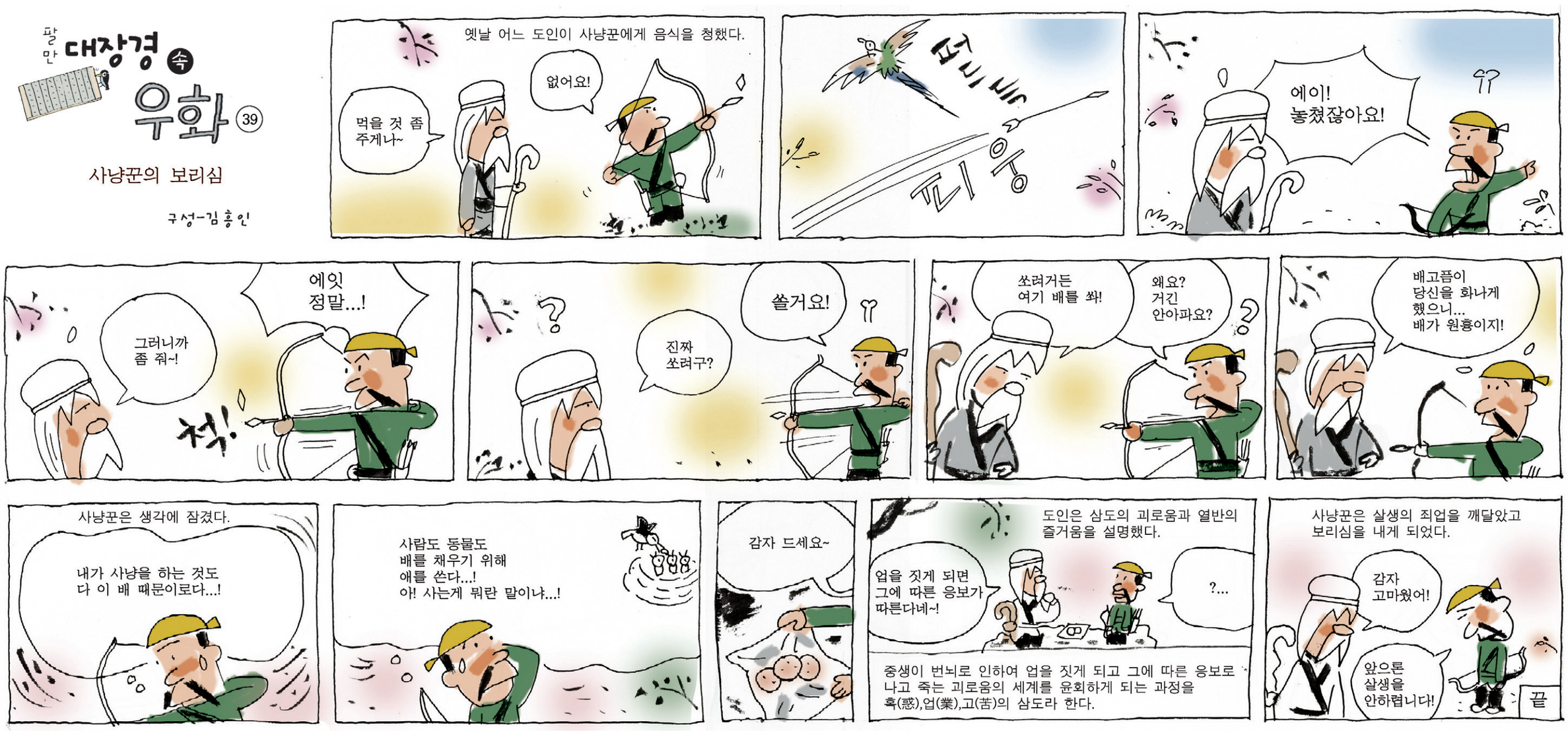
"괴물들에게 피를 나눠주던 왕이 지금의 나이다. 그리고 저들은 그때의 다섯 괴물들이다. 저들은 나의 서원으로 지금 비구가 돼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저들을 먼저 제도하겠다' 고 서원했다. 때문에 저들은 나의 설법을 처음으로 듣기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것이다."

아난다는 생각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심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그로인해 중생들이 모두 안락하게 됐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이 말을 듣고 더욱 공경하며 수행에 정진하게 됐다. 또한 대중들도 부처님의 말씀을 더욱 믿고 따랐다.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생사 문제' 해결해 누리의 주인으로 살라!"



《허공의 주인공》
–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 선어록
청봉 전근홍 엮음
46판 | 흑백 | 360쪽 | 10,000원

허공성이 바로 '나'니 부처행 하며 살자!
생활인에게 맞는 '새로운 화두(새말귀)' 공부법

20세기 '한국의 유마'로 추앙받는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생생한 법문과 언행을 기록한 책.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절망적이었던 청봉 거사(보림선원 서울선원 원로회 예백실장)가 스승의 설법과 수행 방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법문 내용을 소개해 재가 수행자들의 발심과 공부를 돕는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한생각에 고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팔자운명은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여북하면 옛날에 스승들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저 태극기에도 있군요. 보세요! 석 삼 자가 쓰여져 있죠? 그 아래에는 점이 네 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점이 다섯 개입니다. 삼, 사, 오, 육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아세요? 천지의 근본은 인간의 살림살이에, 마음에 다 있다는 얘깁니다. 저, 보세요! 과거 삼, 현재 삼, 이 자체가 바로 육입니다, 육! 인간의 마음이 다 저렇게 사무 사유가 한데 합친 것이 넷입니다. 위는 태양이 되고 아래는 대지가 돼서, 대지는 어머니요 태양은 아버지로서 둘이 아니게 저렇게 한꺼번에 둥글려졌습니다. 그러니 천지를 두고 말한 거지요. 저걸 둘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돌부리 하나도 부처님 아닌 게 없고 부처님 법 아닌 게 없고, 바로 공안 아닌 게 없고 화두 아닌 게 없고 스승 아닌 게 없으니, 어느 교가 옳다 어느 교가 그르다 말하겠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국한돼 있다고 생각 마시고 나 하나로부터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태초고, 나 하나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바로 내가 나온 것이 화두요, 내가 나왔으니까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 나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전화를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디부터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이 절을 해도 내가 받지 않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아이구, 고맙습니다.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겠으면 오고 말겠으면 말지요, 뭐. 이 세상에 돈 벌이 해먹으려고 중 된 것도 아니고 옷 잘 입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잘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오래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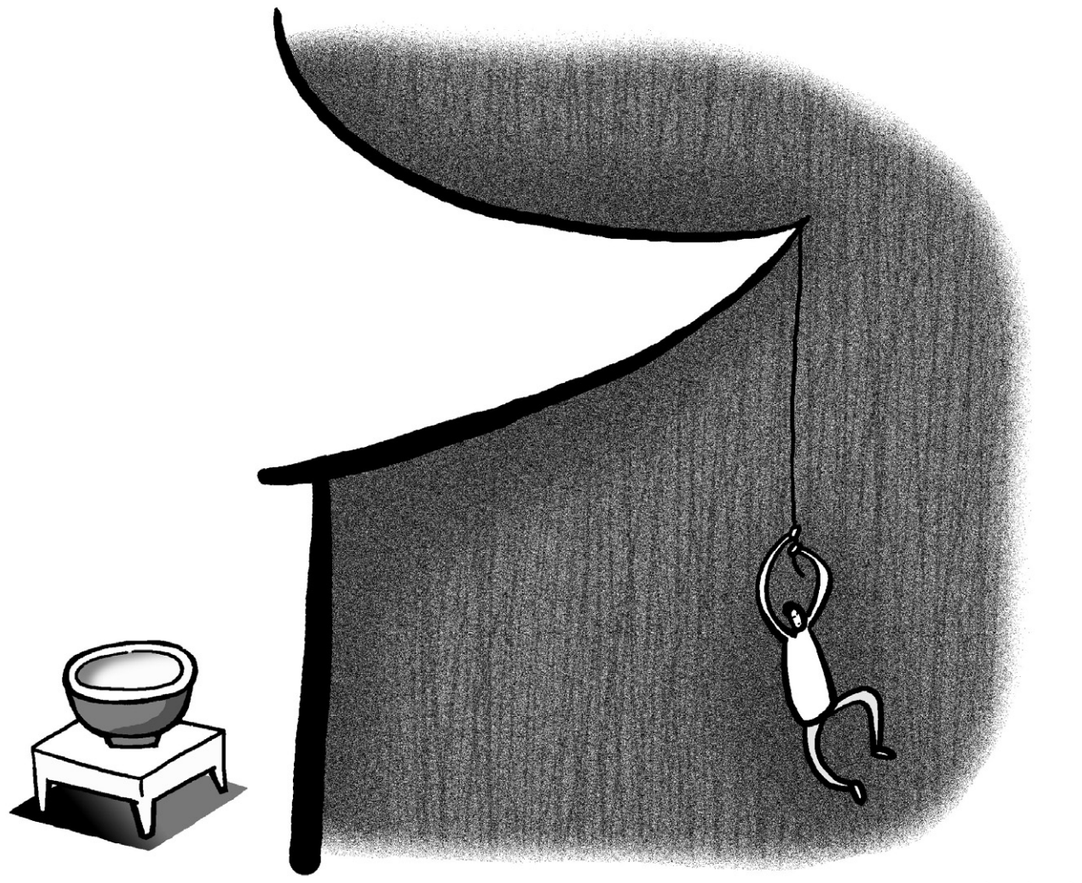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는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걷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침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종교를 믿기 때문에 못 나간다.' 하는 생각도 여러분의 생각이지 이 세계, 우주 전체의 생각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좁은 소견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막아 놓고 여러분이 못 나가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열 가지 백 가지 만 가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맛을 보면 맛을 보는 대로 '아,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야! 과학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구나! 불가사의하다는 것이 뭔가 했더니 바로 여기서 내가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불가사의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터득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이날까지 '나한테다 절해라. 나를 믿어라. 또는 기도를 드려라. 정성을 들여라.' 이래 본 예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닥치는 대로 한마음 속에 놔서 용도에 따라서 한마음 속에서 해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바로 자신들이 해야 됩니다. 카세트에 옛날 구식 노래가 있는데 그 카세트에다 새로 나온 곡을 입력한다면 앞서 입력됐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곡이 거기 들어가서 좋은 신곡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한생각에 고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팔자 운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고도 거기 붙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프로펠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지구가 그렇게, 아니 지구뿐이 아니라 일체가 그렇게 빠르게 움직거려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바탕이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요. 지수화풍의 뭉치이기 때문에 자력이나, 물질적으로는 자석이라고 그러지만, 통신력이나 광력 전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주의 섭류를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별성이든 혹성이든 전부 생명이 있고 운동을 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단지 각자의 마음에 따라 수명이 길고 짧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끄달리기만 한다면 오래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암이다, 백혈이다 이런다고 그 이름에 끄달린다면 자기를 자기가 구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병 이름에도 끄달리지 마시고, 지금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살려고 하지도 말고 죽는다는 이름에도 끄달리지 마십시오. 바로 내가 재량껏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의 그대로 음식을 조절해서 기운이 없어지지 않게 하면서, 육식을 너무 하면 피가 걸다고 하니까 해물 이런 거를 대신 쓰면서 생각 자체를 '내가 병난 거 내가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마음을 먹는다면 좋아집니다.

지금 보세요. 몸속에 정맥 동맥 혈관이 돌아가고 세포가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내 마음 지배인을 좇아서 다 마음을 합쳐 준다면 어느 한 귀퉁이가 마비가 됐더라도 '얘야! 지금 네 심부름을 하고 다니는 이 몸뚱이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 그러면 내 몸뚱이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굳어 들어가는 것을 고쳐서 아주 성능이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은 그 이름에 속아서 그냥 쓰러져서 죽어 버리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도 속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주인공만 믿고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서 감사하게 사신다면 아마도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불성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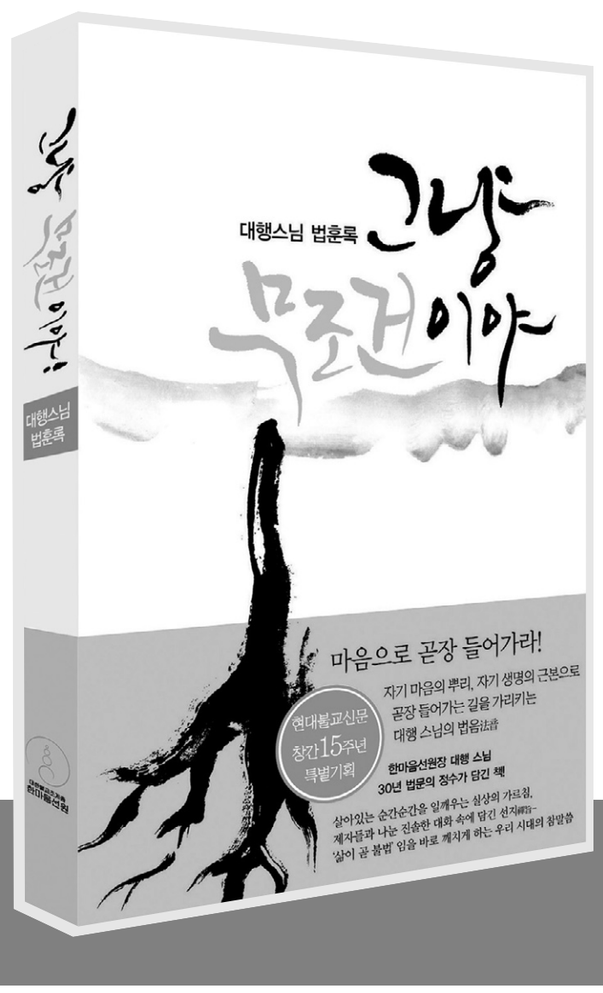
우리 신도 중에 산부인과 의사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많은 신도들 가운데서도 이 신도는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부가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낙태시키고 그러는 것이 애달파서 그러다가, 때에 따라서는 사고가 나는 일도 있거든요. 하치않은 일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봅니다. 그럼 죽어도 상관없다고 도장은 찍어 놨겠다, 여러분에게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손해는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의 손해죠.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을 길러서 70%든지 65%든지 자기 자신들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질계가 정신계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바로 정신계를 돌아서 물질계로 나와야 우리 지구도 수명이 길어질 것이고 자원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팽창되는 인구도 조절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시면 여러분이 다 해 보십시오. 부처님 당시에 가르치실 때에도 불상을 해 놓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대구에 와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그 요리를 맛있게 잘 자시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저 뜬금뜬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는 뜬금뜬금 넘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용도 따라 닥치는 모든 것 공부 재료로 알아야

☞ 29면에서 계속

어가더라도 여러분은 차근차근히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사고가 났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더랍니다. 급하니까 안양 본원에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의식을 잃고는 아무리 깨어날 때를 기다려도 깨어나지 않으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아니, 온 게 아니라 전화로 그랬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 버릇이 항상 그렇습니다. 애가 그러면 "알았다." 이러고, 어른이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러고, 또 더 노인네가 그러면 "정말 알았습니다." 이럽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수억겁 전으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쫓고 쫓기면서 먹고 먹히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온 그 자체를 볼 때 우리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또 딴 데 가서 모이고 그러는데, 수없이 거듭거듭 해 온 인생살이를 우리가 체크해 볼 때 누구를 내 부모라고 하고 내 형제,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화를 놓고 가니까 벌써 그 사람 의식이 깨어나더랍니다. 나중에 나더러 고맙다고 그러기에 "날더러 고맙다 그러지 마라.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고, 그걸 믿고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고친 거다." 그랬죠.

여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계신다 해도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 나 하나니까 나를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몸뚱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이 전해졌을 때 광력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병고가 있어도 자기 안에서 광력으로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만 고치는 것이 제일인가?" 이렇게 말하지만 병을 앓아서 의욕이 없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만약에 고쳐 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내 몸이 가루가 된대도, 욕을 먹는대도,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할 겁니다. 앞에 닥치는 거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 잡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요, 우리가 세세생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고 언짢은 거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한테 이익 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서 남에게 해로운 것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거, 또는 그저 남이 괴롭든지 말든지 그냥 나오는 대로 불쑥불쑥 해 버리는 그런 마음, 조금만 화가 나도 불쑥 그냥 화를 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전부 안에다가 맡겨 놓으세요.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왼쪽은 잠재의식 쪽, 바른쪽은 바로 현실의 감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맡기는 대로 거기서 굴려서 잠재의식 쪽으로 가고 잠재의식 쪽에서 또 나올 때는 거기를 거쳐서 현실로 나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두뇌에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나는 이름은 잘 모르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이 잘못한다 어쩐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참으로 자식들을 위한다면, 위하는 게 돈을 많이 주고 잘 입히고 잘 먹여서가 아니라 내 말 한마디에 정을 주고 말 한마디에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잘 할 수 있다면 이탈을 하지 않고 모든 자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화목하게 살 수 있고, 또 사회도 문란하게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마는 인제부터 체험을 해서 부처, 자기 자부처, 바로 자성은 자기 한 마음 속에 있다는 그 점을 아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한 마음을 보여 주시고 꽃 한 송이 들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그 한마음 한자리, 바로 평발이다.' 하는 이 뜻을 전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진드기의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질문도 좀 들어 보기도 하고 서로 오손도손 토론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지요. 여러분이 병고 없이 건강하고 젊게 사시려면 끄달리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건 왜냐? 지구가 돌아가는 대로, 섭류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여여하게 같이 마음이 걸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1년 살 것을 5년을 더 산다, 5년이 더 젊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릿느릿하고 이것저것에 걸려 가지고 거기에 같이 합쳐서 돌아가질 못하는 마음이라면 늙고 병들고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같이 돌아간다면 1년 돌아갈 것을 5년을 더 돌아가니까, 10년을 더 돌아가니까 얼마나 젊어집니까? 납득이 안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체 모든 분야, 천체물리학이든 과학이든 지리학이든 생물학이든 전체를 다 그 마음 하나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보배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어디 부러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병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부러졌더라도 바로 의사의 손이 내 손이요, 의사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의사의 몸이 내 몸이라면 바로 자기가 떡 서서 수술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잘못한다 해도 의사가 돼 버리면 바로잡을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수술할 수 있는 묘한 법도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저 사람이 와서 별말 하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런가.' 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자식지간에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스님, 우리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가 죽고 아빠가 재혼을 했는데 그 손자가 자꾸 도둑질을 해 내가고 도둑질을 해 들여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그러는 걸 보면 가슴이 내려앉고 살점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래 그 할머니는 항상 자기 한마음 속에 그저 등을 밝히면서 그 손자의 마음과 자기 마음이 둘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한참을 다니시니까 그 애가 너무나 착해지고 정직해지고 고등학교에 잘 다녀서 대학에 덥석 붙었답니다.

그러니 그런 할머니도 그렇게 실험을 통해서 체험을 해서 소원을 풀었잖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데,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 원력자가 돼야만이 우리나라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로 물리가 터지게끔 마음을 내서 같이 한마음이 돼 준다면 얼마나 이익이 오겠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말고 아상 아집 욕심, 그런 거를 다 버리시고 묵묵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세, 자비를 가지신다면, 의리와 도의, 사랑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신다면 바로 계율도 올바로 지켜지고 혜안도 생기는 것입니다.

'계정혜' 이런다고 해도 "혜도 정이요, 계도 정이니 그 정마저 공해서 없느니라." 했다는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구절구절이 부처님의 말씀과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이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거 한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공부해 들어가는 분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러는데 본래는 신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자기가 재료를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몸이 움죽거리면 화신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과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린 쓰레기에서 일어났던 먼지 같은 세균이 그 인연으로 그 집에 와서 인연을 맺을 때에, 그래서 병이 들어서 펄펄 뛰고 바깥으로 헤집고 다니고 그러면 식구들은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동네에서 막 굿을 하고 야단법석이 났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죄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게 다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잠깐만 불러와." 그 동네 일이니까요. 징을 두드리며 굿을 하는데 듣기도 싫고 잠도 못 잔다고 그러니 차라리 그이를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불러다가 말을 시켜 보니까 벌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더러 담뱃대 가져오라고 그러고, 담뱃대에다 담배 끼워 오라고 그러고 "마누라!" 이럽디다. 그런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걸로 고치고 찬 것은 찬 걸로 고쳐야지요. 그것은 물질로나 약으로나 말로써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이 돼 줌으로써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마음을 내 줌으로써 몰랐던 그 영혼은 그걸 알고서 오히려 마음의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자청해서 건강해지게 도와주고 자긴 자기대로 바로 환생을 하고 맙니다. 우리는 쳇바퀴 돌듯 돌아가고 있어서, 죽는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성도 그대로 그냥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껍데길 벗으면 그 껍데기는 우리 이 지구에 떨어지기도 하고 딴 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원이 되고 재료가 되고 이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쓰레기도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다들 껍데기를 벗고 다시 밝게 만들어서 탄생을 하고 그렇듯이 인간도 역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으면 그만일 거 아무렇게나 살자.' 하거나 '우리 집에 가면 그만이지.' 하고 쓰레기 탁 버리고, 안 보이니까 아무 데나 그냥 침 탁 뱉고, 또 안 보이니까 커피 먹고 그냥 탁 버리고, 차 타고 가면서도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 확 버리고, 이것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자기한테로 다시 가는 거지요. 왜냐? 자기가 버렸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됐기 때문에, 도청기와 같아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다니니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 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겁니다.

그러니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것 모두를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아세요, 재료로! 내가 병이 들었어도 '그것은 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가난해도 가난한 게 재료요, 아파도 아픈 게 재료요, 만약에 법에 저촉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도 재료요, 만약에 은행에 부도가 나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재료요, 모두 재료로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들 해 보십시오, 어떠한가….

※위 법문은 1991년 8월 25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닥치는 거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 잡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요
우리가 세세생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바로 보배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고 언짢은 거는 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한테 이익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면서
그저 남이 괴롭든지 말든지 그저 불쑥불쑥 해 버리는 그런 마음 버리고
그냥 전부 안에다가 맡겨 놓아야 합니다.

마하연투어 (주)에스굿

성 지 순 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갠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혜거 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불자 세상보기

'강남 스타일' 서 운주사 미륵불 본다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 며칠 전 정년 퇴임하는 교장 선생님이 퇴임식장서 강남 스타일 막춤을 추었다고 나에게 자랑스럽게 전했다.

싸이의 유투브 조회수가 1억명이 넘었다니, 미국 유명 음반사와 계약 했다니 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번지고 있다. 과연 한민족의 '풍류끼'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강남'이란 문화코드는 생소했겠지만 언어장벽을 넘어선 만국공통코드인 '재미'가 마음을 열게 했다. 여기에 싸이의 말춤동작엔 한국만의 토속적인 맛도 성공요인중 하나일 것이다.

'강남 스타일'을 보고 들으며 언뜻 '운주사의 미륵불'을 상기했다. 강남 스타일에 생뚱맞게 웬 미륵불인가? 말로 쉽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싸이의 망가지는 모습에서 운주사의 미륵불을 지울 수가 없다.

나는 청소년 시절에 유랑과 표류로 보낸 시기가 있었다. 당시 한 여름철 '아이스케키' 장사를 하며 30여 '가출 청소년'들이 주인집 한 모퉁이에 마련한 공동 숙소에서 함께 지냈다.

당시 가출 청소년은 결코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숟가락을 덜어 주기 위해서, 또는 고학으로 공부하려고, 돈 벌어 집안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온 상황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과 달리 가출을 통해 큰 인물이 된 '가출 입신'의 인물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았다.

또한 이들이 대한민국 근대화의 근간을 만들기도 했다. 그때 그 공동 숙소에서 부산서 올라온 어떤 청소년이 춤추는 것을 즐겼다. 오래 된 얘기지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춤이 지금의 싸이 막춤과 비슷했다.

그 춤에 흥겨워 함께 춤을 매일 저녁마다 같이 췄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오락이었다. 강남 스타일-운주사 미륵불-가출 소년의 막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고 물으면 막춤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강남 스타일에서 '아나키'한 맛과 멋을 느낀다. 장식된 규범을 부수고—그 부숨은 파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격을 통해 한다—반전과 해학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아나키스트의 체취를 느낀다. 운주사 입구에서부터 늘어선 미륵불은 자유와 해방을 갈구한 애절한 민초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진지함과 무거움을 반전과 해학 그리고 막춤으로 풀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싸이 유투브 조회 1억명 넘어
'재미'가 세계인 마음 열었다
반전·해학 제2 비틀즈 기대
자유 갈구한 미륵불도 유사

가출 소년들이 추는 그 막춤이 바로 미륵의 춤이고, 미륵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바로 해학이다.

강남은 결코 미륵의 동네가 아니고, 가출 청소년의 막춤 동네도 아니다. 그런데 강남은 미륵 동네가 되어 막춤을 신나게 춘다.

강남 스타일이 왜 세계적으로 관심 대상이 될까? 그것은 바로 운주사 미륵불의 원형과 이미지에 세계인이 공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 만큼 이 지구별은 미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에서 미륵의 체취를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싸이에서 '비틀스'를 떠올린다. 영국 조그마한 도시 리버풀서 출발한 비틀스가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선 것은 비틀스 노래에서 자유와 해방의 절규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비틀즈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강남 스타일을 운주사 미륵불과 비교한 것 자체가 오히려 강남 스타일인지도 모른다.

그 만큼 현학적인 흉내 내는 글쓰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강남을 비틀듯 내 글도 비틀고 싶은 것이다. 싸이 노래와 춤 속에서 미륵의 체취가 계속 나온다면 그는 필경 제2의 비틀즈가 될 것이다. 미륵은 인류의 제일 큰 공감이기 때문이다. 나무미륵싸이불.

사부대중 칼럼

산사음악회, 불교다운 기획력 필요



이종만
좋은벗 풍경소리 기획실장

가을이다. 이 시기가 되면 전국 산사에는 감미롭고 흥겨운 음악들이 울려퍼진다. 산사 음악회의 계절인 것이다.

산사음악회는 갑자기 생기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관광과 레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지역 행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사람들은 명산고찰을 찾게 됐고, 산사들도 이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게 됐다. 그것이 산사음악회다. 템플스테이 이전부터 있던 불교 문화상품인 셈이다.

2000년대 산사음악회는 전국 산사에 우후죽순적으로 생겨났다. 제대로 된 목적과 기획 없이 양산된 산사음악회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사찰의 단순 부대행사가 된 경우가 많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사음악회들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세간에서도 그렇지만, 좋은 공연과 나쁜 공연은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유명 연예인을 불러오더라도 그에 맞는 테마와 산사의 멋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산사음악회의 효시로 잘 알려진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기획에 들어간다. 메인 테마와 세부 공연 테마를 정하고 출연 연예인을 섭외한다.

올해 청량사 산사음악회의 테마는 '다 함께 하나돼 목청껏 부르는 노래'다. 팍팍한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울분을 산사에서 소리라도 지르며 풀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음악회의 테마를 정했다. YB윤도현 밴드를 섭외한 이유도 이들 노래만큼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뛰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는 가수가 없기 때문이다.

청량사 산사음악회가 10여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런 탄탄한 기획력에 있다.

이 같이 잘 되는 산사음악회는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위상을 자연스럽게 높인다. 한 예로 2~3년 전 필자가 지방 한 사찰의 산사음악회를 기획·공연한 적이 있다. 크고 화려한 음악회는 아니지만 건실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효과는 다음해 부처님오신날에 드러났다. 이후에 만난 당해 사찰 주지 스님은 다음해 부처님오신날에 비빔밥이 평년보다 1천 그릇이상이 나갔다고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이는 산사음악회가 단순한 부대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다. 좋은 공연은 사람들을 이렇게 산사로 오게 만든다.

테마 갖추고 출연자 섭외
'산사의 멋' 살릴 수 있어야
도심 사찰 문화법회로
찬불 가수 활용도 찾자

산사음악회는 불교 음악을 소개하는 장이기도 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자 연예인도 아닌 단순 유명 가수가 산사음악회를 채우고 있다고 비판한다. 불교 음악을 듣기 어렵다고도 한다. 하지만, 어느 산사음악회가 단순히 유명 연예인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 사찰의 합창단이 나와 찬불가를 부르고, 영산재·법고 등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된다.

열린음악회를 보면 잘 알수 있다. 트로트부터 가곡, 성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함께 마지막은 당대 최고의 가수가 나와 노래를 부른다. 산사음악회에 인원이 얼마나 동원됐고, 연예인이 누가 나왔는지 외향을 보는 것보다 얼마나 양질의 공연으로 채웠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불자 연예인, 찬불 가수의 역할이 걱정된다면 사찰의 일상법회에서 그들이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서 필자는 도심·대형사찰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법회'를 제안한다.

한두달에 한번 정도 음악과 법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법회에 찬불 가수들을 불러 신작 찬불가를 가르치게 하고 따라 부르며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좋은 벗 풍경소리'가 진행하는 붓다콘서트도 이런 문화법회의 일환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불러일으키며, 일취월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한국 불교음악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에 산사음악회의 계절이 다가오면 항상 가슴 한편이 아린다.

社說

동화사 훼불, 해당 교단도 사죄해야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개신교의 한 목사가 대구 동화사서 소변을 누고 탱화에 낙서를 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불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동화사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5시 울산에 거주지를 둔 목사 성 모 씨(43)가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법화경〉과 〈선문절요〉 등 불교경전을 훼손한 뒤 산신각 탱화에 낙서 했다고 한다.

그의 괴이한 행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조사전에 들어가 청수 그릇과 향로에 소변까지 봤다는 것이다. 물론 성 목사의 황당한 행각은 사찰 CCTV에 촬영됐으며 동화사 측은 대구 동부경찰서에 신고해 성 씨는 10여 일 만에 검거됐다.

성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밝히며 "불교경전에 삿된 것이 적혀 있어 훼손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자신이 정작 진실한 목사였다면 자신의 종교처럼 다른 종교도 사랑할 줄 알아야 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적개심을 갖고 신성한 불단에 훼불 행위를 한 것은 어떤 이유로 든 결코 용서될 수 없다.

이런 불교계의 마음을 읽었는지 성 씨는 9월 6일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됐다. 이번 문제는 성 목사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기엔 너무도 황당한 사건이다. 범행을 저지른 성 목사도 엄중처벌해야 되지만 개인적 단죄차원을 넘어 해당 교단에서도 공식 사과 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구불교계에는 이번과 같은 훼불 사건을 연달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기독교계 '땅밟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 났으니 말이다. 지난 2010년 동화사에서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사찰 경내에 들어와 땅 밟기를 벌인 장면이 담긴동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훼불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만이 아니기에 어떻게 보면 그리 놀랄 것도 없다. 하지만 정도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는 것을 보면 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절이 지역 속에 녹아들어야 한다

"불교와 사찰은 지역에 없다. 지역구는 없고, 전국구만 있다."

포교원의 주최로 열린 종책연찬회에서 밝힌 윤남진 NGO리서치 소장의 지적이다. 이는 윤 소장이 연구과정에 만난 서울시 공무원, 풀뿌리 시민사회운동가들의 말을 빌은 것이다.

사실 불교계가 지역사회를 위해 하는 프로그램은 장학, 복지 사업 등이나 간간히 열리는 사찰 음악회 정도의 행사다. 위의 지적은 이런 사혜적 프로그램이 빠르게 사찰을 알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정말 지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세계는 지역공동체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1992년 브라질 리우 회담 이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는 슬로건처럼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자신의 중점 사업으로 도시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의 포교 방법론이 지역과 함께 어울리며 논의해야 한다는 윤 소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도심 및 농촌지역 사찰의 존재방식을 재구성하고 지역에서 사찰의 역할에 근거한 포교 개념을 재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조계사와 마곡사 등을 중심으로 사찰이 지역 공동체 속으로 녹아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조계사는 종로구청과 마을 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일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불교도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갈등해소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역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와 사찰이 스스로 성찰해 변화해 나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불자의 긍지·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광고게재·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명	연락처
부산지사	이재진	051)632-0064 / 011-488-7745
대구지사	손문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062)384-3009 /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소림 벽면 달마도

이제까지 보아 온 달마도가 아닌 완전 새로운 모습의 소림 달마도

달마대사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대사께서 행사신 면벽도는 달마도중 으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중국 소림사의 한국본부문화원 미술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거사님께서 불교계에 입문하게된 보은으로 오랜 연구 끝에 108가지 모습의 백팔 달마도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중요모습들을 선정해 그린 108장의 달마도를 다시 108번 그려서 11,664장의 달마도를 불자님들께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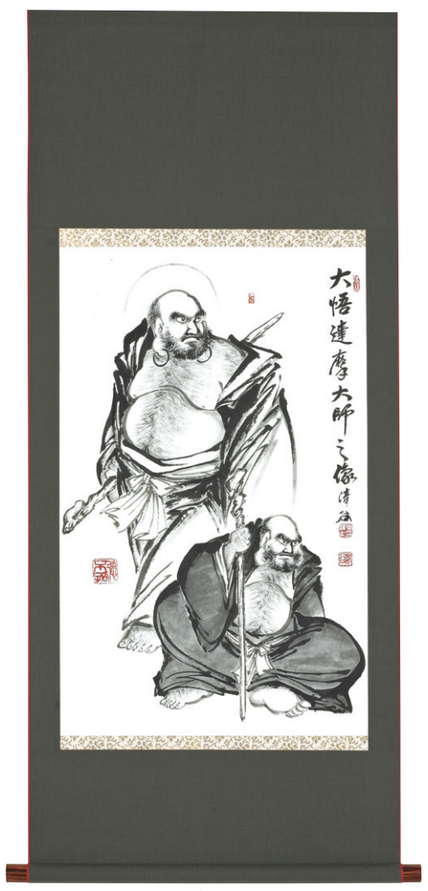
또한, 모든 불자님께서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30만원의 가격을 대폭 할인하여 표구대와 제작비인 99,800원의 가격으로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림 면벽 달마도는 꼭 벽에 걸어 놓지 않아도 상자에 넣어 보관만 하여도 기를 발산되며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에 넣어서 드리며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시면 세월이 지나도 그림이 변하지 않고 습기를 제거하고 좀이나 벌레가 쓸지 못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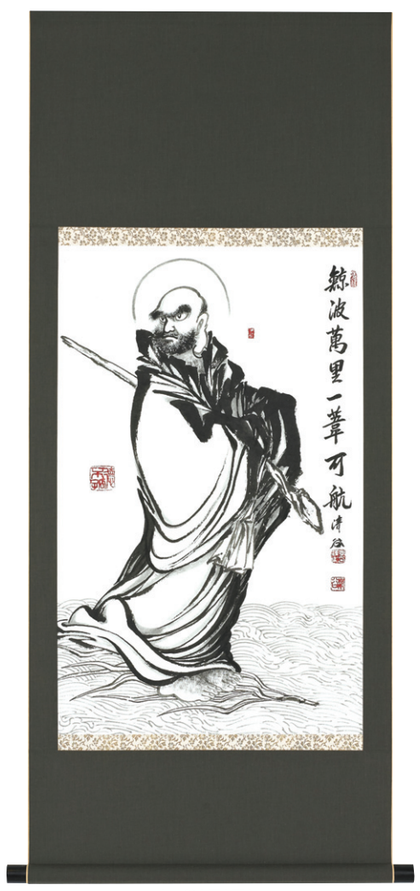
소림 달마도를 집안이나 사업장에 모셔두면 그림속에 발산하는 기로 인해 삼재 소멸 및 가정이 평안해 질 것입니다. 특히, 개업을 하시거나 집안에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 모셔두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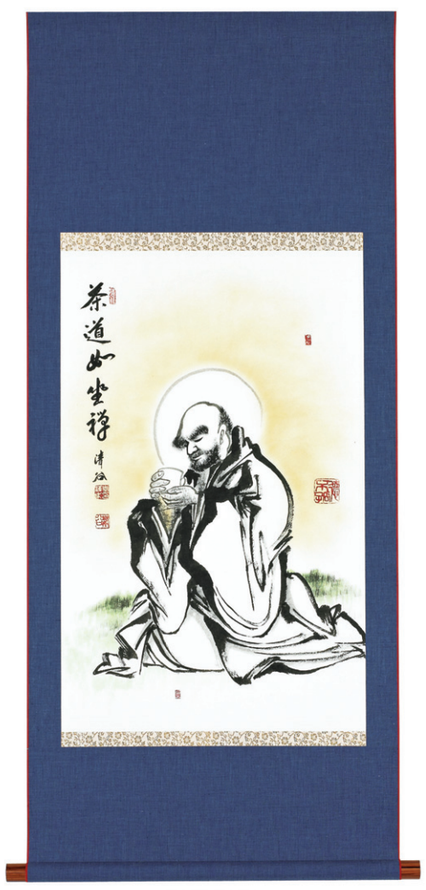
※ 전품목 사은품으로 용달마 순금카드 1점을 드리며 진품 확인서도 같이 드립니다. / 배송 기간 – 최대 일주일 (작품 작업시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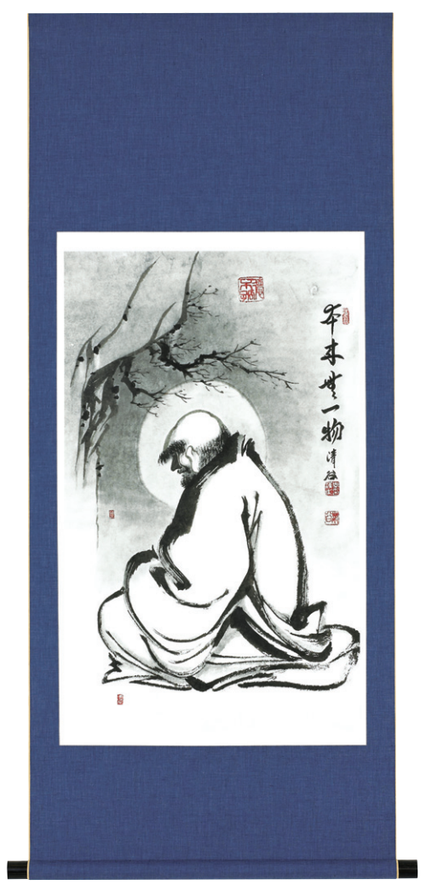
대오달마



노엽달마



다도달마



면벽달마


보관함 (오동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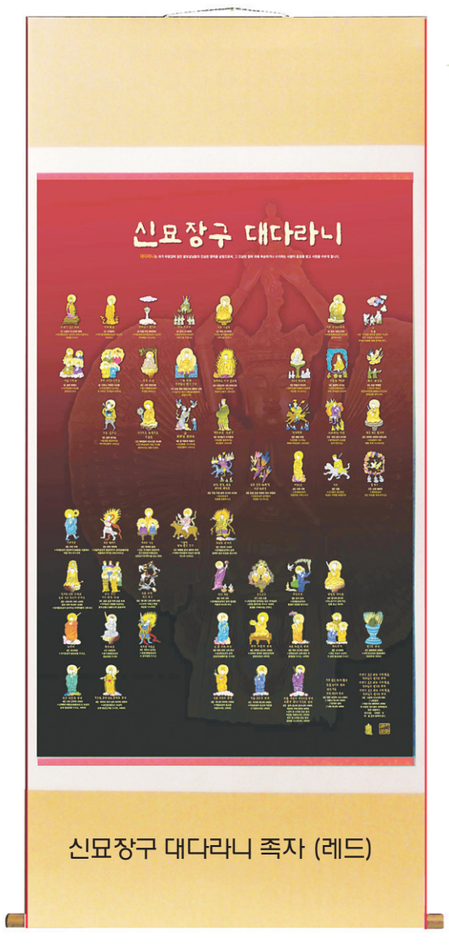
- 크기 : 125Cm×60Cm
  (오동나무상자, 핀고리박스 포함)
- 가액 : 99,800원 + 사은품


<사은품>
용 달마 순금카드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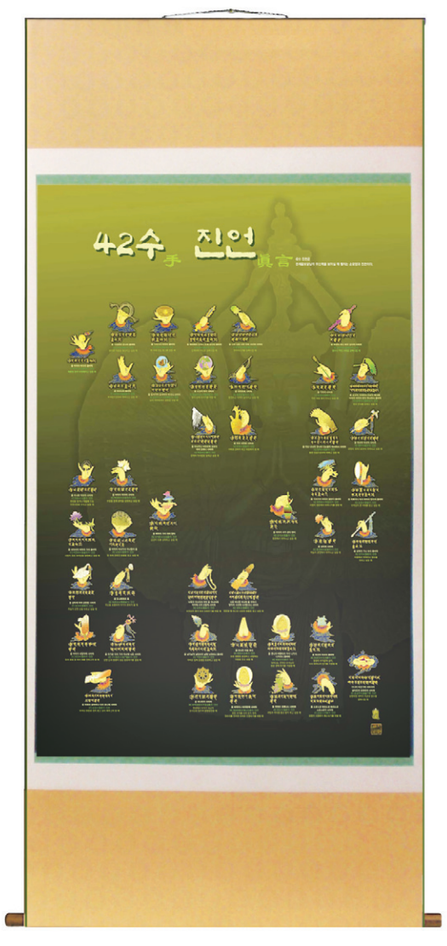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 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권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